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

- 18세기 이후 자전류 문헌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李吉瓊

2023年 8月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

- 18세기 이후 자전류 문헌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裴泳煥

李吉瓊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년 8월

李吉瓊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신성철



委

員

최대희



委

員

김은희



委

員

신우봉



委

員

배영환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3년 8월



A Study on the Palatalization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Focusing on post-18th Century Dictionary literature-

LI, JIQIONG

(Supervised by professor Bae, Young-h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Bae, Young-hwan, Prof.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동기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 대상 및 방법	8
3.1. 연구 대상	8
3.2. 연구 방법	13
II. 기초적 논의	17
1. 자전류 문헌의 자료적 특성	17
1.1. 자전의 개념	17
1.2. 자전류 문헌의 간행 양상과 특징	21
1.3. 자전류 문헌의 중요성 및 자료적 가치	36
1.3.1. 자전류 문헌의 중요성	36
1.3.2. 자전류 문헌의 자료적 가치	40
2. 구개음화 현상의 특징에 대한 고찰	41
2.1. 구개음화 정의에 대한 고찰	41
2.2. 구개음화 유형에 대한 고찰	44
2.3. ㄷ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46
3. 한어중고음 사성칠음 및 구개음 환경	52
III. 자전류 문헌에 구개음화 관련 한자음 현황	55
1. 대상 문헌 한자음의 음운 체계	55
2. 대상 문헌 구개음 환경의 한자음 양상	60
3. 중세한국어 시기 한자음과의 대조	62
4. 『전운옥편』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	132

4.1. 구개음화 실현된 한자음의 현황	132
4.2. 구개음화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 현황	135
4.3. 한자음 구개음화의 사성칠음적 해석	143
IV. 자전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한 고찰	147
1. 자전류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147
2.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의 통시적 고찰	155
3. 한자음 구개음화 과도교정에 대한 해석	158
V. 결론	160
【참고문헌】	163
【ABSTRACT】	170
【부록 1】 『전운옥편』 수록된 구개음 환경의 한자음 상황	172
【부록 2】 『전운옥편』의 체제의 원문	177
【부록 3】 『자전석요』의 범례 및 체제의 원문	178
【부록 4】 『신자전』의 범례 및 체제의 원문	179

【표 차례】

<표 1> 한국 대표적인 옥편 및 자전류 간행 상황	9
<표 2> 초성과 중성 구조는 ㄷ+ㄱ에 해당하는 자례(예시)	14
<표 3> 한어중고음 41聲母 및 관련 韻書 聲母의 대조표	52
<표 4> 성운학(聲韻學)의 등(等)·개구(開口)·합구(合口)	54
<표 5> 『전운옥편』 한자음의 음운 체계 및 수록 글자수 상황	55
<표 6> 『자전석요』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 상황	58
<표 7> 『신자전』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 상황	59
<표 8>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 수록 한자의 구개음화 관련 상황	60
<표 9> 초성 및 중성 구조가 ㄷ+ㄱ인 자례	62
<표 1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ㄲ인 자례	65
<표 1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자례	66
<표 1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ㅋ인 자례	66
<표 1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ㄱ인 자례	67
<표 1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ㄲ인 자례	68
<표 1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ㅋ인 자례	69
<표 1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ㅊ인 자례	70
<표 1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ㄱ인 자례	72
<표 1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ㄲ인 자례	76
<표 1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ㅍ인 자례	77
<표 2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자례	79
<표 2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ㅋ인 자례	82
<표 2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ㅊ인 자례	83
<표 2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ㄱ인 자례	84
<표 2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ㄲ인 자례	86
<표 2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ㅍ인 자례	88
<표 2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ㅣ인 자례	91
<표 2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ㅋ인 자례	93

<표 2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ㄷ인 자례	95
<표 2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ㄱ인 자례	98
<표 3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ㅍ인 자례	100
<표 3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자례	100
<표 3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ㅋ인 자례	101
<표 3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ㄷ인 자례	102
<표 3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ㄱ인 자례	103
<표 3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ㅋ인 자례	104
<표 3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ㅈ인 자례	105
<표 3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ㄷ인 자례	107
<표 3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ㄱ인 자례	110
<표 3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ㅍ인 자례	112
<표 4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자례	114
<표 4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ㅋ인 자례	117
<표 4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ㅈ인 자례	118
<표 4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ㄷ인 자례	119
<표 4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ㄱ인 자례	122
<표 4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ㅍ인 자례	125
<표 4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ㅣ인 자례	128
<표 4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ㅊ+ㅋ인 자례	131
<표 48>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의 미실현 자례	136
<표 49> 미실현 한자음의 사성철음 분류	144
<표 50>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환경에 따른 구개음화 실현율	148
<표 51>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	148
<표 52>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의 세부 실현 양상	148
<표 53>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환경에 따른 구개음화 점유율	150
<표 54>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사성철음에 해당하는 구개음화 실현율	151
<표 55>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의 세부 실현 양상	152
<표 56>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실현율	154

【그래프 및 그림 차례】

<그래프 1> 한학서에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 155
<그래프 2>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 156
<그래프 3> 자서류(字書類) 문헌의 한국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 157
<그림 1> <전운옥편 상 1a> 23
<그림 2> <전운옥편 상 7a> 23
<그림 3> <전운옥편 상 5b> 24
<그림 4> <자전석요 1a> 30
<그림 5> <자전석요 10b> 30
<그림 6> <신자전 19쪽> 35
<그림 7> <신자전 24쪽> 35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

-18세기 이후 자전류 문헌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의 한국 자전류(字典類)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운옥편(全韻玉篇)』(1796?)·『자전석요(字典釋要)』(1909)·『신자전(新字典)』(1915) 등에 수록된 한자음을 정리한 후 그 가운데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대조하면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그리고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비교·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제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자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전과 관련이 있는 ‘자림(字林), 자원(字源), 자통(字通), 자관(字貫), 자휘(字彙), 사서(辭書), 사림(辭林), 자서(字書), 자석(字釋), 자류(字類), 자해(字海), 석사서(釋辭書), 어전(語典), 유서(類書), 사원(辭源), 사해(辭海)’ 등의 용어를 살펴보고, 옥편과 자전 그리고 운서의 관계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문헌 자료도 제시하였다. 동시에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18세기 말경에 간행된 『전운옥편(全韻玉篇)』(1796?)과 19세기 초에 간행된 『자전석요(字典釋要)』(1909)·『신자전(新字典)』(1915)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세 문헌의 편찬 시기, 편찬 배경, 문헌의 체제 및 범례, 문헌의 발행 판본(版本) 및 이본(異本)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과 각 운서·자서와 맺은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 등 자전류 문헌의 중요성과 자료적 가치를 밝혔다. 다음으로 구개음화 현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특히 ㄷ구개음화의 통시적 변화 양상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어중고음의 41자모(字母), 등(等), 개합(開合) 등의 구개음화 실현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전류 문헌에 구개음화 관련 한자음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선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에 포함되고 있는 한국어 음운 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1,595자를 추출하여 환경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 중 구개음 환경에 해

당하는 것을 중세한국어 시기 한자음과의 대조를 통해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는지 또는 구개음화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1,595자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칠 수 있는 한자음과 『전운옥편』 시기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된 한자음, 그리고 『자전석요』·『신자전』 시기에 이르러서야 구개음화가 완성된 한자음을 추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제4장에서 근대 후기의 자전류 문헌에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과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사성칠음을 바탕으로 설음(舌音) 안의 구개음화의 확산 규칙 및 원인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과 한어중고음 성운학(聲韻學)적 해석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비율을 제시해 보았다. 동시에 근대한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 나타난 한자음 구개음화 양상도 살펴보면서 한자음 구개음화의 통시적 확산 양상을 밝혀보았다. 분석 결과로 보아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이른 시기에 시작하였지만, 확산 속도와 완성 시기는 고유어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완성되었음을 밝혔다.

제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한자음들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서는 ‘ㄷ, ㅌ+ i, j’ 환경의 과도교정의 예로 볼 수 있는 한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자료적 성격상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의 보편(補篇)으로 간주하여 『규장전운』의 규범음(規範音)을 반영했기 때문에 당시 현실 한자음보다 과도교정과 같은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자전류 문헌에 수록된 한자음은 고유어와 문학 작품의 한자음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전체 논의로써 얻은 결론을 제시하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이를 앞으로의 연구 방향으로 삼도록 하였다.

주제어: 자전류(字典類), 한국 한자음(韓國漢字音), 구개음화(口蓋音化), 한어중고음(漢語中古音), 사성칠음(四聲七音), 설음(舌音), 치음(齒音)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동기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의 한국 자전류(字典類)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운옥편(全韻玉篇)』(1796?)·『자전석요(字典釋要)』(1909)·『신자전(新字典)』(1915) 등에 수록된 한자음을 정리해 보고, 그 가운데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대조하면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그리고 구개음화의 변화 과정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근대한국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현된 음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구개음화일 것이다. 구개음화는 반모음 /i, j/ 앞에서 치조폐쇄음 /ㄷ, ㄸ, ㅌ/, 연구개폐쇄음 /ㄱ, ㄲ, ㅋ/가 구개파찰음 /ㅈ, ㅉ, ㅊ/로, 후두마찰음 /ㅎ/가 치조마찰음 /ㅅ/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현상 외에 /i, y/ 앞에서 일어난 반모음 /j/ 첨가 현상이나, 역시 /i, j/ 앞에서 /ㄴ/이 탈락되는 현상 등도 넓은 의미의 구개음화 현상으로 다루기도 한다(김주필 2017:9). 하지만 한국어에서 구개음화는 흔히 /ㄷ, ㅌ/ 등 일련의 비구개음이 반모음 /i, j/ 앞에서 경구개음 /ㅈ, ㅊ/로 되는 음운 현상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 논의할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에 한정한다.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는 언어의 여러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나 현대한국어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음운 층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음운 변화 현상으로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 변화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음운 현상은 구개음화이다. 한국어에서 ㄷ구개음화는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에 일어났으며, 한국 남부 방언에서 시작되어 북상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기문 1977:64). 그러나 구개음화는 환경별로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1) 주지하듯이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ㄷ, ㅌ/이 반모음 /i, y/ 앞에서 발생한다. 여기의 /i/는 한국어에서 /i/를 가리키고 /y/는 ‘ㅑ, ㅓ, ㅕ, ㅠ, ㅟ’를 가리킨다. 다만, 한국어의 반모음 /y/는 국제음성부호에서 /j/로 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ㅑ, ㅓ, ㅕ, ㅠ, ㅟ’를 /j/로 동일하게 표시하기로 한다.

가령 고유어와 한자어, 표준어와 지역어,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 그리고 어두와 비어두 등 환경에 따라 실현 양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일부 문헌에서 그 실현 예가 확인되었지만, 한자음에서 구개음화의 완성은 오히려 고유어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개음화가 그만큼 오랜 기간 변화 과정을 거쳤음을 말해준다. 다만 그러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었고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근대한국어 시기 자전류의 한자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전류의 한자음이란 자전류 문헌 속에 표제자(標題字)로 된 한자에 대해 한글로 주음(注音)되는 음을 말한다. 이는 기초 한자 교육을 위해 한자마다 훈과 음을 한글로 달았기 때문에 한자의 훈과 음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달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전류 한자의 훈과 음에 사용된 한국어는 문장으로 된 언해문보다 규범적이면서도 보수적인 특성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주필 2006:87). 즉, 자전류의 한자음은 규범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자전류 한자음은 그 당시 한자음의 정통적인 음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자음의 보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부 음운 현상은 고유어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며 확산 속도나 완성 시기도 고유어보다 상대적으로 늦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한국어 시기에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구개음화 현상은 15세기부터 일부 문헌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고유어 환경에서 확산되고 있고 보다 이른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양반과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은 한자어를 애용하기 때문에 한자음에 관한 통시적·공시적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자음은 고유어보다 구개음화의 확산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전류 문헌에 제시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별도로 검토하여 자전류 문헌에 나타나는 한국어 사용의 국어학적 역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전운옥편』은 근대 한자음을 반영한 가장 권위 있는 대표 자전이라 할 수 있다. 『전운옥편』이 한국 한자음 자전으로서 편찬 연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강신항(1993)은 대체로 1796년(정조 20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하영삼(2014)은 『전운옥편』의 편찬 시기를 1819년으로도 추정하고 있다²⁾. 이로 보아 『전운옥편』은 대체로 18세기 말에

2) 『전운옥편』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편찬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편찬 시기와 동기에 대해서는 『규장전운(奎章全韻)』과 관련하여

나 19세기 초기에 간행된 자전류(字典類) 저서(著書)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자전인 『전운옥편』의 해당 한자음은 일부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지만, 이는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대 후기 한국 자전류 문헌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자전류 문헌에 한정하여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핀 논의는 거의 없었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를 전수 조사한 후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통계하고,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각각 초성 /ㄷ, ㅌ, ㅈ, ㅊ/와 /i, j/의 결합 순서로 분류하여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동시에 『전운옥편』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자전석요』와 『신자전』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구개음화 실현 양상의 추이를 살피고자 한다. 『자전석요』는 1906년에 편찬되었으므로 이 시기까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실제의 변화 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운옥편』과 일치된 글자들의 한자음은 『자전석요』와 『신자전』 편찬 시기까지 ㄷ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가 실현된 한자음과 실현되지 않은 한자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과도교정의 양상 등을 고찰하여 이러한 자전류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 등을 논의해 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경일(2008:249).

또는, 왕평·하영삼(2019)에서 ‘『전운옥편』의 구체적 간행 연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규장전운』의 자매편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규장전운』의 간행 년도인 1796년(정조 20년) 이후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하강진, 2016)에 의하면, 간행 년도를 180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전운옥편』은 正祖의 강력한 문화정책에 힘입어 1796년 간행된 『奎章全韻』의 자매편으로 기획되었다. 이 운서가 세상에 유포되자 독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으나 檢字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조는 이내 옥편을 서둘러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자학에 밝았던 柳明杓가 앞장서서 편수를 완료했으나 간행을 앞둔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자전 간행은 한동안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무렵 『규장전운』 간행을 주도하고 자전 편찬을 후원한 남인·소론 시파가 노론 벽파에 의해 대거 축출되는 정국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803년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고, 정조 반대노선의 핵심에 섰던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1805년 61세의 일기로 죽자 상황이 반전되어 비로소 10,975자의 『전운옥편』을 간행할 수 있었다.”의 논의도 제시하였다.

3) 『전운옥편』에 대해서 이돈주(1996), 이준환(2007), 정경일(2008), 이준환(2012), 왕평·형신보(2012), 하영삼(2016) 등의 논의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한자음을 고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구개음화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사 검토

구개음화는 한국어 음운사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다. 기존 한국어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어 고유어에 나타난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이다.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학서 문헌과 옥편, 자전, 자서 등 자석류 문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대한국어 시기 한자음 자전류 문헌을 중심으로 한자음에 나타난 구개음화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한국 근대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이 주장하는 구개음화의 현상으로 비구개음 초성이 /i/나 /j/ 앞에서 구개음 위치의 초성으로 발음되고 표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디, 티’는 ‘지, 치’로 변하고 ‘더, 터’는 ‘저, 처’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 방식은 주로 한국 고유어의 구개음화를 고찰할 때 이용한다.

둘째, 훈민정음 시기부터 준수하는 발음 위치는 아음(牙音), 설음(舌音, 반설음 포함), 순음(唇音), 치음(齒音, 반치음 포함), 후음(喉音)으로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이 구개음화는 아음(牙音)·설음(舌音)·후음(喉音)에서 발음하는 음이 치음(齒音)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구개음화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정의 방식은 주로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고찰할 때 이용한다. 예를 들면, 『훈몽자회』·『유합』 등 문헌에서 한어중고음 설상음(舌上音)에 속한 知[t], 徹[tʰ], 澄[d]母字는 /ㄷ, ㅌ/로 반영되었는데 근대 시기의 한국 운서인 『화동정음통석운고』·『삼운성휘』·『규장전운』·『전운옥편』 등 문헌에서 거의 전부 구개음화 시킨 것은 주지한 사실이다(이돈주 2003)⁴⁾.

그 밖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음의 조음 위치에 대해서 분류도 다르게 하고 있어서 학자마다 구개음화의 정의도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발음 위치로부터 구개음화를

4) 이돈주(2003:144/145)에서는 “漢語中古音에서 설상음에 속한 知[t], 徹[tʰ], 澄[d]모자는 『자회』나 『유합』의 한자음에서는 철저히 비구개음의 /ㄷ, ㅌ/로 반영되었던 것이데 근대 한국 운서인 『화동정음통석운고』(1747)를 비롯하여 『삼운·규장·전운』에서 이들을 모조리 구개음화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개음화는 설상음에 한하여 『화동·삼운·규장』등의 후기 운서에서 인위적으로 변음시킨 결과이다. 그 이유는 중국어 음운사에서 중고 한음의 知[t]계 성모가 정치 3등의 照[tɕ]계와 정치 2등의 莊[tʃ]계 성모가 병합되어 권설음인 [tɕ-, tʃ-]로 변천된 사실에 맞추어 한국 한자음을 규범적으로 조음시킴으로써 설두음인 端[t-]계 성모와 구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정의하는 것을 주장하며 일부 학자들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로부터 구개음화를 정의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승환(1973)에서는 구개음화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는 것 외에 일부 방언에서의 된소리도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한다⁵⁾.

김주필(1999)에 따르면 “구개음화란 실제로 치음(齒音)의 구개음화라고 통칭하여 온 음운 현상, 즉 /ㄷ, ㅌ/ 등 일련의 비구개음이 /i/, /j/ 앞에서 치음(齒音)의 구개음화 [tʃ]로의 이행에 힘입어 역시 [tʃ]로 되는 현상을 가리켜 종래처럼 구개음화라고 칭한다.”⁶⁾라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주필, 이명규, 안병희, 이기문, 배영환, 송민, 이동석, 이준환 등이 있다. 한국어 한자음 구개음화에 대한 논의는 강신항(1983), 남광우(1973), 이명규(1974, 1993), 이명규(2000), 박승철(2000), 김주필(2003, 2006, 2018), 이준환(2007, 2012), 김주필(2015), 배영환(2017, 2020, 2021), 기혜민(2018) 등이 있다.

남광우(1973)는 임진란 이전의 현실 한자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2기 문헌(二期文獻)과 3기 문헌(三期文獻)⁷⁾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의 예를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론을 보면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2기 문헌에서 나타나지 않고 일부 3기 문헌에서도 여전히

5) 이승환(1973:3)에서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으로는 된소리도 구개음화하는 현상이다. 이는 그리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 해도 근원적인 면에서 국어의 구개음화 규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몇 가지 된소리의 구개음화 현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제주도 방언의 낱말들이 있다.

“도끼(斧) → 도치” “돼지띠 → 돼지치” “뜨겁다 → 지겁다”
 “토끼띠 → 툃혜치” “끼다(연기가) → 찌다”

6) 김주필(1999)을 참조.

7) 남광우(1973)에 말한 二期문헌(제2기 한자음)과 三期문헌(제3기 한자음)은 다음과 같다.

二期문헌: 救急簡易方 卷 1·3·6, 六祖法寶壇經諺解上·中, 眞言勸供, 翻譯小學 卷 8·9·10, 初刊朴通事, 呂氏鄉約諺解, 訓蒙字會, 分門瘟疫易解方, 新增類合, 石峰千字文, 宣祖版小學諺解 全6卷, 孝經諺解, 初刊杜詩諺解

三期문헌: 東醫寶鑑(光海君 5년 16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光海君 9년 1617), 癸丑日記 家禮諺解(仁祖 10년 1632),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仁祖 14년 1636 海州牧開刊), 勸念要錄(仁祖 15년 1637), 辟瘟新方(孝宗 4년 1653), 警民篇(孝宗 7년 1656), 老乞大諺解(顯宗 11년 1670), 朴通事諺解(肅宗 3년 1677), 松江歌辭(李選本 肅宗 16년 1690, 星州本 英祖 24년 1748), 李朝御筆諺簡集(孝宗·仁宣王后·顯宗·明聖王后·肅宗·仁顯王后 諺簡), 靑丘永言(英祖 4년 1728), 同文類解(英祖 24년 1748), 王郎返魂傳(英祖 29년 1753), 朴通事新釋諺解(英祖 41년 1765), 地藏經諺解(英祖 41년), 念佛普勸文 興律寺板(英祖 41년), 三譯總解(英祖 50년 1774), 漢清文鑑 八歲兒(正祖 元년 1777), 小兒論(正祖 元년 1777), 字恤典則(正祖 7년 1783), 改修捷解新語, 增修無冤錄諺解(正祖 16년 1792), 敬信錄諺釋(正祖 20년 1796), 重刊五倫行實圖(哲宗 10년 1859), 三聖事實(高宗 17년 1880), 太上感應篇(高宗 17년), 턴로력당(1895), 重刊周易諺解 重刊孟子諺解 重刊詩經諺解

韻書 玉篇 辭典類:

東國正韻 落秩本, 復原東國正韻(俞昌均著), 四聲通解, 大廣益會玉篇, 三韻聲彙, 奎章全韻, 全韻玉篇, 字典釋要(1906), 新字典(1915), 總督府辭典, 文世榮辭典, 한글학회 큰사전 李熙昇編, 국어대사전 새字典(金敏洙著),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刊)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논의에서 구개음화에 대해 옥편과 자전류 문헌의 한자음은 여전히 /ㄷ, ㅌ/로 표기되어 있으며 『삼운성취』·『규장전운』·『전운옥편』·『신자전』을 일관해 온 것을 따른 것이라는 관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이 넓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주필(2006a), 배영환(2020, 2021)은 18세기 왕실 문헌 및 조선 왕실 언간에 나타난 ㄷ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과도교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을 살펴보면 모두 낮은 정도로 구개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왕실 문헌과 언간에서 사용된 언어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상류층의 언어 사용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추측하였다. 배영환(2020)은 왕실의 언어에서 구개음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개된 이유에 대해 구개음화가 지역 방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또 계층적으로도 중인 계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역 방언 측면과 사회 방언 측면에서 2차레에 걸쳐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하여 그만큼 보수적이었던 관점을 지적하였다.

중세 및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이명규(2000)는 통시적 연구로 중세 및 근대 시기에 구개음화가 전개되어 가는 양상을 현대 음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아울러 /ㄱ/, /ㅎ/ 구개음화와 구개음화에서 비롯된 어두음 /ㄴ/와 /ㄹ/의 탈락 현상을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어 구개음화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구개음화의 통시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공시적인 특성도 고찰함으로써 한국 중앙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난 시기를 비롯하여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을 밝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필(2006b)은 한국어 자석류 문헌 『천자문』, 『유합』 등에 나타난 구개음화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구개음화 예들의 출현 빈도를 통하여 실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고찰을 통해 자석류 문헌의 구개음화는 16세기의 『신증유합』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 중기의 『주해 천자문』에 이르러 55%를 상회하는 구개음화 비율을 보여주고, 20세기의 『역대천자문』에는 단 두 가지 예를 제외하고 모든 환경의 예들이 구개음화 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꾸준히 나타나는 구개음화 예들은 자석류 문헌의 언어 사용이 규범적이고 보수적일 것이라는 애초의 가정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박승철(2000)은 16세기 한학서 문헌 『誠初心學人文』, 『蒙山法語』 등의 한자음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을 검토하여 논의는 중세한국어의 치음(齒音) /ㅈ[tʃ]/가 경구개음인 [tʃ]로 변화할 것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애초의 구개음화 즉 15세기

후기~16세기 초에 구개음화 현상을 반영한 문헌이 현전하지 않아 치경음(齒莖音) /ㅈ/의 음가(音價)와 관련된 우연한 구개음화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원문, 언해문의 한자음 표기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강신항(2003)은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진행하여 한국 한자음은 17세기 말경까지 설단음(舌端音) 일색으로 표기하던 설음(舌音)을, 18세기에 이르러 설단(舌端) 파열음과 경구개 파찰음으로 구별하여 표기하게 되고, 그나마도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설상음(舌上音)과 똑같은 음성적(音聲的) 환경을 가졌던 설두음(舌頭音), 즉 /-i-/(-j- 포함)와 결합된 설두음(舌頭音)계 자음들까지도 모두 경구개 파찰음으로 변화한 것은 한국어의 구개음화 및 이에 영향을 입은 한국 한자음 자체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지적하였다.

이준환(2007)은 근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설음(舌音)계 한자음의 구개음화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 /ㅣ/나 介音[활음] /j/ 앞에 놓인 설상음(舌上音) 2·3등자와 설두음(舌頭音) 4등자는 모두 구개음화 되어서 이 변화를 겪지 않은 설상음(舌上音) 2등자와 설두음(舌頭音) 1등자와는 구별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설상음(舌上音)은 2·3등자에서 모두 正齒音으로 되어 /tʃ-/계로 바뀌고, 설두음(舌頭音)은 1·4등자에서 모두 여전히 /t-/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한자음의 특이성이 중국 한자음과는 다른 점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기혜민(2018)은 한국 한자음 설음(舌音)계의 구개음화가 과연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와 중국어의 구개음화의 비교 고찰을 통해 상호 간의 관련성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과 중국어의 구개음화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연설(2010), 기혜민(2018)은 중국과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대조·연구하였다.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고찰하여 치(齒)·설(舌)·후(喉)·아음(牙音)계에서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길경·배영환(2022)은 『전운옥편』에 실린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고찰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1,595자의 한자음 중 구개음화 현상을 거친 글자가 199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논의 결과를 통해 『전운옥편』의 한자음 구개음화는 /ㄷ/와 /ㅌ/ 환경에 큰 차이가 없지만 /i/ 환경이 /j/보다 구개음화의 실현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의와 비슷한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음 구개음화를 전개한 연구는 김민경(2020), 김서영(2022), 이길경 외(2021a), 장천(2023) 등이 있다.

18세기 말기에 구개음화 현상은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지만, 일부 문헌 자료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는 예가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운옥편』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가 해당되는 음가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한국은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이미 중국 한족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를 학습 및 사용되었기에 한국 한자음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 즉 한국 한자음의 형성은 고대 한국에서의 한자 사용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어(漢語)와의 관계 속에서 정착되고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자는 고대 중국에서 전파된 외래 문자로 한자가 처음 전래될 당시에는 고대한어(古代漢語)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한국 한자음의 체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의 자음(字音), 자형(字形), 음운 체계 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서(字書), 운서(韻書), 옥편(玉篇)⁹⁾, 자전(字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서는 자음(字音)을 기준으로 했는가, 자형(字形)을 기준으로 했는가에 따라 운서와 자전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자전은 운서의 색인으로 사용되었던 조선시대의 옥편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근대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자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한종호 2002:24).

따라서 자전이나 옥편이 포함되어 있는 자전류 문헌은 한국 한자음의 통시적 음운 변화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주로 18세기 이후에 간행된 자전을 중심으로 수록

8) 한종호(2002), 『『字典釋要』 知, 端系字의 語音變化-語彙擴散理論의 適用可能性 檢討』, 『중국어학』 제17집, 23-24쪽.

9) 박형익(2012:38)에서 “옥편(玉篇)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는 고유 명사인 책명으로만 사용된다. 『옥편(玉篇)』은 543년 중국 남조(南朝) 시대 양(梁)의 고야왕(顧野王, 519년-581년)이 엮은 자전이다, 한국은 이 책명에서 따온 ‘옥편’이라는 용어를 자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옥편’이라는 용어를 문헌 명칭에 사용하고 논술 부분에 ‘옥편’과 ‘자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모두 ‘자전’과 ‘자전류 문헌’을 통칭할 것이다.

된 한자음을 추출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ㄷ구개음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옥편(玉篇)’ 또는 ‘자전(字典)’이란 이름으로 출간된 자전을 대상으로 당시 한자 자전 즉 옥편의 출판 상황과 전승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대상 문헌과 관련된 한국의 대표적인 자전류 문헌을 간행 연도순으로 나열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대표적인 옥편 및 자전류 간행 상황¹⁰⁾

著作名	刊行年度	出版狀況	著者	刊行處	備考
『韻會玉篇』	1537		최세진		
『三韻聲彙補玉篇』	1751		홍계희		
『全韻玉篇』	1796?	27판	미상	미상	
『國漢文新玉篇』	1908/1909	정정재판	鄭益魯	야소교서원	편집 겸 발행자
『字典釋要』	1906	23판	池錫永	匯東書館	
『新字典』	1915	7판	崔南善	신문관	
『附音考 漢鮮文新玉篇』	1918/1924	5판	玄公廉	匯東書館	
『漢日鮮大字典』	1918		이중성		
『增補奎章全韻 漢鮮文新玉篇』	1919	미상	李鍾楨	光東書局	대표 발매소
『漢日鮮新玉篇』	1921		정기성		
『日鮮文新玉篇』	1921/1927	5판	심익갑		판권지 낙장
『懷中日鮮文新玉篇』	1923/1930	4판	玄公廉	永昌書館	
『增訂附韻 漢日鮮新玉篇』	1922				판권지 낙장
『漢鮮文新玉篇』	1945/1949	4판	金東縉	德興書林	
『大增補日鮮新玉篇』	1931	초판	高裕相	匯東書館	
『日鮮新玉篇』	1935	초판	姜義永	永昌書館	
『새 자전』	1961		김민수		
『한한 대사전』	2008			민중서림 편집국	

<표 1>에 제시된 자전류 문헌들은 한국 한자음 자전류 중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된 문헌이다. 이 중 『전운옥편』은 한국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자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후의 한국 자서 편찬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 『전운옥편』의 편찬은 중국의 전통 자서 특히, 송본(宋本) 『옥편』과 『강희자전』의 핵심을 계승하였으며, 편찬 체계에서도 이미 상당히 완숙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 근대 한자음의 음운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한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전운옥편』 간행 이후 편찬된 한국의 대표적인 한자음 자전으로 본다. 한국 자석류 문헌을 고찰해 보면 한국의 자전(옥편)류 문헌의 편찬은 18세기 말

10) <표 1>은 김억섭(2014:114-115)과 박형익(2012:4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전에 전개되었다. 19세기 백여 년 동안에 편찬된 자전류 문헌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으며 20세기 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정익로(鄭益魯)의 『국한문 신옥편』¹¹⁾과 지식영(池錫永)의 『자전석요』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 자전의 맥을 잇고 있다¹²⁾. 『국한문 신옥편』의 이러한 편찬 판본의 불안정적인 성격과 간행 시기의 잘못 설명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자전석요』보다 3년 일찍 편찬되었지만, 근대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활자본 자전으로 역시 지식영(池錫永, 1855~1935)의 『자전석요』를 들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국한문 신옥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전석요』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래의 자전이 운서의 보편(補篇)으로 편찬되었던 것과 달리 『자전석요』는 본래부터 독립적인 성격으로 편찬된 최초의 자전으로 본다. 『자전석요』는 원거(原據)를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두고 자의(字義)는 『규장전운』을 따랐으므로 자음은 『전운옥편』을 물려받았다. 『자전석요』의 편찬 목적은 아동들에게 한자 계몽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전석요』는 전승 한자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근대의 자전이기에 때문에 근대 및 개화기 한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자전들과의 비교를 통해 근대 한국 한자음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볼 수 있다.

『신자전』은 조선광문회가 종래의 옥편을 신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1915년에 신문관(新文館)에서 출판한 대역 자전이다. 이충구(2000:70)에서는 『신자전』은 한한(韓漢) 대역 자전으로서 그 대부분은 『강희자전』이라고 『신자전에(新字典例)』에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희자전』의 전체 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된 일부분의 한자가 대역되었다¹³⁾. 이 책의 글자의 배열순서는 일괄적으로 『전운옥편』을 따랐으며 214부수 17

11) 『國漢文 新玉篇』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자전이므로 1908년에 초판이 간행되었는데, 1909년에 정정판을 이어 발행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 정정 증보 보유 판도 쪽수를 추가하여 간행되었다. 박형익(2012:407)에는 “정익로의 『국한문 신옥편』의 발행 시기를 유창균이 기술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1991)의 표제어 ‘옥편’, 『한한 대사전』(민중서림편집국, 1997) 등에서는 1910년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고,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920/1964: 542), 최현배(1940/1961: 216), 이충구(1991) 등에서는 1911년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2) 박형익(2012:377) 한국의 대표 자전이라는 부분에서 “한국 초기 자전으로는 『운회옥편』(최세진, 1537년 12월 이후), 『삼운성회보옥편』(홍계희, 1769) 등과 1796년 이후에 편찬된 『전운옥편』(편자 미상)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그래서 『전운옥편』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목판본 자전이라고 한다. 한국 운서의 검색을 돕기 위하여 보편으로 발행된 옥편은 『전운옥편』에 이르러 자전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데,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자전인 정익로의 『국한문 신자전』(1908)과 지식영의 『자전석요』(1909) 등은 『전운옥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편찬된 자전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자전의 맥을 잇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내용을 근거하여 한국 자전의 편찬과 간행은 18세기 이전과 20세기 초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며 19세기에 해당하는 100년 동안에는 자전류 문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3) 이충구(2000), 『『新字典』의 근대자전 성격에 대한 고찰』, 『한중철학』 제6집, 67-90쪽.

획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그 서와 전례(典例)에 밝힌 대로 한자의 자획(字劃)을 바로잡고, 진보적인 사전(辭典)의 형식에 따라 종래에 없던 주석의 용례를 경서(經書)에서 인용하였으며, 특수한 것은 삽화를 넣어서 주석을 보충하고, 끝에 조선 속자(俗字)·신자(新字)를 추가한 점 등이다. 특히 인용은 주석을 실증하는 성격이므로, 한자의 주석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새로 하는 작업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뒤 일제강점기의 여러 옥편이 그것을 추종하였지만, 『신자전』은 『전운옥편』의 결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면서 주석에 공을 들여 가장 충실하고 현대적인 사전이 되었다. 『신자전』의 성립으로 한국의 자전은 『자전석요』를 이어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었다. 이 자전은 양적으로 한자 수가 『자전석요』보다는 약간 적지만, 질적으로 음의(音義)에 대한 여러 제시에서 『자전석요』를 능가하는 측면도 있어 실용적이고 전문적이다.

본 논문에서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을 선정하여 대조 연구하는 이유는 이 세 문헌의 편찬 체제는 다른 자전류 문헌보다 더 유사하고 전승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전석요』, 『신자전』의 범례의 고찰을 통해 밝힐 수 있다¹⁴⁾.

『字典釋要』의 增補字典釋要凡例(원문)(『자전석요』의 증보자전석요범례)(역문)

1) 此書專爲訓蒙而作字義之深奧不暇盡釋一遵奎章全韻所釋之要義

본 저서는 특별히 훈몽을 위해 편찬된 것으로, 글자의 심오한 뜻을 미처 다 해석하지 못한 부분은 『규장전운』의 해석을 따른다.

2) 奎韻所載外添入字其分韻之法一依字典反切而正之原本稱音未詳者依舊註音未詳

『규장전운』에 실린 글자 이외의 첨입자(添入字)는 그것의 분운(分韻) 방법은 『강희사전』 글자 반절에 따라 규정하되 본래 음이 미상인 글자는 주음이 여전히 미상으로 표기되고 있다.

3) 字音從全韻玉篇而有俗音者從俗音如乏字本音법而俗音뽕之類有正音者從正音如

雙字本音상而正音쌍之類至若筭字拘(?)¹⁵⁾韻發其俗音차從原音잡

14)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의 자매편으로 편찬되었으며 보편으로 『규장전운』과 짝을 이루어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체계와 범례가 탑재되지 않았다.

15) 『자전석요』 범례에서 이 부분의 원문이 파손되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 다만, 한어 중고음에 따라 ‘割’의 운모는 ‘洽韻’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하지 못한 글자는 ‘洽’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 저서의 자음은 『전운옥편』의 자음을 승계하였으며 속음이 있는 글자는 속음을 따른다. 예로 ‘乏’의 규범음은 ‘법’이고, 속음은 ‘핍’과 같은 類이다. 정음을 가진 글자는 정음을 따르는데, 예로 ‘雙’의 규범음은 ‘상’이고, 정음은 ‘쌍’과 같은 類이다. ‘筍’는 흡운(洽韻)을 취하여 속음은 ‘차’, 규범음은 ‘잡’을 따른다.

4) 兩字音義俱同者兩字下各書與某字全而音義則註于一字以從簡要如與与所所之類
두 글자의 음과 뜻이 모두 같을 경우, 차례 밑에 ‘모자(某字)’와 동일함을 밝히고, 음과 뜻은 표기상의 간소화를 위해 한 개의 차례 아래에만 밝혀 두었다. 예를 들어 ‘與·与’, ‘所·所’와 같은 類이다.

5) 兩字音義有甲通於乙而乙不通於甲者甲下註與乙通乙下註見于甲如一壹二貳之類
두 글자의 음과 뜻과 관련하여, 갑은 을과 통하지만, 을은 갑과 통하지 않을 경우 ‘갑’의 밑에는 ‘을과 통합’으로 밝히고, ‘을’의 밑에는 ‘갑 참조’라고 밝힌다. 예로 ‘一·壹’, ‘二·貳’와 같은 類이다.

6) 一字中有數種音義而與他字全他字通者先書其義註明與某字全某字通而圈隔之以避混同如乘槩不弗之類
한 차례가 여러 개의 음과 뜻을 가질 경우, 다른 자와 동일하거나 통한다면 먼저 그 뜻을 밝히고, 어떤 자와 동일하고, 어떤 자와 통하는지를 밝혔으며, 게다가 ○로 구분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했다. 예로 ‘乘’, ‘槩’, ‘不’, ‘弗’과 같은 類이다.

『新字典』의 예(원문)(『신자전』의 례)(역문)

1) 此書用康熙字典爲臺本剪其繁衍補其闕漏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以應新時代之用故名曰新字典

본 저서는 『강희자전』을 대본으로 삼아 복잡한 부분은 없애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 만들어진 글자와 새로 추가된 뜻을 모두 수록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름하여 ‘신자전’이라 한다.

2) 此書字次一遵全韻玉篇而體例從泰西字書其添入字亦遵玉篇例分韻編定

본 저서의 차례 배열 순서는 『전운옥편』을 따르고, 체제는 ‘태서자서’를 따랐

으며, 첩입자도 마찬가지로 『전운옥편』의 차례 분운에 따라 제정하였다.

3) 朝鮮字學以全韻玉篇爲準而字劃或有差爽故博考古文釐正

조선의 한자 학습은 『전운옥편』을 기준으로 하여, 자획에 혹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고문을 많이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4) 自來記音之用ㄱ ㄴ ㄷ ㄹ 等反切尾字者古雖有據今屬無證故此書直用가나다라等頭字但於其下附記原音以示重古之義如四스兒으 懇곤 呑呑 箴증 叅증 代디 來리 之類
원래부터 주음 표기에 사용되었던 ‘ㄱ, ㄴ, ㄷ, ㄹ’ 등 반절 하자는 고대에는 근거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본 저서에서는 ‘가, 나, 다, 라’ 등 두자(頭字)를 직접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례의 밑에 원음(原音)을 표기하여 고음을 존중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로 ‘四스’, ‘兒으’, ‘懇곤’, ‘呑呑’, ‘箴증’, ‘叅증’, ‘代디’, ‘來리’와 같은 類이다.

위의 두 권 자전의 범례를 보면 『자전석요』는 원거(原據)를 『강희자전』에 두고 자의(字義)는 『규장전운』을 따랐으며 자음(字音)은 『전운옥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에 수록된 차례는 속음(俗音)이 있으면 차례의 속음을 따르고 정음(正音)이 있으면 정음을 따랐다. 『신자전』도 『전운옥편』의 자차(字次)의 순서와 자학(字學)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이 세 문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을 선정하여 대조하면서 한자음의 ㄱ구 개음화 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동시에 관련된 다른 자서 문헌도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근대 및 개화기 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한국 한자음 자전류 문헌에 실린 한자음을 대상으로 한다. 근대 시기에 여러 자전이나 옥편 중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

전』은 서로 간에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대표적인 자전들이다.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을 중심으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와 한자음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집중적으로 비교·고찰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 수록한 글자 및 한자음을 추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전운옥편』에 수록된 10,977개의 한자와 대응하는 한자음을 전부 수집하였다. 하나의 한자는 대응할 수 있는 한자음이 한 개이거나 두 개 이상일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은 다음자(多音字), 이체자(異體字), 오기(誤記) 그리고 청취상의 다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한 개의 자례가 엄격하게 하나만의 음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많은 음가도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자례를 통계하면서 대응하는 한자 주음(注音)을 취급할 때 우선 자례 바로 밑에 표기하는 규범음을 취하고 구개음 환경에 관한 주음(注音)이 있으면 같이 통계한다.
- 2) 수록된 글자를 자음과 모음의 순으로 분류하고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전운옥편』 총 10,977개의 글자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1,295자를 추출한다.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이 1,295자에 대해 『자전석요』와 『신자전』에 대응하는 한자 주음(注音)도 같이 비교·고찰하기로 한다.
- 3) 본 연구에 한자음들의 분류에 대해 현대한국어 /ㄱ, ㄴ, ㄷ/ 순과 /ㅈ, ㅊ, ㅌ, ㅍ, ㅍ, ㅍ, ㅍ, ㅍ, ㅍ/의 순에 따라 되어 있다. 주로 표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뉘어 표의 방식으로 배열해 분석하기로 한다. 표의 제시 순서와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성과 중성 구조는 ㄷ+ㅈ에 해당하는 자례(예시)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砥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觥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低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詆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邸	더	더	덕/저	덕	端開四全淸	tiɛi
覲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的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淸	tiek
鐫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淸	tiek
逖	덕	덕	덕/적	덕	透開四次淸	t ^h iek
迪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본 연구의 표들은 <표 2>와 같이 표 테두리의 설정은 한자 자례(漢字 字例) → 중세음(中世音) → 『전운옥편』 한자의 주음(注音) → 『자전석요』 한자의 원음(原音)과 속음(俗音) → 『신자전』의 한자의 주음(注音) → 한어중고음(漢語中古音) → 추정음(推定音)의 순으로 구성한다¹⁶⁾. 본 연구에서 표들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ㄷ+ㅏ, ㄷ+ㅓ, ㄷ+ㅜ, ㄷ+ㅠ, ㄷ+ㅣ, ㄷ+ㅞ
- 2) ㅌ+ㅏ, ㅌ+ㅓ, ㅌ+ㅜ, ㅌ+ㅠ, ㅌ+ㅣ, ㅌ+ㅞ
- 3) ㅈ+ㅏ, ㅈ+ㅓ, ㅈ+ㅜ, ㅈ+ㅠ, ㅈ+ㅣ, ㅈ+ㅞ
- 4) ㅊ+ㅏ, ㅊ+ㅓ, ㅊ+ㅜ, ㅊ+ㅠ, ㅊ+ㅣ, ㅊ+ㅞ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표의 자음 순서는 /ㄷ, ㅌ, ㅈ, ㅊ/에 따라 배열하며 같은 자음 계열에서 /ㅏ, ㅓ, ㅜ, ㅠ, ㅣ, ㅞ/에 따라 배열할 것이다.

근대 시기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과정을 고찰하면 해당 시기에 간행된 한자음 문헌에서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같이 비교·고찰하여 근대 시기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중세 후기 및 근대 시기에 간행된 『천자문』의 이본들,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역어유해』 등 한학서(漢學書)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과 조선 왕실 여성들의 언간(諺簡)에서 나타난 한자음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근대 시기 한국어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 및 실현율 추이를 밝히 고자 한다.

16) <표 1> 맨 위 테두리에 제시한 각 사항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字例’는 『전운옥편』에 수록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이다. ‘中世音’은 권인한(2009)과 남광우(1995)에 수록된 중세한국어 시기 문헌의 한자의 음이다. 뒤에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은 각각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속음(俗音)이나 정음(正音), 『자전석요』의 원음(原音)과 당시의 현실음, 『신자전』의 규범음이다.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같고 『신자전』의 규범음도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같다고 확인하였다. ‘漢語中古音’은 『절운(切韻)』(601년)과 『광운(廣韻)』(751년)에 반영된 중국어이며 주로 수당(隋唐) 시기의 음이다. <표 1>의 한어중고음은 자모(字母)-개합(開合)-등(等)-청탁(淸濁) 4항을 포함한다. ‘擬音’은 국제음표로 중고시기의 중국 한자 발음을 재구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구개음화를 고찰하면 과도교정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과도교정은 많은 음운 현상 중 대부분은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과도교정에 관한 연구에서 쟁점 중 하나가 과도교정이 음운 변화의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구개음화가 왕성할 때 과도교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논의도 있었다(배영환 2017). 그런데 한자음의 보수적인 성격을 갖췄음을 감안하여 근대 시기의 한자 자전에 실린 한자음도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기초적 논의

1. 자전류 문헌의 자료적 특성

1.1. 자전의 개념

자전(字典)은 보통 한자를 모아 사전의 표제자(標題字)로 선정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 놓고 각 한자의 음과 의미 등의 정보를 기술한 책이라 한다(박형익 2012:11). ‘자전’이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중국, 한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 사전, 한자 및 한자어 사전, 한자어 사전을 ‘자림(字林), 자원(字源), 자통(字通), 자관(字貫), 자휘(字彙)’라고도 하며 ‘사서(辭書), 사림(辭林), 자서(字書), 자석(字釋), 자류(字類), 자해(字海), 석사서(釋辭書), 어전(語典), 유서(類書), 사원(辭源), 사해(辭海)’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자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의 편찬과 체제 등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규범적인 자전 문헌은 ‘자전(字典), 옥편(玉篇), 사전(辭典)¹⁷⁾’ 이 세 가지 용어뿐이다. 원래 ‘옥편’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고유 명사인 책명으로만 사용되었다가 한국은 이 책명에서 따온 ‘옥편’이라는 용어를 자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해 왔다.

한국의 자전은 한자만을 표제자(標題字)로 등재하다가 점차 한자를 상위 표제항(標題項)으로 선정하고 한자와 하위 표제항으로 선정한 한자어와 관용 표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수별로 또 획수별로 표제자(標題字)를 배열한 자전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자전은 표제자(標題字)인 한자를 부수와 획수별로 배열한 다음, 각 표제자(標題字)의 수록 번호, 형태, 사용 빈도, 발음, 정의, 용례, 서체 등에 관한 여러 정보와 표제자(標題字)로 시작하거나 표제자(標題字)로 끝

17) ‘사전(辭典)’은 현대 시기에 많이 편찬과 간행된 책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중세 후기 및 근대·개화기에 출현된 ‘옥편(玉篇)’류와 ‘자전(字典)’류 문헌만을 살펴볼 것이다.

나는 한자어와 관용 표현 등에 관한 정의와 용례 등의 정보를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한자 및 한자어 사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 자전은 근대한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편찬되고 간행되었으며 『훈몽자회』와 『전운옥편』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자서를 계승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의 유형을 창조하였다. 한자음 자전은 다른 유형의 자전보다 훨씬 일찍 편찬되었으며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이는 한국 문화가 피어난 시기부터 한국은 중국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한자와 한문을 배워 한민족 언어의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의 선조들은 자연스레 한자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납득하였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한문과 한시 등이 자유롭게 지어졌을 것이다. 특히 질이 높은 한시 작품을 만들려면 한자음 또는 한자의 운을 잘 알아야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의 문인들은 자연스레 운서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자에 대해 정밀한 설명을 해 주는 옥편과 자전도 이어 편찬하였다. 흔히 옥편은 운서의 자매편(姊妹篇)으로 간주하고 자전은 또 옥편의 체제를 물려받았다고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개화기 이전에 옥편과 자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옥편류 문헌(박형익 2012:40-42)

- 1) 『신간 배자 예부 옥편(新刊排字禮部玉篇)』 편자 미상, 1464년.
- 2) 『운회옥편(韻會玉篇)』 최세진, 1537년.
- 3) 『삼운 성휘보 옥편(三韻聲彙補玉篇)』 홍계희, 1751년.
- 4) 『전운옥편(全韻玉篇)』 편자 미상, 1796년?
- 5) 『국한문 신옥편(國漢文新玉篇)』 정익로, 1908년.
- 6) 『정정 증보 신옥편(訂正增補新玉篇)』 예수교서회, 1911년.
- 7) 『한일선 신옥편(漢日鮮新玉篇)』 정기성, 1921년.
- 8) 『일선문 신옥편(日鮮文新玉篇)』 심의갑, 1921년.
- 9) 『일선 신옥편(日鮮新玉篇)』 강의영, 1935년.
- 10) 『한일선 신옥편(漢日鮮新玉篇)』 노익형, 1935년.
- 11) 『국한문 실용 신옥편(國漢文實用新玉篇)』 문세영, 1949년.
- 12) 『국한 최신 홍자 옥편』 홍자출판사 편집부, 1958년.
- 13) 『큰사이스 상용 옥편』 동아출판사 사서부, 1966년.

- 14) 『국한 최신 홍자 옥편』 홍자출판사 편집부, 1973년.
- 15) 『민중서림 활용 옥편』 민중서림 편집국, 1983년.
- 16) 『동아 백년 옥편』 두산 동아 편집부, 2008년.
- 17) 『금성관 실용 옥편』 금성출판사, 2008년.
- 18) 『한중일영 공용 한자 옥편 사전』 임광애, 2008년.

한자 자전류 문헌(박형익 2012:43)

- 1) 『자전 석요(字典釋要)』 지석영, 1909년.
- 2) 『신자전(新字典)』 최남선, 1915년.
- 3) 『한일선 대자전(漢日鮮大字典)』 이종성, 1918년.
- 4) 『보통학교 한자 자전』 심의린, 1925년.
- 5) 『일선 대자전』 송완식, 1935년.
- 6) 『모범 대자전』 문세영, 1944년.
- 7) 『학생 한한 자전』 김경탁, 1955년.
- 8) 『새 자전』 김민수, 1961년.
- 9) 『한한일영 신자전』 이가원·김우열 감수, 1973년.
...중략...
- 10) 『한한 대자전』 민중서림 편집국, 2008년.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의 옥편과 자전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전운옥편』, 『국한문 신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을 꼽을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한문 신옥편』 간행 후 내용 수정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한편, 자전이나 옥편을 말하자면 이와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운서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운서는 원래 중국 한자 발음 사전에 포함되는 한자 운(韻) 사전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가 운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서 한자의 자형이나 자획(字劃)에 따라 표제자(標題字)인 한자를 운서보다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옥편을 만들어 운서를 보완하는 책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운서에 수록되어 있는 운자(韻字)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서에 수록된 한자들을 형태별로 다시 배열하여 옥편을 만들었다. 한국

의 대표적인 운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운서(정경일 2002:389)

1) 고려 말 시기: 『삼운통고(三韻通考)』(刊年未詳)¹⁸⁾

2) 조선 세종-중종 시기:

『동국정운(東國正韻)』(1447),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사성통고(四聲通考)』(1455), 『사성통해(四聲通解)』(1517)

3) 조선 숙종-정조:

『삼운통고보유(三韻通考補遺)』(1702), 『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1702-1720),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1747), 『삼운성휘(三韻聲彙)』(1751), 『규장전운(奎章全韻)』(1796)

조선 초기는 한국에서 운서가 본격적으로 편찬된 시기이다. 특히 조선 세종의 시기에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이후 15세기부터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성운학(聲韻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한자음 및 한국 한자음을 보여주는 운서들이 만들어졌다. 위에 제시한 『삼운통고』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와 편찬자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는 매우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이 이 운서의 유래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운서는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사성통고』, 『사성통해』 등이 있다. 『동국정운』은 뜻은 표기하지 않고 한자음만을 표기하고 있다.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고』, 『사성통해』는 한국 한자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 한자음을 표기한 운서이다. 『삼운통고보유』, 『증보삼운통고』, 『화동정음통석운고』, 『삼운성휘』, 『규장전운』 등은 임진왜란 이후 소위 영·정조 때의 실학 시대에 이르러 한국 한자음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운서가 활발히 나타난 시기의 저서이다.

18) 『삼운통고』에 자수를 더 증보하고 상세한 자해를 한 것이 1702년(숙종 28) 박두세(朴斗世)가 간행한 『삼운보유(三韻補遺)』가 있기 때문에 『삼운통고』는 1702년 이전에 편찬되었음을 추정한다.

1.2. 자전류 문헌의 간행 양상 및 특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전이라 할 수 있다. 정조 때에 『규장전운』을 편찬한 뒤 자매편(姊妹篇)으로 『전운옥편』을 만들어 한국 옥편의 맥을 이어 간다. 근대적 옥편은 지식영(池錫永)이 1909년에 간행한 『자전석요』와 1919년 『강희자전』을 바탕으로 조선광문회에서 간행한 『신자전』이 있다. 이 세 권의 자전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통용되는 옥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한자음은 모두 『전운옥편』의 음을 계승하여 주음(注音)되었다.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상세한 편찬 시기 및 배경, 체제 및 범례, 간행된 판본 및 이본(異本)을 살펴보겠다.

『전운옥편』은 조선 후기 정조(약 1796년) 때에 『규장전운』의 자매편(姊妹篇)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편(玉篇)으로 10,977¹⁹⁾자의 한자를 214부수에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옥편의 형식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강희자전』을 따르고 있다. 한자를 표제어로 제시한 뒤에 한글로 음을 표기하고 한문(漢文)으로 주석(註釋)을 달았고, 마지막에 운모(韻母)를 표기하였다. 한자음은 『규장전운』의 음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636²⁰⁾자의 한자에 대해서는 속음(俗音) 또는 정음(正音)²¹⁾을 기록하였다.

『전운옥편』은 『규장전운』을 모체(母體)로 하여 편찬된 획일자전(劃引字典)이며, 음(音)과 주해(注解)를 병기(併記)하고 있다. 한자음은 한글로 세 종류가 기록되어 있고 『규장전운』보다도 훨씬 상세한 주해가 쓰여 있다. 세 종류의 한자음은 『규장전운』에서 보인 규범음과 한국의 속음(俗音), 그리고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음(音)을 보인 것이다. 편찬 연도는 1796년 이후로 판정하고 편자가 미상이다.

19) 10,977자의 자례는 강신항(1993)을 기준으로 통계하였다.

20)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음 중 636자의 정·속음은 강신항(1993)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1) 이길경 외(2022:5)에서 『전운옥편』의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라 『전운옥편』의 정음은 'X正Y'의 형태로 표기되고 속음은 'X俗Y'의 형태로 표기한다. 여기의 X는 『규장전운』의 규범음을 승계하고 正Y의 Y는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음(正音)을 표기하고 있고 俗Y의 Y는 당시의 현실음(現實音)을 가리킨다. 자전류 문헌의 제시한 규범음(規範音)과 정음(正音)은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 운서(韻書)에서 반영한 한자음의 등호(等呼)·개합(開合)·반절(反切) 등 음운 체계에 부합하는 한자음을 가리킨다.

漢字音例

榘 착(규장음)²²⁾ 俗 탁(속음)

植 차(규장음) 正 사(華東正音通釋韻考의 음)

注解例

규장전운: 泰韻의 大대 小之對過也 太箇

箇韻의 大다 巨也떠

전운옥편: 大대 小之對過也長也태 同太泰다巨也極也甚也箇

요컨대, 『전운옥편』은 『규장전운』의 내용을 종합하고 주해를 더욱 자세히 한 것이다. 그리고 규범음 하나만을 기록하였던 『규장전운』보다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 한자음도 함께 기록한 것이 옥편(玉篇)이다. 따라서 중국 본토 자음(즉 華音²³⁾)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전운옥편』은 상·하 2권으로 나누어 기록되고 있다. 체계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전운옥편총목(全韻玉篇總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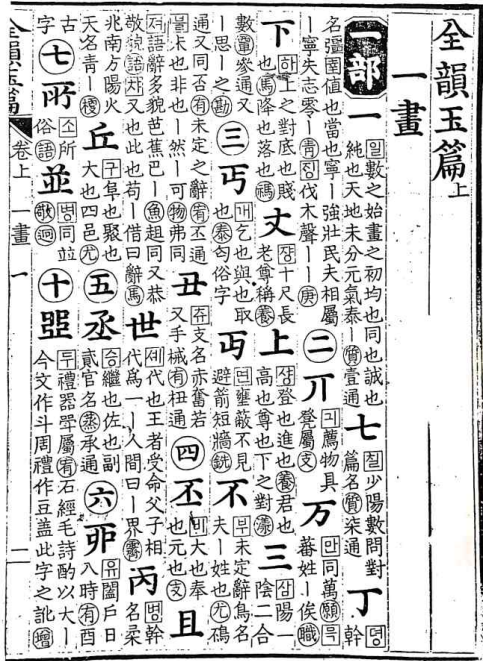
본문(本文)

구체적인 약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22) 『규장전운』 例字의 음:

例字	娥	融	春	懂
通釋음	승 俗 용	용 俗 룡	송 俗 용	충 俗 동
全韻음	승	용	송	충
例字	樞	簞	港	撞
通釋음	중 俗 흥	송 俗 용	강 俗 항	장 俗 당
全韻음	중	송	강	장

23) 화음(華音)이란 한자의 중국 본토 자음, 즉 중국의 정통적인 규범음을 말한다. 한국 운서와 자전류 문헌에 사용하고 있는 화음은 역시 중국 운서 『광운(廣韻)』의 음운 계통을 따라 주음하는 것이다. 『화동정음 통석운고』, 『삼운성회』, 『규장전운』 따위가 있다. 이에 반해 동음(東音)이 있는데 동음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운서 계통 및 음운 체계를 따른 한자를 주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화음과 동음은 모두 규범적인 음이고 정칙음(正則音)으로도 본다. 왜냐하면 한자음과 관한 연구에서 ‘정음(正音)’, ‘속음(俗音)’, ‘시음(時音)’이라는 개념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인식상 아주 쉽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규범음은 『규장전운』의 동음을 취하여 『전운옥편』 한자음의 규범음으로 본다.



<그림 1> <전운옥편 상 1a>



<그림 2> <전운옥편 상 7a>

위의 <그림 1>을 보면 『전운옥편』에서 수록된 한자 ‘일(一)’의 표기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一部] 一 一 數之始畫之初均也同也誠也純也天地未分元氣泰一質壹通

[一部] 는 부수이고 一은 한자의 음이다. ‘數之始畫之初均也同也誠也純也天地未分元氣泰一’은 ‘一’의 뜻풀이이고 ‘質’은 이 글자가 속한 운목이다. ‘壹通’은 ‘一’이 ‘壹’과 서로 통하는 한자라는 의미이다.

<그림 2>를 보면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예) 儻(儻)俗(儻)等(儻)輩(儻)類(儻)佳(儻)

위의 내용을 보면 한자 ‘儻’에서 ‘지’는 『규장전운』에 따라 표기한 규범음이다. ‘제’는 한국의 속음이고 ‘等輩 | 類’는 ‘儻’의 뜻풀이다. ‘佳’는 이 글자가 속한 운목(韻目)이다.

예) 儻 𪛗 正 𪛗 木 偶 傀 𪛗 又 壞 敗 貌 賄

위의 내용을 보면 한자 ‘儻’의 주음(注音) ‘뤼’는 『규장전운』에 따라 표기한 규범음이다. ‘되’는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주음(注音)과 동일하여 정음이라고 한다. ‘木偶傀 𪛗 又 壞敗貌’는 ‘儻’의 뜻풀이고 ‘賄’는 이 글자가 속한 운목(韻目)이다.



<그림 3> <전운옥편 상 5b>

위의 <그림 3>을 보면 다음 내용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예) 儻 𪛗 正 𪛗 俗 𪛗 𪛗 侵 迫 行 𪛗 𪛗 屢 邪 幅 職 逼 同

위의 내용을 보면 한자 ‘儻’의 주음(注音) ‘벽’은 『규장전운』에 따라 표기한 규범음이다. ‘픽’은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음과 동일한 정음이고 ‘핍’은 한국의 속음이다. ‘侵迫行𪛗 屢邪幅’은 ‘儻’의 뜻풀이이고 ‘職’은 이 글자가 속한 운목(韻目)이다. ‘逼同’은 ‘儻’이 ‘逼’과 서로 통하는 한자라는 의미이다.

위의 분석한 내용에 따라 『전운옥편』에 수록된 자례의 체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 1) 해당 자음을 제시하고 정음을 밝힌 경우
崇 종正송 床 장正상 虬 망正방
- 2) 해당 자음을 제시하고 속음을 밝힌 경우
宅 칙俗택 巾 근俗건 屹 을俗홀
- 3) 해당 자음을 제시하고 정음, 속음을 모두 밝힌 경우
偏 벽正픽俗핍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된 음은 1)에 해당하는 것이 220여 자, 2)에 해당하는 것은 390여 자이며 3)의 방식은 위에 제시한 자례가 유일하다.

『전운옥편』은 이덕무(李德懋, 1741년~1793년)가 1796년에 편찬한 운서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의 보편(補篇)이므로 초간본과 중간본 그리고 이본들이 그 후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박형익(2016)에 따라 『전운옥편』에 관한 판본 및 이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1796.08.00-1800.00.00 사이. 『전운옥편(全韻玉篇)』. <2권 2책. 정조(재위 1776~1800) 때 간행된 원간본 간행 시기 미상. 편찬자 미상, 목판본. 소장처 미상>
- 2) 1818.00.00. 『전운옥편』.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411.32 전77)>
- 3) 1819.00.00. 『전운옥편』, <을묘(乙卯) 신간 춘방장판(春坊藏板). 규장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 농학도서관, 연세대학술정보원, 전북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소장> <1879년에 간행된 을묘 신간 춘방장판도 있는데, 을묘년을 1879년이 아닌 1819년으로 본 것이다.>
- 4) 1850.00.00. 『전운옥편』. <경술(庚戌) 중추(仲秋) 유동(澗) 중간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규장각, 연세대 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 소장> <경기대 금화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경상대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단국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고문헌 자료실 한적본(413.1 J46602)), 순천대 도서관, 영

남대 도서관, 충북대 중앙도서관 등에는 경술년을 1850년이 아닌 1790년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 5) 1879.00.00. 『전운옥편』, <을묘(乙卯) 신간 춘방장판(春坊藏板), ‘춘방(春坊)’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시강원(侍講院)의 별칭이며, 춘방본은 세자의 교육을 위하여 간행한 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 경희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도서관 소장>
- 6) 1889.00.00. 『전운옥편』, <을축(乙丑) 신간, 20.1×13.1cm. 고려대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소장>
- 7) 1890.10.00. 『전운옥편』, 상해(上海): 문신서국 석인(文新書局石印), <1책. 광서(光緒) 경인(庚寅) 10월 간행본, 고종 27년, 석인본(石印本), 19.5×13.4cm, 경북대중앙도서관, 규장각, 서울대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 8) 1890.00.00. 『전운옥편』, 상해: 적산서국 석인(積山書局石印), <2권2책, 19.3×13.0cm, 광서 16년.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 9) 1898.00.00. 『전운옥편』. <광무 2년. 무술(戊戌) 중추 간행본. 대구 신간본. 경북대 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박형익 교수 등 소장>
<경희대 중앙도서관에는 1800년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 10) 1898.00.00. 『교정전운옥편』. <2권 2책 1면 11행. 무술년 겨울 간행 원간본. 신촌자(慎村子) 황필수(黃泌秀) 교정본. 총목+본문+후기.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소장> <고려대 도서관에는 1838년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 11) 1899.00.00. 『전운옥편』. <을해(己亥) 국월(菊月)>
- 12) 1903.00.00. 『전운옥편』, 상해(上海): 문래국(文來局). <2권 1책. 광서 계묘 추맹(光緒癸卯秋孟). 19.5×13.4cm. 고려대 도서관, 박형익 교수 등 소장>
- 13) 1904.00.00. 『전운옥편』, <갑진(甲辰) 중추(仲秋) 완서(完西) 신간본. 경상대학교 도서관 소장>
- 14) 1905.00.00. 『전운옥편』. <을사(乙巳) 신간본. 완산 장판본.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 15) 1906.00.00. 『전운옥편』. <을묘(乙卯) 춘방 장판본을 병오(丙午)년에 간행한 완서(完西) 신간본. 상하 2권 2책. 상권 총목(總目) 5장+본문 70장. 하권 본문 77장.

박형익 교수 소장>

- 16) 1908.00.00. 『전운옥편』, 황성: 회동서관(滙東書館). <1책. 76장. 융희 2년. 19.5×13.4cm. 서울대 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등 소장>
- 17) 1909.02.00. 『전운옥편』, 상해:해문신서국(海文新書局), <융희 3년. 상하 2권 1책. 70+77쪽. 석인본. 19.5×13.4cm. 1면 10행. 박형익 교수 소장>
- 18) 1910.00.00. 『전운옥편』. <2권 2책. 경술(庚戌) 중추(仲秋) 유동(由洞) 중간(重刊). 목판본. 1면 10행, 경기대 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 19) 1911.08.22. 『전운옥편』, 전주: 문명서관(文明書館). <초판. 을사 신간 완산 장판본. 편집 겸 발행자는 양완득(梁完德)> <1916-11-25(재판)>
- 20) 1911.08.22. 『전운옥편』, 전주: 서계서포(西溪書舖). <편집 겸 발행자는 탁종길(卓鍾信).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권의 원문을 볼 수 있다. 전북대 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 21) 1913.08.20. 『교정 전운옥편(校訂全韻玉篇)』, 경성: 신구서림(新舊書林). <2책. 1면 11행. 편집 겸 발행자는 지송욱(池松旭). 후기는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박형익 교수 하권 소장>
- 22) 1913.09.26. 『전운옥편』, 대구: 재전당서포(在田堂書舖). <무술 중추 대구 신간본을 다시 간행한 것이다. 편집 겸 발행자는 김기홍(金琪鴻).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 23) 1913.10.25. 『교정 옥편(校訂玉篇)』, 경성: 지물서책포(紙物書冊舖). <2책. 1면 12. 편집 겸 발행자는 이중성(李鍾星). 후기는 없다. 박형익 교수 소장>
- 24) 1916.06.30. 『전운옥편』, 경성: 한남서림(翰南書林). <편집 겸 발행자는 백두용(白斗鏞). 박형익 교수 소장>
- 25) 1916.11.25. 『전운옥편』, 전주: 문명서관(文明書館) <2책. 19의 재판 편집 겸 발행자는 양완득(梁完得). 박형익 교수 소장>
- 26) 1917.00.00. 『전운옥편』, 경성: 한남서림(翰南書林). <2책. 편집 겸 발행자는 백두(白斗鏞).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 27) 1918.02.20. 『교정옥편(校訂玉篇)』, 경성: 회동서관(滙東書館), <2책 · 1면 12행, 편집 겸 발행자는 고유상(高裕相). 후기는 없다. 박형익 교수 소장>

기타: 전라남도 영암에서 간행된 이본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인본으로는 『규장전운·전운옥편』(1991, 서광학술자료사), 『규장전운·전운옥편』(1993/1995/2000, 박이정), 『전운옥편·규장전운』(1998, 학민문화사), 『전운옥편』(1999/2000, 국립중앙도서관), 『전운옥편』(2003, 세종대왕기념업회) 등이 있다.

위의 4가지의 판본은 2권(卷) 2책(冊)으로 간행되고 아쉬운 것은 모두 목판본이고 초간본이 아니다. 왕평·형신보(2012:6)는 『전운옥편』과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의 한자 주음(注音)에 대한 대조 비교하였다. 『전운옥편』에서는 일부 한자음과 당시의 속음(俗音)을 수록하지 않았으며, 추후 어떤 학자가 원래 『전운옥편』 판본에서 두주(頭註)의 방식으로 빠진 한자음과 속음(俗音)을 추가하여 『교정전운옥편』과 『교정옥편』이라는 이름의 유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⁴⁾.

지금까지 한국 국문으로 뜻풀이된 최초의 자전으로 지식영의 『자전석요』를 지적해 왔다(최현배 1961, 김근수 1975, 박상균 1989 등)²⁵⁾. 『자전석요』는 국어학자 지식영이 자음과 새김을 모두 한글로 표시하여 편찬한 자전으로 보이며 상·하 2권으로 1906년에 저술을 완성한 뒤에 1909년 7월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발행되었다.

종래의 한국 한자 사전으로는 『운회옥편(韻會玉篇)』·『삼운성회옥편(三韻聲彙玉篇)』·『규장전운옥편(奎章全韻玉篇)』 등이 널리 유포된 바 있으나, 이들은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운서에 종속된 색인과 같은 것으로 독자적인 자전의 구실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전석요』는 그러한 운서의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된 자서로서 편찬되었으며, 글자마다 음과 새김을 한글로 표시한 점에 있어서 종래의 옥편과는 달리 크게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전석요』의 상세한 편찬 시기 및 배경, 체제 및 범례, 간행된 판본 및 이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왕평·형신보(2012:6)에서 판본에 대한 논의의 원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除此之外，還有不能推定確切年代和刊行時間的其他版本。值得注意的是，奎章閣還收藏了內容與《全韻玉篇》幾乎相同，書名卻不同的兩種版本，其卷首題名分別是“校訂全韻玉篇”和“校訂玉篇”。如果我們把《全韻玉篇》和《華東正音通釋韻考》作比較，會發現《全韻玉篇》有的地方少收錄了一些漢字音和當時的一部分俗字音，後來有校訂者在欄上追補，這大概就是“校訂全韻玉篇”和“校訂玉篇”等名稱的由來。” 왕평·형신보(2012:6)를 참조.

25) 이준환(2012:116)에서는 “한글로 뜻풀이가 된 최초의 자전은 田日周(2002), 박형익(2004), 河岡震(2006)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908년에 나온 정익로의 『국한문 신옥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글로 뜻이 표시된 최초의 자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던 것은 『자전석요』는 1909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스무 차례 이상 발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데 비해서 『국한문 신옥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자전석요』의 원서문(原序文)에서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보면, 한국의 훈몽자서(訓蒙字書)로는 『친자문』·『유합』·『훈몽자회』 등이 있으나 새김이 딱딱하지 못하고 성조의 고저(高低) 혼동이 심하며, 또한 자음(字音)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중국의 『강희자전』에서 자류(字類)와 새김의 본을 받아 한국어의 음에 맞는 자서를 편찬하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자전석요』의 체제는 권두에 원서문(原序文)·범례(範例)·검자(檢字)·목록(目錄)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문 순으로 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채자(採字)·취음(取音)·석의(釋義) 등의 기본방향과 정음(正音)·속음(俗音)·속자(俗字)의 기준을 밝혀 독자의 도움이 되게 한다. 검자는 모든 자류를 획수에 따라 분류하여 자마다 부수(部首)를 밝혀 색인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목록은 부수별로 상권이 1획에서 4획까지, 하권이 5획에서 17획까지로 되어 있으며, 권말에 총 수록자 16,295자를 밝히고 있다. 하권의 말미(末尾)에는 중요한 구상명사(具象名詞)에 대하여 그림으로 보였는데, 총 자수는 588자에 이른다. 이것은 본문의 새김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 범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례의 취사는 『강희자전』을 기준으로 하나 새김은 『규장전운』을 근거로 하였다.
- 2)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의 판별도 『규장전운』에 따르며 ‘筭’와 같은 자는 관습에 따라 속음 ‘차’를 버리고 ‘잡’을 따른다.
- 3) 두 자가 서로 음의(音義)가 같은 경우 어떤 자와 같다는 것을 밝히고, 한 자에 여러 음의가 있을 경우 어떤 자와 통한다는 것을 밝혔다.
- 4) 속자는 원주(原註) 외에 속간의 새김을 말미에 첨가한다. 그리고 속자에는 한국 속자·중국 속자·일본 속자를 망라하고 있다.
- 5) 한자가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에 두루 쓰이고 음의가 같은 경우 먼저 평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상성과 거성을 보였다.
- 6) 한글의 표음은 『소학언해 小學諺解』의 범례에 따르되 방점(傍點)은 무인본(戊寅本)을 기준으로 하여 평성은 무점(無點), 상성 및 거성은 오른쪽 위에 1점을 찍어 표시하였다²⁶⁾.

26) 방점(傍點)은 중세한국어 시기 언어의 성조를 일컫는다. 언어에 나타난 이 방점법(傍點法)에 대해 강신항(1987:128)에서 ‘凡字必合而成音,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라는 방

건을 갖추었으며, 자음(字音)과 새김을 모두 한글로 제시하여 정음과 속음의 구별을 분명히 한 점 등이라 할 수 있다.

『자전석요』는 1909년 7월 회동서관(匯東書館)에서 발행된 이래 1925년 제16판이 간행되었다. 8.15 광복 후에도 1945년 영창서관(永昌書館)에서 재판이 간행되었고, 197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다시 영인하여 간행되었다. 이처럼 『자전석요』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애용된 권위 있는 한자 사전이었다. 그러면 각 시기에 간행된 판본 및 차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²⁷⁾.

- 1) 1901.07.30. 『자전석요(字典釋要)』, 지식영(池錫永), 황성: 회동서관(匯東書館), <초판. 율회 3년. 동국대 도서관, 하강진 교수 소장>
- 2) 1910.03.10.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재판.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 3) 1910.10.01.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3판><고려대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박형익 교수 소장>
- 4) 1911.06.13.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4판. 고려대 도서관, 건국대 도서관 소장>
- 5) 1911.11.25.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5판. 연세대 도서관 소장>
- 6) 1912.03.29.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6판. 서울대 도서관 소장> <고려대 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은 발행 연도만 표시되어 있어 7)일지도 모르므로 발행 월일의 확인이 필요하다.>
- 7) 1912.10.07.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7판. 하강진(2010:691)에서는 이 책을 증보 초판으로 제시하였다.>
- 8) 1913.05.31. 『증보 자전석요(增補 字典釋要)』, 지식영(池錫永), 경성: 회동서관(匯東書館). <8판. 증보 초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 9) 1914.05.08. 『증보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9판>
- 10) 1915.03.12. 『증보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0판>
- 11) 1916.02.18. 『증보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1판.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
- 12) 1917.05.01. 『증보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2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7) 박형익(2016:33-37)을 참조.

- 13) 1917.05.21. 『증보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3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4) 1918.05.29. 『증보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4판. 국회도서관 소장>
- 15) 1920.10.10. 『증정 부도 자전석요(增正 附圖 字典釋要)』, 지식영(池錫永), 경성: 회동서관(匯東書館), <15판. 증정 부도 초판. 경북대 도서관 소장>
- 16) 1925.06.2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6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세종대 도서관 소장>
- 17) 1928.06.1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회동서관. <17판. 서울대 중앙도서관, 세종대 도서관 소장>
- 18) 1929.00.0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영창서관. <고려대 도서관 소장. 하강진(2010)의 표에는 이 책이 없다.>
- 19) 1936.03.3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경성: 영창서관. <하강진(2010)에서는 18판으로 표시했다.>
- 20) 1943.04.2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성주(池盛周), 경성: 영창서관. <경희대 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 부산대 제1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
- 21) 1949.08.2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서울: 영창서관. <재판. 강남대 도서관,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
- 22) 1950.02.28.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지식영, 서울: 영창서관. <3판. 동국대 중앙도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전북대 중앙도서관 소장>
- 23) 1952.00.00. 『증정 부도 자전석요』, 지식영, 지식영, 서울: 영창서관. <?판. 16+121+20장. 고려대 도서관 소장>

기타: 아세아문화사에서 1975년, 1976년, 1977년에 영인본을 펴냈다.

박형익(2016)에 따라 위에 열거된 목록에서는 내용의 증보나 부도의 첨가는 고려하지 않고 『자전석요』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차례대로 열거하면서 판수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의 초판본은 1909년(융희 3년) 7월 15일에 석인본으로 인쇄되어 그해 7월 30일에 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자전』의 상세한 편찬 시기 및 배경, 체제 및 범례, 간행된 판본 및 이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자전』은 조선광문회가 종래의 옥편을 신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1915년에 신문관(新文館)에서 출판한 대역 자전이다. 책은 4권 1책 총 246장(492면)으로 구성하였고 책에서 표제자(標題字)로 모두 13,084여 자를 수록하였다. 유근(柳瑾, 1861~1921년)과 최남선(崔南善, 1890~1957년)의 서에 따르면, 유근의 주관하에 이인승(李寅承)·남기원(南基元)의 도움으로 편찬되었으며, 한자의 새김은 주시경(周時經)과 김두봉(金斗奉)이고, 인쇄에서 자획의 교감 등은 신문관 최성우(崔誠愚)의 힘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전 역시 청나라 때의 『강희자전』을 대본으로 하고 내외고금(內外古今)의 자전류를 참고하여 시대에 맞도록 자례를 빼고 더하고 바로 잡아서 된 것이며, 대체로 『전운옥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그 서와 전례(典例)에 밝힌 대로 한자의 자획을 바로 잡고, 진보적인 사전의 형식에 따라 종래에 없던 주석의 용례를 경서(經書)에서 인용하였으며, 특수한 것은 삽화를 넣어서 주석을 보충하고, 끝에 조선 속자(俗字)·신자(新字)를 추가한 점 등이다. 특히 인용은 주석을 실증하는 성격을 지녀, 한자의 주석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새로 하는 작업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 자전은 지식영(池錫永)의 『자전석요』(1909)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강희자전』을 근거로 『규장전운』의 자음을 따르고, 속음(俗音)을 병기(併記)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의 속자를 이미 수록하였으며, 부수(部首) 배열에 딸린 검자(檢字)의 내용이 서로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뒤 일제강점기의 여러 옥편이 그것을 추종하였지만, 이 『신자전』은 그 위에 『전운옥편』의 결함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면서 주석에 공을 들여 가장 충실하고 현대적인 사전이 되었다.

『신자전』은 유근이 쓴 신자전 서(新字典序) 1장, 최남선이 쓴 신자전 서(新字典敍) 3장, 신자전 예(新字典例) 1장, 신자전 부수 목록(新字典部首目錄) 1장, 검자(檢字) 3장, 본문 卷一 52장, 卷二 67장, 卷三 68장, 卷四 59장 모두 255장의 분량으로 이루어졌다. 표제와 내제는 모두 ‘신자전’이다. 이 사전의 크기는 가로 15.3센티미터이고, 세로 22.8센티미터이다.

부수 한자의 바로 밑에는 2개의 숫자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부수 한자 바로 아래의 오른쪽에 붙은 숫자는 권수를 나타내고, 왼쪽에 붙은 숫자는 장수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新字典部首目錄(신자전부수목록)’이라는 제목 밑에 있다.

여기에서는 『전운옥편』과 마찬가지로 17획으로 분류하여 214부수로 나누었다. 각 획에 포함된 부수자(部首字)도 동일하고 그것의 배열 방법도 같다. 다만 조선 속자부(俗字部),

일본 속자부(俗字部), 신자 신의부(新義部) 3부를 마지막에 첨가하였다. ‘검자(檢字)’에서는 각 획에 속하는 부수 바로 밑에 ‘조선, 일본, 신자’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전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인데, 속자나 신자를 부수 목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검자의 목록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이 글자들의 배열 방법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본문은 4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246장(492면)이다. 본문은 가로 3단으로 나누어 세로로 더 세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부수자(部首字)의 미시 정보를 기술한 다음 칸을 나누어 획수를 표시한 다음 그 획수에 속하는 표제자(標題字)를 나열하여 미시 정보를 기술하였다.

『신자전』에 수록된 표제자(標題字) 수는 모두 13,321개인데, ‘조선 속자부(朝鮮 俗字部)’에서는 획수별로 2획에서부터 24획까지 분류하여 107개의 표제자(標題字)를 배열하였다. ‘잡[답] 水田는見公私文簿’처럼 발음은 한글로, 뜻풀이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표기하였다.

‘일본 속자부(日本 俗字部)’에서는 25획을 제외하고 4획부터 26획에 포함되는 98개의 표제자(標題字)들을 분류하고 배열하였다. ‘辻[ツジ]十字街, 네거리’와 같이 표제자(標題字)의 발음 정보는 일본 문자로 기술하였으며, 정의 정보는 한자와 한글로 기술하였다. ‘신자 신의부(新字 新義部)’에서는 5획~16획, 그리고 18획과 27획에 속하는 표제자(標題字) 59개를 선정하였다.

『신자전』은 『강희사전(康熙字典)』을 저본(底本)으로 삼았는데, 표제자(標題字)의 뜻풀이를 기술한 다음에 그 표제자(標題字)가 쓰인 출처인 『중용(中庸)』, 『서전(書傳)』, 『맹자(孟子)』 등을 제시하고 예를 인용하였다. 예를 들면, 표제자(標題字) ‘一 [일]’의 두 번째 뜻풀이와 용례를 ‘誠也정성[中庸]所以行之者-’로 기술하였다. 즉 뜻은 ‘誠也정성’이고, 용례의 출처는 ‘[中庸]’이고, 용례는 ‘所以行之者-’이다.

그리고 『신자전』에서는 표제자(標題字) ‘一’의 경우 표제자(標題字)의 의미 정보를 기술한 다음 끝부분에 표제자(標題字)가 포함된 한자어를 나열하고 그 뜻을 한국어로 대역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표제자(標題字) ‘一’에서 ‘第一 첫째’와 ‘一一 낫’이 그 예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증보 척독 완편』(1913)의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신자전』에서 다른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범 선화 사전』(정경철 외, 1928)에서는 본격적으로 표제자(標題字)로 시작하는 한자어를 부표제항(副標題項)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

- 2) 1918.03.1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재판. 국립국어원, 박형익 교수 소장>
- 3) 1920.02.15.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3판. 박형익 교수 소장>
- 4) 1922.00.0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 5) 1924.00.0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고려대, 동국대, 세종대 도서관 소장>
- 6) 1925.00.00.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대구가톨릭대중앙도서관 소장>
- 7) 1928.11.05. 『신자전』, 유근 외 공편, 경성: 신문관.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기타: 영인본으로는 1947년(동명사), 1973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 전집 편찬위원회 편), 1978년(발행처 불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97(동양고전학회 편집부)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육당 전집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여 『육당 최남선 전집』 제7집으로 발행한 영인본의 끝에는 『신자전』을 보충하고 교정한 『보정 신자전(補訂新字典)』 원고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다.

1.3. 사전류 문헌의 중요성 및 자료적 가치

1.3.1. 사전류 문헌의 중요성

한자는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한반도로 전해왔으며, 한국인들이 직접 한자 자전을 편찬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한자를 배우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중국에서 전해진 자전을 차용해 왔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무열왕(武烈王) 이전(기원전 654년)에는 『이아』(爾雅)가 한국으로 전해졌으며, 고려시대(936-1392) 소장된 중국 서적 목록에 『광아(廣雅)』, 『삼창(三蒼)』, 『피창(埤蒼)』 등의 한자 자서가 있다. 조선왕조 4대왕인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후 『동국정운』을 편찬하였다. 이후 신숙주(申叔舟) 등은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번역하여 한글로 새로 만들고 주음(注音)하

여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1728년에 『강희자전』이 한국으로 전해진 이후에는 그 당시의 학자들이 널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상류 사회의 호응도 많이 받아들였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왕조 22대 왕인 정조(正祖)는 『강희자전』을 세밀하게 열람하고 정조 개인의 견해도 제시하였다. 그 후에 정조는 당시 학자들에게 『강희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한자 자서를 참고하여 『전운옥편』을 편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참고한 『전운옥편』의 총 목록과 『강희자전』의 목록의 기본 순서는 거의 일치하며 수록된 대부분의 자례도 중복되었다. 이로 인해 『강희자전』은 『전운옥편』의 연구에 참고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운옥편』은 『강희자전』보다 자례에 대한 해석은 더욱 간결하고 명료하다. 번거롭고 복잡한 인용과 설명이 없어지고 더욱 일목요연하다. 일반인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서의 도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운옥편』은 총 10,977자가 수록되었지만, 상·하 두 권만을 나뉘었고 『강희자전』보다 더욱 가볍고 검색과 열람하기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다. 두 자전의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의 ‘天’자를 예로 제시하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康熙字典』 ‘天’²⁸⁾:

[古文] 𠀤 𠀥 𠀦 𠀧 𠀨 [唐韻] [正韻] 他前切 [集韻] [韻會] 他年切, 𠀩 𠀪 平聲. [說文] 顛也. 至高在上, 從一大也. [白虎通] 鎮也, 居高理下, 爲物鎮也. [易·說卦] 乾爲天. [禮·禮運] 天乘陽, 垂日星. 荀子曰: 天無實形, 地之上至虛者皆天也. 邵子曰: 自然之外別無天. [程子遺書] 天之蒼蒼, 豈是天之形. 視下亦復如是. [張子正蒙] 天左旋, 處其中者順之, 少遲則反右矣. [朱子·語類] 離騷有九天之說, 諸家妄解云有九天. 據某觀之, 只是九重. 蓋天運行有許多重數, 裏面重數較軟, 在外則漸硬, 想到九重成硬殼相似, 那裏轉得愈緊矣. ○按天形如卵白. 細察卵白, 其中之網縑融密處確有七重, 第八重白膜稍硬, 最後九重便成硬殼. 可見朱子體象造化之妙. 今西洋曆說, 天一層緩似一層, 此七政退旋, 所以有遲速也.

又星名. [爾雅·釋天] 天, 根氏也. [周語] 天根見而水涸.

又古帝號. 葛天氏, 見[疏] 佺紀.

又神名. [山海經] 形天與帝爭神, 帝斷其首, 乃以乳爲目, 臍爲口, 操干戚以舞. 形一作刑. [陶潛詩] 刑天舞干戚, 猛志故常在. 或作獸名, 非.

又地名. [蜀地志] 蜀邛樊山後四野, 無晴日, 曰漏天. [杜甫詩] 地近漏天終歲雨.

28) 『강희자전』: <https://www.zdic.net/hans>

又山名。[九州要記]涼州古武城有天山，黃帝受金液神丹于此。一曰在伊州。[註]天山，卽祁連山。

又天，樂名。鈞天廣樂，見[史記·趙世家]。

又署名。[唐六典]內閣惟祕書閣，宏壯曰木天。今翰林院稱木天署。

又景天，草名。[陶弘景曰]以盆盛，置屋上，辟火災。

又髡刑。[易·睽象]其人天且劓。

又姓。漢長社令天高。見[姓苑]。○按先韻，古與眞文通，故天字皆從鐵因反。考之經史皆然，惟《易》六位時成，時乘六龍以御天，與庚青通耳。《正字通》謂，至尊莫如天，天以下又莫如君父，字音必不可僭易改叶，所論頗正大。丙，武后所造天字，似篆文天。

『全韻玉篇』‘天’²⁹⁾:

圀至高無上乾也㊦

위의 ‘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전운옥편』에서의 자례에 대한 해석이 간결하고 명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훈몽자회』·『전운옥편』·『화동정음통석운고』·『규장전운』 등 자서는 모두 소학서 음운류 저서, 한자 학습서, 운서, 그리고 자서류에 속한다. 이 중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 주음(注音)된 한자음은 당시 한반도의 구어 어음이고 자례 밑의 주음(注音)은 화음(華音)과 동음(東音)을 병기(併記)하는 방식으로 되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전운옥편』은 보통 『규장전운』에 의존하여 편찬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인 독립적인 사전이기도 하다. 그러면 아래는 다시 ‘天’을 예로 들어 『훈몽자회』·『화동정음통석운고』·『규장전운』에서 이 자례에 대한 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訓蒙字會』‘天’: <1a>

하늘 텨 一道尙左日月右旋

『華東正音通釋韻考』‘天’: <卷2 1a>

一 텨(右)

地 텨(左)

29) 강신항(1993: 전운옥편 상 21a), 『奎章全韻 全韻玉篇』, 박이정.

『奎章全韻』 ‘天’: <下卷 4b >

至高無尙 ㉮ ㉮

상술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같은 자례에 대한 주음(注音)과 주해는 이 몇 권의 자서가 모두 간결하고 특히 『규장전운』의 석의(釋義)는 자매편(姊妹篇)인 『전운옥편』과 거의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을 바탕으로 별도로 편찬된 한국의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자전이라고 한다.

한편, 『국한문 신옥편』(1908)과 『자전석요』(1909)가 출간되기 이전의 현존하는 한국 자전들은 대부분 중국의 자전을 다시 발간한 것이었으며 한글로 주해를 한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한글로 뜻과 음을 해석해 놓은 『훈몽자회』, 『신증유합』, 『주해 천자문』 등은 단순한 새김식 한글풀이에 지나지 않았고, 수록자의 수량도 『훈몽자회』가 3,360자이고, 『신증유합(新增類合)』이 3,000자로 아동들의 훈몽을 위한 정도이지 자전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수준이 미흡하였다. 『전운옥편』(1796)은 수록자가 10,977자에 이르고 수록 한자의 수량이나 해석이 한국 자전의 전범으로서 손색이 없지만, 한자음을 한글로 단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한문으로 주석하였다. 『자류주석』(1856)은 『전운옥편』과 비슷한 10,968자였고 한글로 음과 훈을 풀이하어 자전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으나, 체제에 있어서 부수별 분류가 아닌 ‘천도부(天道部)·인도부(人道部)·지도부(地道部)·물류부(物類部)’의 4부로 나누고 『훈몽자회』의 분류 방식과 비슷하며 이는 검색에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반해 『자전석요』는 한자마다 한글 한자음, 한글풀이, 한자 주석, 운(韻), 동자(同字), 속자(俗字) 등의 항목에 대해 자세한 풀이를 수록하여 한자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실용적인 자전이었음을 간주한다(왕평·하영삼 2019:68).

『신자전』은 그간의 한자 자전 중에서 수록 글자 수, 상세한 독음(讀音), 제시된 의항(義項)의 수, 의항에 대한 전거(典據)의 제시, 다양한 이체자 속성 등 모든 면에서 한자 자전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속성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풀이한 사전이었다. 그 외에 삽도(插圖)의 활용과 3단 배치, 부수 목록과 검자(檢字)의 제공, 한국과 일본 및 근대 시기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에 대한 제공 등에서 독보적인 한자 자전이었으며, 그 영향은 지대하여 이후 한자 자전의 전범을 마련했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나 체제 등에서 근대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자전이며, 『전운옥편』의 영향을 벗어나 독자적 체계를 갖춘 최초의

한자 자전이라 할 수 있다(왕평·하영삼 2019:185).

1.3.2. 자전류 문헌의 자료적 가치

한국의 한문 운서·자전·한자 학습서의 편찬 역사를 살펴보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³⁰⁾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갑오경장(1894년) 이전 시기의 운서 및 자전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와 『운회옥편』(1536), 홍계희의 『삼운성취』(1751), 박성원의 『화동정음통석운고』(1747), 이덕무의 『규장전운』, 그리고 편찬자가 미상이라는 『전운옥편』이 있다.

두 번째,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에 한반도 광복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자서는 한자의 음과 훈은 주로 한글로 해석하며 대표적인 저서는 정익로의 『국한문 신옥편』(1908), 지식영의 『자전석요』(1909), 최남선의 『신자전』(1915), 그리고 『한선문 신옥편』(1913)과 『자림보주』(1922)가 있다. ‘자전’이라는 용어는 이 시기에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세 번째, 한반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동안에는 한자 자서가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게 편찬되었지만, 내용과 체제는 큰 변화가 발생되었다. 특히 한중 수교 이후, 한자 자전의 편찬은 새로운 고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저서는 단국대학교에서 편찬된 『한국한자어사전』(1997)이 있다.

『전운옥편』이 다양하고 수많은 자전 및 자서의 편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서 편찬의 간결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 한자 자서 편찬의 효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운옥편』은 한국 자서 역사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한자 자서로 중국의 자서 『설문해자』, 『옥편』과 견줄만한 가치를 지니며, 한국 학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전운옥편』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 『전운옥편』은 운서인 『규장전운』의 자매편(姊妹篇)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규장전운』 뒤에 첨부하고 있어 자신은 독립적인 자전으로 편리한 검색 체제가 없으므로 이용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둘째로, 『전운옥편』

30) 한국의 운서·자전·한자 학습서의 편찬 역사 단계적 분류 기준은 왕평·형신보(2012:9)를 참고로 한다.

의 훈석(訓釋) 체제는 상대적으로 성숙하지만, 범례, 서문, 발문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과 검색에 불편함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운옥편』에 수록된 자례 등 내용은 오류가 많이 있으며 한자 자례의 형태, 자음(字音), 그리고 자의(字義) 등에 있어 오류가 있는 글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었다. 이 몇 가지의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운옥편』은 한국 한자음 자서 연구사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전운옥편』의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체재, 내용, 형식을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완정하고 독립적인 한자 자전이라고도 한다.

2. 구개음화 현상의 특징에 대한 고찰

2.1. 구개음화 정의에 대한 고찰

구개음화(Palatalization)는 자음(子音)을 경구개 소리에 가깝게 발음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구개 개음 /j/ 또는 전설 모음 /i/, /e/과 같은 음 앞에서 발생한다. 이 현상은 자음이 발음될 때 자체의 발음 행위 외에 혀뿌리(설근 舌根)가 경구개 부분에 닿아 짧은 /j/로 발음된다.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할 때는 구개음화된 자음의 오른쪽 상단에 ‘j’를 붙여 표시한다.

라틴어에서는 [ke]와 [ki]였던 발음이 이탈리아어와 루마니아어에서는 [tʃe], [tʃi]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와 루마니아어에서는 [tʃe]의 발음이 /ce/로 표기되는 한편, [ke]와 [ki] 발음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시로 /h/를 덧붙여 [che]/[chi]로 적는다.

또한 서양의 일부 언어에서는 비슷한 음가인 /i/, /j/로 구개음화 현상을 피한다. 구개음화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전설 모음, 그중 고모음인 /i/, /y/, /j/, /u/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어와 포르투갈어에서는 /d/와 /t/가 /i, i/ 앞에서 [dʒ]와 [tʃ]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별도의 음운을 차지하지 않는 이음(異音)이다.

폴란드어에서 /D/와 /T/는 /i/ 앞에 올 때 아예 /Dź/와 /Ć/로 소리 난다.

위에 구개음화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언어에서 나타나는 구개음화 현상의 통칭이고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다른 언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구개음화는 닿소리 뒤에 /ㅣ/나 /ㅑ, ㅓ, ㅕ, ㅠ, ㅞ, ㅟ/ 등 /ㅣ/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올 때 주로 발생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을 중심으로 대조 분석하기로 해서 아래에서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국어 구개음화에 대해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i]/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가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로 되는 현상”이라고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³¹⁾. 또는 현대한국어 구개음화 현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진호(2005)는 “구개음화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라고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위의 해석은 현대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정의라고 하고 중세 및 근대한국어 시기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더 많은 양상 및 해석이 나타났음을 보인다.

중세 및 근대한국어 구개음화의 정의에 대해서 /ㄷ, ㅌ/ 등 일련의 비구개음이 /ㅣ, /ㅈ/ 앞에서 치음(齒音)의 구개음화 [tʃ]로의 이행에 힘입어 역시 [tʃ]로 되는 현상을 가리켜 중세처럼 구개음화라고 칭하기로 한다고 했다.³³⁾ 다시 말하면 구개음화는 /ㅣ나 /ㅈ/에 의해 비구개인 자음이 구개인 자음으로 바뀌는 일련의 현상이다. 한국어에서 /ㄷ, ㅓ, ㅎ/가 /ㅣ나 /ㅈ/ 앞에서 각각 /ㅈ, ㅊ/로 바뀌는 현상이 구개음화의 일반적인 개념이다³⁴⁾.

安秉禧·李珖鎬(1990)에 따르면 구개음화는 파찰음 /ㅈ, ㅊ/ 등의 구개음화를 전제로 한다. /ㅈ, ㅊ/ 자체가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비로소 /ㄷ, ㅌ/ 등이 /ㅣ나 /ㅈ/ 앞에서 구개음 /ㅈ, ㅊ/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한국어의 /ㅈ, ㅊ/ 등은 본래 각기 치음(dental)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32) “구개음화는 경구개 이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ㅈ/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ㅣ/나 /ㅈ/는 모두 조음 되는 위치가 경구개 부근이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선행하는 자음이 후행하는 /ㅣ, ㅈ/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일종의 동화 현상으로 파악한다. 특히 /ㅈ/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ㅈ/의 탈락이 뒤따르는데, 이것은 경구개음과 /ㅈ/의 조음 위치가 서로 중복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181쪽.

33) 이명규(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한국문화사, 44쪽.

34) 김주필(2015:21)에 따라서 “구개음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달리 사용될 수도 있다. 가령 기저 음소 층위에 있는 비구개 자음 /n, r, s/ 등이 /ㅣ나 /ㅈ/ 앞에서 각각 경구개 변이음 [ɲ], [ʎ], [ʃ] 등으로 실현되는 음성 층위의 현상도 구개음화라 칭하기도 하며, 음소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체 현상에 대해서만 ‘구개음화’라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개음화’가 엄격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음운론의 연구 영역, 대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ts, dz], [tsʰ, dzʰ]이었는데, 이들이 /i, j/ 앞에서 구개음 [tʃ, dʒ], [tʃʰ, dʒʰ]로 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주필(2015:59)에서 구개음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의하였다. 17·18세기의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그리고 ㄴ구개음화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이 보인다. 한국어 ㄷ구개음화란 /i/나 /j/ 앞에서 비구개음인 /ㄷ, ㅌ, ㅌ/가 /i/나 /j/의 구개성, 즉 [+고음성, -후설성]에 동화되어 각각 /ㅈ, ㅊ, ㅉ/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한다³⁵⁾. ㄱ구개음화는 17·18세기에 ㄷ구개음화만큼 잘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방언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ㄱ구개음화는 연구개 부위에서 발음되는 /ㄱ/는 경구개로 발음되는 /ㅈ/로 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지춤 지춌되(진주 26), 짐히고 전주 자반히고(진주 34)’의 ‘지춤, 지춌, 짐’은 ‘기춤, 깃-, 김’은 바로 ㄱ구개음화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³⁶⁾. 한국어사 문헌에서 ㅎ구개음화 현상은 그 관련 현상도 다른 구개음화 현상처럼 /i/나 /j/를 선행하는 /ㅎ/를 /ㅅ/로 표기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주필(2015:59)에서는 어두의 /ㄴ/가 /i/나 /j/ 앞에서 탈락되는 현상은 /ㄴ/가 구개 변이음으로 실현되는 현상과 관련지어 구개음화로 간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간행 시기가 약 18세기 말 19세기 초 무렵인 『전운옥편』은 한국의 대표적인 옥편으로 수록된 한자의 음의 음운 현상이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특히 구개음화의 실현은 훨씬 낮은 비율로 진행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자서류의 저서이므로 이로 인해 보수적인 성

35) 김주필(2015:59)은 “ㄷ구개음화는 한국어사 문헌에서 /i/나 /j/계 중성 /ㅈ, ㅊ, ㅉ, ㅊ/ 앞의 /ㄷ, ㅌ, ㅌ/가 각각 /ㅈ, ㅊ, ㅉ/로 표기된 예들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ㄷ, ㅌ/가 각각 /ㅈ, ㅊ/로 바뀐 표기는 있지만 /ㅌ(ㅌ)/가 /ㅉ(ㅉ)/로 바뀐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표기의 관습 때문이다. 음절말 자음이 과열되지 않으면, 후행하는 /ㄱ, ㄷ, ㅌ, ㅈ/는 자동적으로 경음화되기 때문에 경음 /ㅌ/의 구개음화 예들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야 한다. 이전 시기에 ‘디, 티, 씨’ 등이던 형태가 각각 ‘지, 치, 씨’ 등으로 바뀌어 나타나면,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해 왔던 것이다”라고 했다.

36) 김주필(2015:100)은 “ㄱ구개음화의 환경은 음절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제1음절에서, 음절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개음절이고 폐음절이면 비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또한 구개음화된 분절음은 모두 평음에 한정되어 나타났다.”라고 했다.

37) 김주필(2015:121) “/ㄴ/가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음성적 현상을 바탕으로 ㄴ탈락 현상이 일어나므로 엄밀하게 이 현상은 음운론적인 층위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에 포함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i/나 /j/ 앞에서 /ㄴ/가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어 형성하게 된 구개음 연결체에 어두 음절과 관련되는 제약이 가해짐으로써 /ㄴ/가 탈락되어 음운론적인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 책의 대사에 포함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ㄴ/의 탈락 현상은 /ㄴ/가 /i/나 /j/ 앞에서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음성 현상에 어두 자음의 제약 현상이 관여함으로써 이러한다는 점에서 이 현상을 구개음화의 관련 현상으로 간주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기문(1972b/1977), 이명규(1974/1993), 곽충구(1980), 홍윤표(1985), 백두현(1990) 등 구개음화를 통시적으로 다룬 대부분의 논의에서 ㄴ탈락 현상을 보인 예들을 통하여 ㄴ의 구개음화를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ㄴ탈락의 예를 통하여 ㄴ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해 왔던 것은, 이미 ㄴ구개음화 자체가 아니라 ㄴ구개음화의 관련 현상으로서 ㄴ탈락 현상을 검토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김주필(2015)의 접근 방식이 기존의 방법과 다른 것은 아니다.

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天: 하늘 천’에 대한 한자음의 시대적 변화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天: 턴 『훈몽자회』(1527) 1a
- 턴 『화동정음통석운고』(1747) 卷2 1a
- 턴 『전운옥편』(1796?) 卷上 21a
- 턴 『갑오천자문』(1894) 1a
- 턴/천 『자전석요』(1909) 25a
- 턴/천 『신자전』(1015) 82쪽

예문을 보면 ‘天’의 한자음은 『갑오천자문』까지는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자전석요』에 이르러서야 속음 표시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天’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실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구개음화 유형에 대한 고찰

우선 현대한국어의 구개음화 분류에 대해서 이진호(2005)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로 분류하였다³⁸⁾. 리금희(2007)³⁹⁾에서도 구개음화의 종류에 대해 ‘t구개음화, k구개음화, h구개음화’ 3가지로 나누는 주장을 했다. 사성칠음의 층면에서 설음(舌音) 구개음화, 아음(牙音) 구개음화, 후음(喉音) 구개음화로도 볼 수 있다.

이명규(2000), 김주필(20015) 등은 구개음화에 대해서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ㄴ구개음화 4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⁴⁰⁾. 본 연구에서도 이런 분류 관점을 바

38) 이진호(2005:182)를 참조.

39) 리금희(2007), 「구개음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34-39쪽.

40) 이명규(2000:12)에서 “구개음화 현상은 /t/(ㄷ, ㅌ) 구개음화로 대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ㄱ, ㅋ), /h/(ㅎ)구개음화, 나아가서는 구개음화에서 비롯된 어두음/n/(ㄴ) 및 /l/(ㄹ)의 탈락 현상 등도 발달 과정의 차이는 얼마간 있을지라도 구개음화라는 동일한 범주의 차원에서 구명되어야 한다.” 김주필(2015:121)에서는 /i/나 /j/ 앞에서 어두 음절의 /ㄴ/이 탈락되는 현상은 /ㄴ/가 구개변이음으로 되는 현상에 다른 현상이 적용되어 일어난 복합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이 현상에 /ㄴ/가 구개음으로 실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넓은 의미의 구개음화 현상 또는 구개

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한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ㄷ구개음화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밭+이→[미치], 밭+이다→[바치다], 곧+이→[구지], 같+이→[가치], 붙+임→[부침],
걸+이→[거치], 밭+이랑(밭과)→[바치랑]

위와 예를 보듯이 현대한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구개음화의 예들이 항상 어간과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어간과 어간의 결합이 구개음화 현상이 성립되지 않는다⁴¹⁾.

중세 및 근대 시기에 간행된 문헌에서 나타난 구개음화의 예도 적지 않다.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명규 2000:114-115).

(1) 『類合』⁴²⁾

- a. 轉 구은전 2a : 구을던 上 3a
- 第 츠례제 2a : 츠례데 上 3a
- 田 전 4a : 받던 上 6a
- 汀 못곶정 4b : 물곶덩 上 6a
- 殿 전 11b : 던던 上 18a
- 筋 저저 16b : 저더 上 27a
- 柱 기동쥬 14b : 기동듀 上 23a
- b. 산겸 15a : 산덤 上 24a
- 黍 디장세 7a : 기장셔 上 10a

음화 관련 음운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41) 이진호(2005:183)는 “ㄷ구개음화가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적용된 경우이다. 이때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문법 형태소여야만 한다. 표준 발음법 제16항에 따라 받침 /ㄷ, ㅌ(ㄷㅌ)/가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를 들어 밭이→[바치], 곧이→[구지], 벼훤이[벼훤치] 등이 있다. 그러나 밭+ 이랑(坡)→[반이랑], 훤+ 이불→[훤니불], 끝+ 일→[끈닐] 등 예들이 구개음화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42) 『類合』은 조선시대 한자를 수량·방위 등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새김과 독음을 붙여 편찬한 교재·한자 학습서이며 16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김은 문맥에 의존하여 정한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편찬방식으로 『유합』은 동음어인 새김, 가령 ‘남을’, ‘가지’로 새김이 될 ‘채(菜)·여(餘)·가(茄)·지(枝)’의 혼동을 막을 수 있으므로 『천자문』보다 훌륭한 입문서로 평가되었다. 현전하는 이본(異本)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64년(현종 5)의 안성 칠장사(七長寺)판으로, 이 책은 아직까지도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합(類合))]

- 之 갈디 7a : 갈지 上 10b
- c. 勤 심슬근 27a : 브즈런근 下 9a
- 胸 가슴슴 13b : ㅁ슴슴 下 32b (h)
- 力 심녁 13a : 힘녁, 힘빨녁 下 32a
- d. 淺 여틀친 29b : 여틀친 下 48b

위의 제시된 내용은 칠장사(七長寺) 간행 문헌들의 한자 음(音)과 석(釋)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합(類合)』은 『천자문(千字文)』보다 훨씬 풍부하게 구개음화가 실현된 음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ㄷ/(22a), /ㄱ/ 및 역구개(22b), /ㅎ/(22c), /ㄴ/(22d) 등 모두 구개음화 양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 ㄷ구개음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

근대 시기의 한국어 음운 현상 중 가장 현저한 것은 구개음화이며 구개음화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ㄷ구개음화이다. 그럼 우선 ㄷ구개음화의 발단, 역사적인 발전, 실현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ㄷ구개음화 현상이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는 15세기로 추정될 수 있다. ㄷ구개음화의 발단은 朴鍾熙(1986:84)에 따르면 15세기 당시에 비구개음이었던 c부류의 구개음화, 즉 c>ç와 같은 변화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훈민정음에서 치음(齒音)으로 규정된 /ㅈ/는 15세기 당시에는 치조음 [ts]이었다⁴³⁾. 그리하여 비구개음이었던 /ㅈ/가 18세기 이전 어느 시기에 구개음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비구개음 /ㅈ/가 자음의 빈칸을 메꾸려는 이음적 교체로 인하여 구개음화를 경험하다가 완전한 구개음으로 변화한 다

43) ㄷ구개음화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학자에 따라 관점을 다소 차이가 다르게 제시한다. 여기에 15세기로 추정된 것은 조선 시기의 중국어 성운학적 측면에 의한 해석과 지방에 간행된 문헌에서 ㄷ구개음화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말하고 한국어 음운론적인 해석은 ㄷ구개음화가 17세기 중·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알 수 있다. 김주필(2015:60)에서 “17세기 중기 이전에는 중앙어가 반영된 문헌에 구개음화나 과도교정의 예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 간행의 문헌에서는 17세기 중·후기에 이르러서야 ㄷ구개음화와 과도교정의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된 문헌은 주로 『경민편언해』(1656), 『어록해』(1669), 『박통사언해』(1667), 『역어유해』(1690) 등이 있다.

음에, 이의 공모성에 의해서 t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t구개음화는 c구개음화를 전제로 해서 그 발생이 가능함으로 t구개음화에 앞서 c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기문 1972, 이명규 1974, 곽충구 1980, 송민 1985). 따라서 t구개음화의 발단은 비구개음이었던 c부류의 체계상의 빈칸을 채우기 위하여 발생한 구개음화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朴鍾熙 1986:84).

ㄷ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특히 한국 고유어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는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⁴⁴⁾ 우민섭(1995:30)에서는 17세기 중엽 이전에 부분적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있었는데 17세기 후반 이후로 점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심영자(1983:1)에서도 이에 대해 증언을 제공하였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에 대한 인식으로 黃胤錫의 『이재유고(頤齋遺稿)』(1802) 자모변(字母辨)과 柳僖의 『언문지(諺文志)』(1824) 등의 증언에 의하면 17세기 중엽 전후는 /ㄷ/ > /ㅌ/의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그럼 우선 15세기의 문헌에서부터 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이명규 2000:71-78).

(1) 『釋譜詳節』(1446)

우업슨 正 訥 道理라(3:10a)

44) 이명규(2000:129)에 의하면 16세기 한국어의 구개음화가 남부방언 자료에서 특히 한자음의 ㄷ구개음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어 순수 고유어의 ㄷ구개음화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한자음의 음운 변화는 중국 한어중고음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어중고음은 8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동안 북방음에서 설상음이 구개음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근거하여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도 일찍 일어났을 수 있다.

45) 우민섭(1995:29/30)에서는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高句麗語의 일부에 ㄷ구개음화를 경험한 語例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考證자료의 곤란으로 더 이상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헌별로 구개음화가 실현된 정도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17세기 중엽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있었다는 견해와 17세기 후반 이후를 그 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설이 그중 유력해 보인다.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를 17세기 후반 이후로 잡는 결정적 근거로 흔히 柳僖의 증언을 들고 있다. 『諺文志』(1824)에 의하면 鄭東愈 高祖의 형제 중 「知和」와 「至和」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鄭東愈 高祖대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까지는 구개음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이론의 근거이다. 그러나 그 당시 「知」와 「至」의 구별은 한자음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고유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돈주(1980:189~197)에 의하면 『화동정음통석운고』(1747) 이후부터 『전운옥편』(1796)에 이르기까지의 각 운서에서 설상음자는 규범적으로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발음한 반면, 설두음은 구개음화한 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914년에 간행된 「조선문신옥편」에 서마저 설두음자가 비구개음으로 반영된 사실은 양계를 인위적으로 구별한 전통성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 인해 설음의 구개음화는 한국어의 음운 변화의 진행과는 별도의 문제로 고려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2) 『月印釋譜』(1459)

: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 (1:36a)

眞 金은 진딧 金이라 (7:29a)

(3) 『杜詩諺解』(1481)

秦王이 그제 진짓 氣運이 놀라와 되더라 (8:56a)

(4) 『救急簡易方』(1489)

진짓 석우황을 싱양 瘧 두드려 (6:59a)

위에서 15세기의 많지 않은 자료에서 ‘진짓’과 ‘진딧’이라는 어사(語辭)를 비교 분석해 보면 ㄷ구개음화로 추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치음(齒音)의 구개음화로 볼 수 있다. 위의 제시된 예문 중 논의할 ‘진짓’은 『두시언해(杜詩諺解)』 이전 문헌에서는 ‘진딧’으로 나타나는데 극히 제한된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통시적으로 보면 ‘진딧>진짓’로 변화하는 것은 구개음화 현상으로 인정되어 劉昌惇(1961), 장세경(1961), 洪允杓(1985), 宋敏(1985) 등에서도 직간접으로 지적이 있었다.⁴⁶⁾ 그런데, 이기문(1991:225)에서는 ‘진딧’은 ‘眞的’에서 온 차용으로 보아 ‘진딧>진짓’의 변화는 ‘거죽’에의 유추에서 말미암은 듯한 시사를 하고 있다⁴⁷⁾.

16세기에 이르러서 더 많은 문헌에서 ㄷ구개음화의 예를 엿볼 수 있다. 이 문헌 자료들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16세기 초),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16세기 초), 『소학언해(小學諺解)』(1587), 『신증유합(新增類合)』(1576), 『정속언해(正俗諺解)』(1518), 『(蒙山和尚文道普說)』(1567 淳昌 鷲岩寺刊),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1584),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1571-1573)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진짓 이명규(2000:80)

46) 이명규(1974)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杜詩諺解』(8:56a)의 ‘진짓’은 순수한 ㄷ구개음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명규(2000:71:72)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이유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이 자료가 순수 고유어라는 확신이 없었으며, 둘째는 이 자료가 당시 연구 범위(16세기-19세기)를 훨씬 소급하여 출현한 점이며, 셋째로 ㄷ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음의 구개음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넷째 ‘진짓’ 이외의 다른 어사에서 ㄷ구개음화의 예를 채집할 수 없었으며, 다섯째,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ㄷ구개음화 자료를 인정할 경우 치음의 구개음화를 선뜻 인정하기엔 적잖은 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47) 유창돈(1971:375)에서 ‘진딧’을 ‘眞的’의 차용으로 본 사실에 비추어 송민(1985:87)은 중세 표기에 ‘진딧, 진짓’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개음화 자료로 택하는 데 주저하게 되었다.

『翻譯老乞大』 上 28b, 下14b, 22a, 28a, 41b, 64b

『翻譯朴通事』 上 27b, 30b, 38a, 75b

『小學諺解』 4:31a

(2) 건지다 이명규(2000:81)

『新增類合』 건질증(拯:下)(11a)

cf. 救ᄃ야 건디실 뿌니기나라(法7:29a)

(3) 『蒙山和尚文道普說』 이명규(2000:82)

부처(佛) (30b)

帝제釋석 (40b)

第제子즈 (40a)

(4) 『誠初心學人文』 이명규(2000:82)

일체시중(一切時中)(19b) cf. 京. 일체시똥(一切時中) (9a)

오덕(7a) cf. 京. 오직(3b)

도쿠디(14a) cf. 도쿠지(續三綱 孝2a)

이상의 예 가운데 (1)과 (2)의 ‘진짓’, ‘건지다’는 순수 한국어의 예로 나타나고 (3)과 (4)의 예는 한자음 구개음화의 예임을 알 수 있다⁴⁸⁾. 고찰해 보니 16세기 한국어 자료가 15세기 한국어 자료에 비하여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간행지의 폭이 중앙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에 처해 있는 16세기의 문헌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자어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인데 특히 한국의 서남방언 자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577년에 간행된 송광사(松廣寺)판 『계초심학

48) 이돈주(1980)에서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이후 『全韻玉篇』에 이르기까지의 諸韻書에서 舌上音字들은 규범적으로 구개음화시켜 제시되어 있다. 심지어는 1914년에 간행된 『漢鮮文新玉篇』에서 마저 舌頭音字가 비구개음으로 반영된 사실을 兩系의 인위적인 구별로 보고 있다. 또한 도효근(1980)에서는 ㄷ > ㅌ, ㅌ > ㅈ의 변화는 적어도 『校書館千字文』(1691)이 重刊될 때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註解千字文(1804)에서부터 경구개음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周氏千字文(1862) 개간 당시에 일반화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四法語錄』(1577)에서 보면 舌頭音에 속하는 天이 ‘천’으로 구개음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본문의 한자음은 16세기 문헌 전체에서 거의 구개음화되어 있다.

인문(誠初心學人文)』을 비롯한 일련의 문헌에서는 한자음이 거의 완벽하게 구개음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⁴⁹⁾.

17세기의 ㄷ구개음화는 대체로 한국의 중앙이나 지방에 간행된 문헌에서 구별 없이 전반적으로 16세기보다 예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헌은 『연병지남(練兵指南)』(1612), 『가례언해(家禮諺解)』(1632 原城刊行), 『중간두시언해(重刊杜詩諺解)』(1632), 『권념요록(勸念要錄)』(1637 求禮 華嚴寺板),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1660), 『어록해(語錄解)』(1669, 南二星 改刊本), 『역어유해(譯語類解)』(1690)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⁵⁰⁾.

(1) 『練兵指南』(1612)로 대표되는 동북방언

- a. 지르(刺)- 3a (디르다)
- b. 그치라(止) 14b(그티라), 전신(轉身) 27a (던신)
- c. 진짓 13a (진딧)
- d. 훈글으치 30b (훈글으티)

(2) 『譯語類解』(1690)로 대표되는 중앙방언

- a. 진짓것(眞的) 上 69a (진딧)
- b. 전대(纏帶) 上 45a (던대)
- c. 곡뒤치다(打背公) 下 49b (곡뒤티다)
- d. 저녁 上 5a, 저녁 노을 上 2a, 저녁 밥 上 49b (더녁)

(3) 『重刊杜詩諺解』(1632)로 대표되는 동남방언

- a. 버지(初刊 버디) (19a) (버디)
- b. 고쳐 (30a) (고티다)
- c. 조흔 (57a, 34b) (똥다)
- d. 보쳐 (5b) (보터)

49) 이를 통해 16세기에 ㄷ구개음화가 이미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문헌 자료에 따라 ㄷ구개음화의 실현율이 다르다.

50) 이명규(2000:109-128)를 참조.

(4) 『勸念要錄』(1637 求禮 華嚴寺板)로 대표되는 서남방언

- a. 전ㅎ야 (1b, 10b) (턴ㅎ야)
- b. 턴관중애 (32a) (턴관둥애)
- c. 오장국왕이 (17b) (오당국왕이)
- d. 정관 (26b) (덩관)

위에 (1), (2), (3), (4) 예문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17세기의 문헌에서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된 예이다.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를 고찰해 보면 17세기 이전에 ㄷ구개음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문헌에서 구개음화 현상의 증거를 엿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문헌 자료를 통해 17세기 중엽부터 중앙어부터 지방 방언으로 확산되었고 전면적으로 ㄷ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

18세기에 간행된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ㄷ구개음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 자료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에 관한 자서류 문헌들이 많다. 이는 한자음은 도구적 학습서로써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문헌과 현실 발음에서 고유어보다 확산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완성 시기도 보다 늦다. 이 시기의 문헌에서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知디, 智디, 池디, 恥디, 鐵털~철 『靈藏寺類合』(1700)

彫도, 朝도~쵸, 顛던, 田던, 天던~천 『靈藏寺千字文』(1700)

啼테, 逮테, 蝶덩, 貼덩 『三韻聲彙』(1751)

者쟈~다, 周쥬~듀, 徵딩, 『御製訓書諺解』(1756)

위 예문에서 제시했듯이 18세기에 간행된 자서류 문헌에 한자음들이 구개음 환경에 해당되고 있으며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鐵’, ‘朝’, ‘天’ 등은 ‘털~철’, ‘도~쵸’, ‘턴~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일부 한자음들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거나, 아니면 구개음화를 거치기 전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서류 문헌에 실린 한자음들이 언제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3. 한어중고음 사성칠음 및 구개음 환경

한국어 한자음의 역사에서 전승 한자음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확립된 중세한국어 한자음이다. 중세한국어 한자음이 현실적인 전승음(傳承音)이면서도 규범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고려 광종 9년(958)에 시작된 과거(科擧) 시험의 영향이 컸다는 관점이다(김무림 2022:184-185). 당시 중국에서 통용된 규범적인 운서에는 『절운(切韻)』(601) 계열의 『당운(唐韻)』, 『광운(廣韻)』(1008, 206韻), 『예부운략(禮部韻略)』(1037, 206韻) 등으로서, 분운(分韻)⁵¹⁾이 간소화되기는 하였지만, 음운 체계의 기반은 한어중고음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음운 체계를 전승하여 자신의 운서를 편찬하여 한국 한자음의 성운학(聲韻學) 음운 체계를 구성하였다. 앞에 이미 언급한 운서와 자전들의 성운학(聲韻學)적 자음(子音)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 한어중고음 41聲母 및 관련 韻書 聲母의 대조표⁵³⁾

七音	中古 漢語 41聲母	『中原音韻』	『東國正韻』 23字母	『四聲通解』 31聲母	『訓蒙字會』	『全韻玉篇』
牙音	見 /k/ ⁵²⁾	見 /k/	君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溪 /kʰ/	溪 /kʰ/	快 ㅋ	溪 /kʰ/	ㅋ 溪 /kʰ/	ㅋ 溪 /kʰ/
	羣 /gʰ/	羣 /kʰ/	虬 ㆁ	羣 /gʰ/	ㆁ 羣 /gʰ/	ㆁ 羣 /gʰ/
	疑 /ŋ/	疑 /ŋ/	業 ㅇ	疑 /ŋ/	ㅇ 疑 /ŋ/	ㅇ 疑 /ŋ/
舌音	舌頭 端 /t/	舌頭 端 /t/	斗 ㄷ	舌頭 端 /t/	ㄷ 舌頭 端 /t/	ㄷ 舌頭 端 /t/
	舌上 知 /tʰ/	舌上 知 /tʰ/			ㄷ 舌上 知 /tʰ/	ㄷ 舌上 知 /tʰ/
	舌頭 透 /tʰ/	舌頭 透 /tʰ/	吞 ㅌ	舌頭 透 /tʰ/	ㅌ 舌頭 透 /tʰ/	ㅌ 舌頭 透 /tʰ/

51) 분운(分韻)이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운자(韻字)를 정하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집어서 그 잡힌 운자로 한시를 짓는 일이라고 말한다.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면 운서에 사용하고 있는 운모(韻母)를 말하며 한어중고음 시기 이전의 운(韻)이 현재 사용하는 운모나 모음보다 훨씬 분류가 많다. 예를 들어, 『절운』과 『광운』에 206운이 분류되고 『예부운략』과 『삼운성회』에서 106운으로 분류하여 많이 간소화되었다.

52) 대체로 추정음에 대해서는 ‘[]’를 사용하여야 하나, 본 표에서는 漢語中古音 41聲母 및 관련 운서의 字母 및 韻母를 음운 자질로 인정하여 음운 기호 ‘/ /’를 사용하기로 한다.

53) 김서영·안영실·김민경(2020), 「漢語 中古音의 齒音 小考 - 『東國正韻』·『訓蒙字會』 齒音과의 비교를 통해-」, 『中國學』 72, 대한중국어학회, 5쪽.

	舌上	徹/t ^h /	舌上	徹/ts ^h /	覃 ㄊ	舌頭	定/d ^h /	ㄊ	舌上	徹/t ^h /	ㄊ	舌上	徹/t ^h /	ㄊ	
	舌頭	定/d ^h /	舌頭	定/t/					舌頭	定/d ^h /		ㄊ	舌頭	定/d ^h /	ㄊ
	舌上	澄/d ^h /	舌上	澄/ts ^h /					舌頭	澄/d ^h /		ㄊ	舌上	澄/d ^h /	ㄊ
	舌頭	泥/n/	舌頭	泥/n/					舌頭	泥/n/		ㄊ	舌頭	泥/n/	ㄊ
半舌	來 /l/	來 /l/	來 /l/	來 /l/	閏 ㄌ	來 /l/	ㄌ	來 /l/	來 /l/	ㄌ	來 /l/	來 /l/	ㄌ		
脣音	重脣	幫/p/	重脣	幫/p/	幫 ㄅ	重脣	幫/p/	ㄅ	重脣	幫/p/	ㄅ	重脣	幫/p/	ㄅ	
	輕脣	非/p/	輕脣	非/f/		輕脣	非/p/	ㄆ	輕脣	非/p/	ㄆ	輕脣	非/p/	ㄆ	
	重脣	滂/p ^h /	重脣	滂/p ^h /	滂 ㄆ	重脣	滂/p ^h /	ㄆ	重脣	滂/p ^h /	ㄆ	重脣	滂/p ^h /	ㄆ	
	輕脣	敷/p ^h /	輕脣	敷/f/		輕脣	敷/p ^h /	ㄆ	輕脣	敷/p ^h /	ㄆ	輕脣	敷/p ^h /	ㄆ	
	重脣	並/b ^h /	重脣	並/p/	步 ㄆ	重脣	並/b ^h /	ㄆ	重脣	並/b ^h /	ㄆ	重脣	並/b ^h /	ㄆ	
	輕脣	奉/b ^h /	輕脣	奉/f/		輕脣	奉/b ^h /	ㄆ	輕脣	奉/b ^h /	ㄆ	輕脣	奉/b ^h /	ㄆ	
	重脣	明/m/	重脣	明/m/	彌 ㄇ	重脣	明/m/	ㄇ	重脣	明/m/	ㄇ	重脣	明/m/	ㄇ	
輕脣	微/m/	輕脣	微/v/	輕脣		微/m/	ㄇ	輕脣	微/m/	ㄇ	輕脣	微/m/	ㄇ		
齒音	齒頭	精/ts/	齒頭	精/ts/	卽 ㄍ	齒頭	精/ts/	ㄍ	齒頭	精/ts/	ㄍ	齒頭	精/ts/	ㄍ	
	正齒2等	莊/tj/	正齒2等	莊/ts/		正齒	照/tɕ/	ㄍ	正齒2等	莊/tj/	ㄍ	正齒2等	莊/tj/	ㄍ	
	正齒3等	章,照/tɕ/	正齒3等	章,照/ts/		正齒	章,照/tɕ/	ㄍ	正齒3等	章,照/tɕ/	ㄍ	正齒3等	章,照/tɕ/	ㄍ	
	齒頭	清/ts ^h /	齒頭	清/ts ^h /	侵 ㄍ	齒頭	清/ts ^h /	ㄍ	齒頭	清/ts ^h /	ㄍ	齒頭	清/ts ^h /	ㄍ	
	正齒2等	初/tj ^h /	正齒2等	初/ts ^h /		正齒	穿/tɕ ^h /	ㄍ	正齒2等	初/tj ^h /	ㄍ	正齒2等	初/tj ^h /	ㄍ	
	正齒3等	昌,穿/tɕ ^h /	正齒3等	昌,穿/ts ^h /		正齒	昌,穿/tɕ ^h /	ㄍ	正齒3等	昌,穿/tɕ ^h /	ㄍ	正齒3等	昌,穿/tɕ ^h /	ㄍ	
	齒頭	從/dz ^h /	齒頭	從/ts ^h /	ㄍ	慈 ㄍ(ㄍ)	齒頭	從/dz ^h /	ㄍ	齒頭	從/dz ^h /	ㄍ	齒頭	從/dz ^h /	ㄍ
	正齒2等	崇,牀/dʒ ^h /	正齒2等	崇,牀/ts ^h /			正齒	牀/dʒ ^h /	ㄍ	正齒2等	崇,牀/dʒ ^h /	ㄍ	正齒2等	崇,牀/dʒ ^h /	ㄍ
	正齒3等	船,神/dz ^h /	正齒3等	船,神/ts ^h /			正齒	船,神/dz ^h /	ㄍ	正齒3等	船,神/dz ^h /	ㄍ	正齒3等	船,神/dz ^h /	ㄍ
	齒頭	心/s/	齒頭	心/s/	戍 ㄍ	齒頭	心/s/	ㄍ	齒頭	心/s/	ㄍ	齒頭	心/s/	ㄍ	
	正齒2等	生,疏/ʃ/	正齒2等	生,疏/s/		正齒	審/ʃ/	ㄍ	正齒2等	生,疏/ʃ/	ㄍ	正齒2等	生,疏/ʃ/	ㄍ	
	正齒3等	書,審/ɕ/	正齒3等	書,審/s/		正齒	書,審/ɕ/	ㄍ	正齒3等	書,審/ɕ/	ㄍ	正齒3等	書,審/ɕ/	ㄍ	
	齒頭	邪/z/	齒頭	邪/z/	邪 ㄍ	齒頭	邪/z/	ㄍ	齒頭	邪/z/	ㄍ	齒頭	邪/z/	ㄍ	
	正齒3等	禪/z/	正齒3等	禪/z/		正齒	禪/z/	ㄍ	正齒3等	禪/z/	ㄍ	正齒3等	禪/z/	ㄍ	
半齒	日 /n/	日 /ɾ/	日 /n/	日 /n/	穰 ㄍ	日 /n/	ㄍ	日 /n/	日 /n/	ㄍ	日 /n/	日 /n/	ㄍ		
喉音	影 /ʔ/	影 /ø/	影 /ʔ/	影 /ʔ/	挹 ㄍ	影 /ʔ/	ㄍ	影 /ʔ/	影 /ʔ/	ㄍ	影 /ʔ/	影 /ʔ/	ㄍ		
	曉 /x/	曉 /x/	曉 /x/	曉 /x/	虛 ㄍ	曉 /x/	ㄍ	曉 /x/	曉 /x/	ㄍ	曉 /x/	曉 /x/	ㄍ		
	匣 /ɣ/	匣 /x/	匣 /ɣ/	匣 /ɣ/	洪 ㄍ	匣 /ɣ/	ㄍ	匣 /ɣ/	匣 /ɣ/	ㄍ	匣 /ɣ/	匣 /ɣ/	ㄍ		
	喻 /ø/	喻 /ø/	喻 /ø/	喻 /ø/	欲 ㄍ	喻 /ø/	ㄍ	喻 /ø/	喻 /ø/	ㄍ	喻 /ø/	喻 /ø/	ㄍ		
爲 /ɣ/	爲 /ø/	爲 /ɣ/	爲 /ø/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 중 칠음(七音)은 아음(牙音)·설음

(舌音)·순음(唇音)·치음(齒音)·후음(喉音)·반치음(半齒音)·반설음(半舌音)이다. 설음(舌音), 순음(唇音), 치음(齒音)은 세부적으로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중순음(重唇音)과 경순음(輕唇音), 정치음(正齒音)과 치두음(齒頭音), 더 나아가 정치음(正齒音)은 정치(正齒) 이등(二等)과 정치(正齒) 삼등(三等)으로 나누었다. 사성칠음 중 사성(四聲)은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한자음의 1·2·3·4등자(等字)와 개구(開口)와 합구(合口)도 제시할 것이다. 여기의 등(等), 개구(開口), 합구(合口)라는 것은 개모(介母) 즉 한국어의 반모음 /i/나 /j/와 관련하여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성운학(聲韻學)의 등(等)·개구(開口)·합구(合口)⁵⁴⁾

董同龢氏說-中古音系				
	1等	2等	3等	4等
開口	a	a	jæ	iɛ
合口	ua	ua	juæ	iuɛ
藤堂氏說				
①漢語中古音의 韻系				
開口	1等	介母無, 核母音이 약간 넓은 모음		
	2等			
	3等	介母 /j/, 핵모음이 약간 좁은 모음		
4等				
合口	1等	介母 /w/, 核母音이 약간 넓은 모음		
	2等			
	3等	介母 /jw/, 核母音이 약간 좁은 모음		
4等				
②近世中國語의 韻系				
開口	1等	開口呼(介母無)	1等	齊齒呼(介母 /j/)
	2等		2等	
合口	3等	合口呼(介母 /w/)	3等	撮口呼(介母 /jw/)
	4等		4等	

<표 4>에 따라 개구(開口)와 합구(合口)의 구별이란 /w·/j·/jw/(또는 /u·/i·/j/) 등 개모(介母)만의 구별이 아니라 핵모음이 /u·/i·/j/나에 따르는 구별도 되는 것이다. 등(等)에 대해 설두음(舌頭音)은 1·4등(等), 설상음(舌上音)은 2·3등(等)에 출현하고, 치두음(齒頭音)은 1·4등(等), 정치음(正齒音)은 2·3등(等)에 나타난 것이 일반적이다(김태경 2005:153). 한국어 ㄷ구개음화의 발생 환경은 /i/나 /j/이며 성운학(聲韻學)의 측면으로 보면 설음(舌音)계의 3등(等)과 4등(等)에 속한 한자음들이다.

54)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46-447쪽을 참조.

Ⅲ. 자전류 문헌에 구개음화 관련 한자음 현황

1. 대상 문헌 한자음의 음운 체계

『전운옥편』에 수록된 사례(字例)를 정리하여 주음(注音)의 초성 /ㄱ, ㄷ, ㅈ, ㅊ/에 해당하는 글자를 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로부터 해당 글자의 구개음화 현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수록된 『전운옥편』은 다섯 판본이 있는데 아쉽지만 초간본(初刊本)이 아닌 중간본(重刊本)이나 재간본(再刊本)이다. 가장 최초의 판본은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조(正祖)시기에 편찬된 판본이다. 판본에 따라 수록된 글자 수도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강신항(1993) 『奎章全韻 全韻玉篇』을 기준으로 통계하여 수록된 한자 수는 총 10,977자이다. 이 10,977자 중 중복된 글자도 존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음 변화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음을 한국어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전운옥편』 한자음의 음운 체계 및 수록 글자수 상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총계
ㅏ	243	40	169	125	103	159	112	166	98	158	×	120	62	189	1,744
ㅑ	31	9	1	1	3	×	1	26	×	11	×	6	26	2	117
ㅓ	4	2	×	26	1	×	67	72	75	35	×	×	×	11	293
ㅕ	106	×	4	2	×	59	2	86	1	1	1	×	1	31	294
ㅗ	8	×	×	×	×	×	1	8	×	×	×	1	×	1	19
ㅛ	193	45	152	166	62	111	219	213	231	142	×	40	32	118	1,724
ㅜ	37	×	35	8	2	×	15	60	29	15	×	26	17	25	269
ㅡ	195	32	169	107	81	98	72	132	108	42	×	24	62	126	1,248
ㅚ	123	2	×	×	×	×	6	47	12	5	×	×	×	139	334
ㅘ	12	×	×	×	×	×	5	6	×	6	4	×	×	7	40
ㅙ	×	×	×	×	×	×	×	×	×	×	×	×	×	1	1

55) <표 5>의 글자 수는 강신항(1993) 『奎章全韻 全韻玉篇』을 근거로 통계하였다.

ㄱ	1	×	×	×	×	×	×	×	×	×	×	×	×	×	1
ㄴ	49	8	×	22	×	×	3	17	2	16	×	12	×	72	201
ㄷ	77	12	38	42	19	×	75	121	40	76	×	8	42	41	591
ㄹ	173	12	62	27	88	173	32	104	45	28	×	14	13	59	830
ㅁ	×	×	×	×	×	×	×	×	×	×	×	×	×	1	1
ㅂ	29	×	×	×	×	×	×	62	×	×	×	×	×	13	104
ㅅ	×	×	×	×	×	×	×	1	×	×	×	×	×	×	1
ㅇ	26	×	×	×	×	×	×	×	×	×	×	×	×	12	38
ㅈ	1	×	×	×	×	×	×	×	×	×	×	×	×	×	1
ㅊ	9	×	×	3	×	×	×	61	×	1	×	×	×	13	87
ㅋ	57	12	×	83	×	×	184	166	88	114	×	×	2	31	737
ㆁ	×	×	×	×	×	×	×	×	×	17	×	×	×	×	17
ㅡ	99	2	×	22	6	9	35	68	49	18	×	5	3	38	354
ㅣ	107	×	×	×	×	×	10	52	×	9	×	×	×	37	215
ㅣ	37	22	3	100	82	171	151	180	187	114	×	1	51	9	1,108
·, ㅿ	53	3	30	7	51	54	114	43	124	48	×	23	15	43	608
총계	1670	201	663	741	498	834	1104	1691	1089	856	5	280	326	1019	10,977 ⁵⁶⁾

위의 <표 5>에서와 같이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는 총 10,977자이다. 이를 한국어 자음 체계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면 초성 /ㄱ/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한자 수는 1,670자이고, 초성 /ㄴ/는 201자이다. 또, 초성 /ㄷ/는 663자, 초성 /ㄹ/는 741자, 초성 /ㅇ/ 주음(注音)은 498자, 초성 /ㅁ/ 주음(注音)은 834자, 초성 /ㅂ/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한자는 1,104자이다. 또, 초성 /ㅇ/ 주음(注音)은 1,691자, 초성 /ㅅ/ 주음(注音)은 1,089자, 초성 /ㅈ/ 주음(注音)은 856자, 초성 /ㅋ/ 주음(注音)은 5자, 초성 /ㅌ/ 주음(注音)은 280자, 초성 /ㅍ/ 주음(注音)은 326자, 초성 /ㅎ/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한자는 1,019자이다. 이러한 분류는 규범음⁵⁶⁾을 기준으로 계량화한 것인데, 현대한국어의 경음에 해당하는 /ㄱ, ㄴ, ㅁ, ㅂ, ㅅ, ㅈ/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물론, 현대한국어에도 한자음 가운데 초성이 경음으로 시작하는 예는 거의 없지만⁵⁷⁾ 『전운옥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계의 편리상

56) 이준환(2014:19)은 “『全韻玉篇』에 실려 있는 한자음으로 規範音, 正音, 俗音의 모습을 알 수 있다. 規範音은 漢字 바로 아래에 아무 표시 없이 제시되어 있는 ‘一일, 七칠’과 같은 음이고, 正音은 ‘述준正둔, 埤훤正훈’과 같이 제시되어 있는 음이고, 俗音은 ‘姬기俗희, 擻치俗리’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漢字音이다. 이 중 規範音은 『奎章全韻』의 음과 같은 것이고, 正音은 『奎章全韻』과 『華東正音通釋韻考』의 한자음이 다를 경우에 『華東正音通釋韻考』의 漢字音을 실어 놓은 것으로, 『華東正音通釋韻考』의 한자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俗音은 약 620자가 실려 있는데, 앞서 언급한 『華東正音通釋韻考』의 俗音과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全韻玉篇』에 실린 俗音과 『華東正音通釋韻考』에 실린 俗音을 현실 한자음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거나, 한자음 변화의 원인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거나, 東音의 층위를 연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했다.

57) 주지하듯이 ‘꺃(喫), 쌍(雙), 씨(氏)’ 정도가 있을 뿐이다.

으로 인하여 이런 분류 방식은 엄격하게 하나의 초성만에 해당하는 한자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밑에 첫 주음(注音) 즉 규범음을 기준으로 통계하였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車: 거 輅也輿輪總名(車) 차 義同姓也(車) <전운옥편 下卷 49a>

鈷: 검 大犁(車)鈴通 텃 鐵鈷(車) <전운옥편 下卷 55b>

위의 예를 보면 ‘車’의 주음(注音)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거’는 규범음이고 ‘차’는 이음(異音)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취급하는 한자음은 주로 규범음 즉 ‘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주음(注音)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鈷’의 주음(注音)도 두 가지가 있으며 ‘검’은 규범음이고 ‘텃’은 이음(異音)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鈷’은 초성 / ㄱ / 주음(注音)에 해당하는 계열에 속한다. 하지만 ‘鈷’의 이음(異音)으로 된 ‘텃’은 한국어 구개음화의 실현 조건에 만족하여 구개음화 양상을 분석할 때는 다시 ㄷ구개음화 계열에 귀속하여 고찰하기도 한다.

또한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은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 주음(注音)이 두 개나 더 이상일 경우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전운옥편』 정음(正音)과 속음(俗音)을 연구할 때 한자의 주음(注音)이 ‘X正Y’하고 ‘X俗Y’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길경 외(2021)에 따르면 ‘X’음은 『규장전운』의 규범음이고⁵⁸⁾ 위의 ‘車’와 ‘鈷’과 같이 ‘X’음은 바로 ‘거’와 ‘검’이다. ‘正Y’의 Y음은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음을 반영하고 있고 ‘俗Y’의 Y음은 당시 한국의 시음(時音)을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자 주음(注音)을 통계할 때 ‘X음’의 초성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어 구개음화의 실현 조건에 만족하면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X正Y’와 ‘X俗Y’의 한자 주음(注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跣: 년正년 踐也(跣)躡同 <전운옥편 下卷 47b>

聶: 녀俗녜 附耳私語姓也 躒 同躒(聶) <전운옥편 下卷 24b>

58) 이길경 외(2021), 『『全韻玉篇』漢字音의 正音 연구-牙·舌·脣音의 聲母를 중심으로-』, 『중국어연구』 제98집, 4쪽.

‘車’와 ‘鋤’과 마찬가지로 ‘跹’과 ‘聶’의 주음(注音)은 초성 /ㄴ/계열에 속하지만 ‘跹’의 정음 ‘던’과 ‘聶’의 이음 ‘접’은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례를 모아서 분석하겠다.

<표 5>를 보면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은 총 14개의 자음과 28개의 모음이 포함되어 있다. ‘×’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전석요』에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자전석요』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 상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ㅅ	ㅆ	ㅈ	ㅊ	총계
ㅏ	√	√	√	√	√	√	√	√	√	√	×	√	√	√	√	√	√	√	-
ㅑ	√	√	√	√	√	×	√	√	×	√	×	√	√	√	×	×	×	×	-
ㅓ	√	√	×	√	√	×	√	√	√	√	×	×	×	√	×	×	×	×	-
ㅕ	√	×	√	√	×	√	√	√	√	√	√	×	√	√	×	×	×	×	-
ㅗ	√	×	×	×	×	×	√	√	×	×	×	√	×	√	×	×	×	×	-
ㅛ	√	√	√	√	√	√	√	√	√	√	×	√	√	√	×	×	√	×	-
ㅜ	√	×	√	√	√	×	√	√	√	√	×	√	√	√	×	×	×	×	-
ㅠ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ㅝ	√	×	×	×	×	×	×	×	×	×	×	×	×	√	×	×	×	×	-
ㅞ	√	×	×	×	×	×	×	×	×	×	×	×	×	√	×	×	×	×	-
ㅟ	√	×	×	×	×	×	×	×	×	×	×	×	×	√	×	×	×	×	-
ㅠ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ㅢ	×	×	×	×	×	×	×	×	×	√	×	×	×	×	×	×	×	×	-
ㅣ	√	×	×	×	×	×	×	×	×	×	×	×	×	√	×	×	×	×	-
ㅤ	√	×	×	×	×	×	×	×	×	×	×	×	×	×	×	×	×	×	-
ㅥ	√	×	×	×	×	×	×	×	×	×	×	×	×	√	×	×	×	×	-
ㅦ	√	×	×	√	×	×	×	√	×	√	×	×	×	√	√	×	×	×	-
ㅧ	√	√	×	√	×	×	√	√	√	√	×	×	√	√	×	×	×	×	-
ㅨ	√	×	×	×	×	×	√	√	×	√	×	×	×	√	×	×	×	×	-
ㅩ	√	√	√	√	√	√	√	√	√	√	×	√	√	√	√	×	×	×	-
ㅪ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16,295 ⁵⁹⁾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전석요』에 수록된 한자는 총 16,295자이다. 『자전석요』의 한자 주음(注音)은 총 19개의 자음과 28개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표 6>을 보면 『자전석요』의 자음은 『전운옥편』보다 훨씬 풍부하며 많이 나타난다. 이는 근대 및 개화기 시기에 한국어의 자음은 /쓰/인 각자병서와 /시, 시, 써, 쓰/ 등의 합용병서가 과도하게 출현되었는데, 그래서 『자전석요』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한다. 하지만 『신자전』의 음운 체계에는 근대 및 개화기 시기의 한국어 특색도 보인다.

<표 7> 『신자전』 수록된 한자음의 음운 체계 상황⁶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시	시	써	쓰	쓰	총계
ㅏ	√	√	√	√	√	√	√	√	√	√	×	√	√	√	√	√	√	√	√	-
ㅑ	√	√	√	√	√	×	√	√	×	√	×	√	√	√	×	×	×	×	×	-
ㅓ	√	√	×	√	√	×	√	√	√	√	×	×	×	√	×	×	×	×	×	-
ㅕ	√	×	√	√	×	√	√	√	√	√	√	×	√	√	×	×	×	×	×	-
ㅗ	√	×	×	×	×	×	√	√	×	×	×	√	×	√	×	×	×	×	×	-
ㅛ	√	√	√	√	√	√	√	√	√	√	×	√	√	√	×	×	×	×	×	-
ㅜ	√	×	√	√	√	×	√	√	√	√	×	√	√	√	×	×	×	×	×	-
ㅠ	√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
ㅚ	√	√	×	×	×	×	√	√	√	√	×	×	×	√	×	×	×	×	×	-
ㅜ	√	×	×	×	×	×	√	√	√	√	×	×	×	√	×	×	×	×	×	-
ㅝ	√	×	×	×	×	×	×	×	×	×	×	×	×	×	×	×	×	×	×	-
ㅞ	√	×	×	×	×	×	×	×	×	×	×	×	×	×	×	×	×	×	×	-
ㅟ	√	×	×	×	×	×	×	×	×	×	×	×	×	×	×	×	×	×	×	-
ㅠ	√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

59) <표 6>의 글자 수는 지식영(1909) 『자전석요』를 근거로 통계하였다.
 60) <표 6>와 <표 7>에 제시한 『자전석요』와 『신자전』에 수록된 모든 한자 차례 및 대응한 한자음은 시간상의 관계로 인해 일일이 통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의 연구 과제로 더 세밀한 고찰을 하여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표의 ‘√’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6>과 <표 7>을 통해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시대적 음운 체계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다.
 61) <표 7>의 글자 수는 조선광문회(1919) 『신자전』을 근거로 통계하였다.



ㅍ	√	√	×	√	×	×	√	√	√	√	×	×	√	√	×	×	×	×	×	-
ㅑ	×	×	×	×	×	×	×	×	√	×	×	×	×	×	×	×	×	×	×	-
ㅡ	√	√	×	√	√	√	√	√	√	×	√	√	√	√	×	×	×	×	-	
ㄴ	√	×	×	×	×	×	√	√	×	√	×	×	×	√	×	×	×	×	-	
ㅣ	√	√	√	√	√	√	√	√	√	×	√	√	√	√	×	×	×	×	-	
ㅏ, ㅑ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13,084 ⁶¹⁾	

<표 7>의 『신자전』의 음운 체계는 『자전석요』와 일치하며 수록 한자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지만 20세기 초의 자음 특색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자전』의 한자음 체계는 자전류 문헌의 규범적인 발음도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당시 한자음의 현실 발음도 고려해야 한다.

2. 대상 문헌 구개음 환경의 한자음 양상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 가운데 구개음화와 관련된 한자음의 통계도 필요하다. 즉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구개음화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ㄷ>ㅌ, ㅌ>ㅊ’,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은 ‘ㅌ>ㄷ, ㅊ>ㅌ’ 등으로 볼 수 있다(배영환 2020:63). 또, 구개음화의 발생 환경은 /i, j/ 앞이다. 그러므로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 가운데 구개음화 실현 조건에 만족하는 한자의 분포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 가운데 ‘ㄷ, ㅌ, ㅌ + i, j’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 수록 한자의 구개음화 관련 상황

	ㅌ	ㅊ	ㅌ	ㅌ	ㅣ	ㅌ	총계
ㄷ	다	더	도	듀	디	데	257
	0	170	41	2	6	38	
ㅌ	타	터	토	튜	티	테	81
	0	44	9	0	0	28	
ㅌ + i, j	자	저	조	जू	지	제	

62) ‘ㅌ+ ㅌ’ 계열의 ‘ㅌ’와 ‘ㅌ+ ㅣ’ 계열의 ‘जू’는 『전운옥편』에서 두 번 중복되었으므로 <표 8>에 해당 두 글자를 제외하여 제시한다. 아래 내용에서도 1,595자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80	252	44	101(100)	193	39	708
ㅈ	차	쳐	초	추	치	체	
	36	159	91	131	117(116)	16	549
총계	116	625	187	232	316	121	1,595 ⁶²⁾

<표 8>은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주음(注音) 가운데 한국어의 구개음화 실현 환경과 관련되는 한자를 계량화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어 구개음화의 실현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는 1,595자를 확인하였다⁶³⁾. 이 가운데 ‘ㄷ+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257자이다. 또, ‘ㅌ+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81자이다. 이들은 구개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과 관련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른 시기의 문헌들의 한자음과 대조하면서 검토해봐야 한다⁶⁴⁾. 이와 달리 ‘ㅈ+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708자로 나타나고 ‘ㅉ+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는 549자로 확인된다. 초성 /ㅈ/이나 /ㅉ/로 표기된 한자음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구개음화 현상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는지 또는 과도교정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과 대비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을 수록해 놓은 권인한(2009)과 남광우(1995)를 중심으로 수록된 한자들과 비교하여 구개음화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권인한(2009)은 15세기와 16세기의 언해서, 초학서(初學書) 등을 대상으로 한자음을 종합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시 해당 자료에 수록된 한자는 5,340여 자 정도라서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수와도 차이가 있다. 또, 『전운옥편』의 한자는 한국어에서 자주 쓰지 않는 것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전운옥편』의 수록된 한자 전부를 대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확인 가능한 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 8>에 제시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의 주음(注音) 상황도 확인하여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63) <표 7>과 <표 8>에 제시된 수치는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표 7>의 수치에는 『전운옥편』의 모든 한자를 제시하였으며 <표 8>에서는 중복된 글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64) <표 8>의 ‘ㄷ+i, j’ 환경에 있는 257개의 한자음과 ‘ㅌ+i, j’ 환경에 있는 81개의 한자음은 구개음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3. 중세한국어 시기 한자음과의 대조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1,595개의 한자를 기준으로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서의 주음(注音)은 각자 어떤 상황인지 이 사례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다시 <표 8>을 근거하여 『전운옥편』에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이 1,595자의 한자음을 환경별로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1) ㄷ+i, j 해당 예 총 257자: ㄷ+i 6자, ㄷ+j 251자
- 2) ㅌ+i, j 해당 예 총 81자: ㅌ+i 0자, ㅌ+j 81자
- 3) ㅈ+i, j 해당 예 총 708자: ㅈ+i 92자, ㅈ+j 616자
- 4) ㅊ+i, j 해당 예 총 549자: ㅊ+i 117자, ㅊ+j 432자

위에 제시한 글자 중 중세시기 한국 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는 730자가 있다. 아래는 확인할 수 있는 730자를 전제로 대조하면서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는 730자를 확인하였다⁶⁵⁾. 아래는 한국어 음운구조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표 9> 초성 및 중성 구조가 ㄷ+ㄱ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字典釋要』	『新字典』	漢語中古音	擬音
----	-----	--------	--------	-------	-------	----

- 65) 자료마다 수록된 글자 수도 다르고 같은 글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본 논문에서 권인한(2009) 및 남광우(1995)에서 수록된 중세음을 참고 기준으로 하되 『전운옥편』에 수록된 해당 글자와 비교하여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의 시대적 변천과 완성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66)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표에 제시된 『전운옥편』 주음은 한자 사례 바로 밑에의 자음 즉 규범음을 취하고, 그 외에 구개음 환경과 관련된 정음(正音)이나 속음(俗音), 이음(異音) 등을 몇몇도 취한다. 『자전석요』 주음은 원음(原音) 즉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시음(時音) 즉 당시 한자의 현실 발음을 취한다. 『신자전』 주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거의 『전운옥편』 주음과 일치하게 제시한다.
- 67) <표 9>의 ‘顛’은 개합(開合)과 등(等)을 확인할 수 없어 빈칸으로 표시한다. 아래 표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똑같이 빈칸으로 표시한다.
- 68) <표 9>의 ‘殄, 迭, 跌, 埵, 經, 蠶’은 『전운옥편』 주음이 ‘X俗Y’로 표시하고 X는 규범음이고 俗Y의 Y는 당시의 현실 발음이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注音	原音/俗音 ⁶⁶⁾	注音		
砥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砥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低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詆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邸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抵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抵	더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ɛi
氏	더	더	더/저	더	知開三全清	tʃei
覲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的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鐫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逖	덕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 ^h iek
迪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荻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敵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苜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ɛk
鞞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糴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趨	덕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 ^h iek
滴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狄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嫡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笛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翟	덕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躋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適	덕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腆	던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巔	던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覲	던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畋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顛	던	던	던/전	던	端 全清 ⁶⁷⁾	tien
電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奠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殿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典	던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癩	던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淀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田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甸	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殄	던	던俗딘 ⁶⁸⁾	던/전, 딴/진	던俗딘	定開四全濁	d ^h iɛn
迭	덜	덜俗딜	덜/절, 딜/질	덜俗딜	定開四全濁	d ^h iɛt
跌	덜	덜俗딜	덜/절, 딜/질	덜俗딜	定開四全濁	d ^h iɛt
埵	덜	덜俗딜	덜/절, 딜/질	덜俗딜	定開四全濁	d ^h iɛt
經	덜	덜俗딜	덜/절, 딜/질	덜俗딜	定開四全濁	d ^h iɛt
耨	덜	덜俗딜	덜/절, 딜/질	덜俗딜	定開四全濁	d ^h iɛt
簞	덤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坩	덤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點	덤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em
塾	덤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em
店	뎡	뎡	뎡/점	뎡	端開四全清	tiem
鮎	뎡	뎡	뎡/점	뎡	泥開四次濁	niem
蝶	뎡	뎡	뎡/점	뎡	透開四次清	tʰiɛp
楪	뎡	뎡	뎡/점	뎡	以開三次濁	0jæp
庭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ɛŋ
釘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亭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ɛŋ
汀	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ɛŋ
艇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ɛŋ
訂	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ɛŋ
鞞	뎡	뎡	뎡/정	뎡	透開四次清	tʰiɛŋ
挺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ɛŋ
蜓	뎡	뎡, 뎡	뎡/정, 전	뎡, 뎡	定開四全濁	dʰiɛŋ(dʰiɛn)
頂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鼎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廷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ɛŋ
疔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ɛŋ
釘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定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停	뎡	뎡	뎡/정	뎡	定開四全濁	dʰiɛŋ
頰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丁	뎡	뎡	뎡/정	뎡	端開四全清	tien

<표 9>에 제시된 7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ㄱ’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ㄱ, ㄷ+ㄱ, ㄷ+ㄴ, ㄷ+ㄴ, ㄷ+ㄴ, ㄷ+ㄴ, ㄷ+ㄴ’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자전석요』에서의 원음(原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지만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보다 간행 시기가 몇 년 늦은 『신자전』은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거쳐야 되지만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9>에 제시된 글자들이 대부분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32개, 투모자(透母字) 8개, 정모자(定母字) 29개,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가 있다. 설두음(舌頭音) 계열의 니모(泥母)와 아음(牙音) 계열의 이모자(以母字)가 각각 1개가 있다. 한어중고음에 따라 개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삼등자(三等字)나 사등자(四等字)이다. <표 9>의 한자음은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도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9>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글자들은 대부분은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한다. 문헌의 간행 시기를 참고하여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서 설두음자(舌頭音字)의 구개음화 실현은 최초 18세기 말기 이후 20세기 초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⁶⁹⁾.

<표 1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ㅛ인 자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眺	도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雕	도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ieu
蝟	도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eu
彫	도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ieu
條	도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eu
鷗	도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ieu
烏	도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ieu
糶	도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凋	도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ieu
篠	도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鯨	도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eu
釣	도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ieu
弔 ⁷⁰⁾	도	도, 더	도/조	도, 더	端開四全清	tiieu
銚	도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調 ⁷¹⁾	도	도, 쥬	도/조, 도	도, 쥬	定開四全濁	d ^h ieu

<표 10>에 제시된 15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ㅛ’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한자음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어 중세음과 대조해 보면 『전운옥편』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전석요』에서의 원음(原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지만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전』의 한자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69) 19세기에 간행된 옥편과 자전류 문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석류 문헌에 수록된 한자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갑오천자문(1894)에서 ‘天(텨), 地(디), 宙(듀), 張(당), 調(도), 致(티), 玆(딘), 重(둥), 帝(데), 鳥(도), 弔(도), 朝(도), 體(테), 場(당), 貞(딩), 傳(던), 聽(팅), 澄(딩), 籍(덕), 弟(테), 顛(던), 逐(톡), 持(디), 殿(던), 帳(당), 轉(던), 典(던), 且(도), 丁(딩), 趙(도), 亭(딩), 田(던), 池(디), 庭(딩), 黜(툐), 直(딕), 中(둥), 寵(통), 的(딕), 抽(튜), 條(도), 彫(도), 適(딕), 腸(당), 晝(듀), 嫡(딕), 牒(던), 牒(텨), 釣(도), 眺(도)’ 등 한자음들은 19세기 말경에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하여 자석류 한자음 구개음화의 확산 속도가 19세기 동안에 아주 느린 정도로 진행하고 있음을 추정한다.

70) <표 10>의 ‘弔’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도’는 규범음이고, ‘더’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1) <표 10>의 ‘調’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도’는 규범음이고, ‘쥬’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0>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7개, 투모자(透母字) 4개, 정모자(定母字) 4개가 있다. <표 10>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서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0>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글자들은 모두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한다. 하지만 <표 9>와 같이 <표 10>의 한자음들도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에 이르러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ㄷ+ㅛ’에 해당하는 이 한자음들도 설두음(舌頭音)에 속하여 구개음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舐	디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z ^h je
地	디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 ^h jei

<표 11>에 제시된 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ㅣ’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한자음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어 중세음과 대조해 보면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전석요』에서의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석요』보다 간행 시기가 더 늦은 『신자전』은 여전히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1>에 제시된 2글자가 하나는 설음(舌音) 계열의 정모(定母)에 속하고 하나는 정치음(正齒音) 계열의 선모(船母)에 속한다.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도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표 11>에 있는 두 글자도 『전운옥편』에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까지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의 간행 시기를 참고하여 이 글자들의 구개음화 실현도 최초 18세기 말기 이후 20세기 초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표 1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ㅞ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	-----	--------------	-----------------	-------------	-------	----

稊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題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踰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帝	데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梯	데	데	데/제	데	透開四次清	t ^h iei
弟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醜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娣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第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悌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堤	데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鵜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啼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蹄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緋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提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萑	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표 12>에 제시된 1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ㄹ’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글자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으며 중세음과 대조해 보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에서의 시음(時音)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전석요』보다 간행 시기가 더 늦은 『신자전』은 여전히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2>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투모자(透母字) 1개, 정모자(定母字) 14개가 있다. 한어중고음에 따라 개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삼등자(三等字) 혹은 사등자(四等字)이다. <표 12>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도 사등자(四等字)로 속하여 구개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10>과 같이 <표 12>의 글자들은 모두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여 구개음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ㄹ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蜴	턱	턱	턱/척	턱	以開三次濁	0jek
剔	턱	턱	턱/척	턱	透開四次清	t ^h iek
倜	턱	턱	턱/척	턱	透開四次清	t ^h iek
滌	턱	턱	턱/척	턱	定開四全濁	d ^h iek

惕	惕	惕	惕/척	惕	透開四次清	t ^h iek
天	턴	턴	턴/천	턴	透開四次清	t ^h iɛn
養	털	털	털/철	털	透開四次清	t ^h iɛt
鐵	털	털	털/철	털	透開四次清	t ^h ɛt
聒	텀	텀	텀/침	텀	定開四全濁	d ^h iɛm
舔	텀	텀	텀/침	텀	透 次清	t ^h iɛm
添	텀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 ^h iɛm
添	텀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 ^h iɛm
餽	텀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 ^h ɛm
帖	텃	텃	텃/첩	텃	透開四次清	t ^h iɛp
貼	텃	텃	텃/첩	텃	透開四次清	t ^h iɛp
牒	텃	텃	텃/첩	텃	定開四全濁	d ^h iɛp
疊	텃	텃	텃/첩	텃	端 全清	tiep
聽	팅	팅	팅/청	팅	透開四次清	t ^h iɛŋ

<표 13>에 제시된 1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ㄷ’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ㅌ+ㄷ, ㅌ+ㄷ, ㅌ+ㄷ, ㅌ+ㄷ, ㅌ+ㄷ, ㅌ+ㄷ’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까지의 시음(時音)을 보면 이 한자음들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注音)과 같아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3>에 제시된 글자들이 대부분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투모자(透母字) 13개, 정모자(定母字) 3개가 있다. 이 외에 아음(牙音) 계열의 이모자(以母字)가 한 개가 있다. 이 한자음들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 환경에 해당되어 구개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13>의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글자들은 대부분은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이 한자음들도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여 구개음화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ㄷ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齧	톈	톈	톈/초	톈	端開四全清	tɕu

72) <표 14>의 ‘齧’은 『전운옥편』 주음이 X正Y로 표시하고 X는 규범음이고 正Y의 Y는 『화동정음통석운고』에 주음된 정음 즉 화음(華音)을 승계한 것이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貂	톈	톈	톈/초	톈	端開四全清	tiɛu
髑 ⁷²⁾	툇	독正툇	툇/츙	독正툇	定合一全濁	d ^h uk

<표 14>에 제시된 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ㅟ’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ㅟ, ㄷ+ㅞ’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을 보면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전』의 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었음을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4>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상음(舌上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다. /j/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 사등자(四等字)에 속하는데 ‘髑’자는 일등자(一等字)에 속한다. ‘髑’은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설음(舌音)계의 합구 세음자(細音字)가 아니므로 구개음화 발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전석요』까지는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설음(舌音)계의 한자음 구개음화는 고정된 조건 이외의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한다고 알 수 있다. 나머지 2글자도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지만 『신자전』에는 한자음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볼 수 없고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과도교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위의 『자전석요』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들도 설상음(舌上音)이 아닌 설두음(舌頭音)에 속한다.

<표 1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ㅟ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蝦	테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iɛi
涕	테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 ^h iɛi
締	테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 ^h iɛi
禡	테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 ^h iɛi
髭	테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 ^h iɛi
諦	테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iɛi
替	테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 ^h iɛi
嚏	테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iɛi

73) <표 15>의 ‘睽, 逮, 棣’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테’는 규범음이고, ‘데, 티, 톨’은 각각 ‘睽, 逮, 棣’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遑	테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ei
體	테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ei
睇 ⁷³⁾	테	테, 데	테/체, 제	테, 데	透開四次清	t̥h̥iei
逮	테	테	테/체, 치	테	定開四全濁	dh̥iei
棧	테	테	테/체, 치	테	定開四全濁	dh̥iei

<표 15>에 제시된 1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체’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글자들이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으며 『전운옥편』 간행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규범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전』에는 똑같이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5>에 제시된 글자들이 모두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고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3개, 투모자(透母字) 4개, 정모자(定母字) 6개가 있다. 한어중고음에 따라 개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삼등자(三等字) 혹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표 15>의 한자음은 /i/ 환경에 해당되어 한어중고음에 사등자(四等字)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 환경이 되어 구개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하면 위 한자음들은 『전운옥편』에서는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에서는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자전』의 한자 규범음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동일하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없다.

<표 1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ㅈ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者	ㅈ	ㅈ	ㅈ/ㅈ	ㅈ	章開三全清	tɕja
柘	ㅈ	ㅈ	ㅈ/ㅈ	ㅈ	章開三全清	tɕja
赭	ㅈ	ㅈ	ㅈ/ㅈ	ㅈ	章開三全清	tɕja
這	ㅈ	ㅈ	ㅈ/ㅈ	ㅈ	疑開三次濁	njæ̃n
藉 ⁷⁴⁾	ㅈ	ㅈ, ㅈ	ㅈ/ㅈ	ㅈ, ㅈ	從開三全濁	dzʰja
炙	ㅈ	ㅈ, ㅈ	ㅈ/ㅈ	ㅈ, ㅈ	章開三全清	tɕja
姐	ㅈ	ㅈ俗저	ㅈ/ㅈ	ㅈ俗저	精開三全清	tsja
碓	ㅈ	ㅈ	ㅈ/ㅈ	ㅈ	清開三次清	tsʰjak

74) <표 16>의 ‘藉, 炙, 杓’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ㅈ, ㅈ, ㅈ’는 각각의 규범음이고, ‘ㅈ, ㅈ, ㅈ’은 각각 ‘藉, 炙, 杓’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綽	작	작	작/작	작	昌開三次清	tɕ ^h jak
灼	작	작	작/작	작	章開三全清	tɕjak
嚼	작	작	작/작	작	從開三全濁	dz ^h jak
雀	작	작	작/작	작	精開三全清	tsjak
爵	작	작	작/작	작	精開三全清	tsjak
勺	작	작	작/작	작	章開三全清	tɕjak
鵲	작	작	작/작	작	清開三次清	ts ^h jak
灼	작	작	작/작	작	章開三全清	tɕjak
杓	작, 표	표, 작	작/작, 표	표, 작	禪開三全濁	zjak
獐	장	장	장/장	장	章開三全清	tɕjan
漿	장	장	장/장	장	精開三全清	tsjan
羴	장	장	장/장	장	章開三全清	tɕjan
鏘	장	장	장/장	장	清開三次清	ts ^h jan
漿	장	장	장/장	장	精開三全清	tsjan
獎	장	장	장/장	장	精開三全清	tsjan
將	장	장	장/장	장	精開三全清	tsjan
匠	장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 ^h jan
章	장	장	장/장	장	章開三全清	tɕjan
孀	장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 ^h jan
蓄	장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 ^h jan
蔣	장	장	장/장	장	精開三全清	tsjan
掌	장	장	장/장	장	章開三全清	tɕjan
牆	장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 ^h jan
障	장	장	장/장	장	章開三全清	tɕjan
彰	장	장正창	장/장, 창	장正창	章開三全清	tɕjan
場	당	장	장/장	장	澄開三全濁	d ^h jan
丈	당	장	장/장	장	澄開三全濁	d ^h jan
杖	당	장	장/장	장	澄開三全濁	d ^h jan
長	당	장	장/장	장	知開三全清	tjan
張	당	장	장/장	장	知開三全清	tjan
腸	당	장	장/장	장	澄開三全濁	d ^h jan
仗	당	장	장/장	장	澄開三全濁	d ^h jan
帳	당	장正창	장/장, 창	장, 장正창	知開三全清	tjan

<표 16>에 제시된 4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ㅈ’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종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ㅈ, ㄷ+ㅈ, ㄷ+ㅇ’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 대조하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자전석요』에서의 원음(原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지만 시음(時音)에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전석요』보다 간행 시기 몇 년 늦은 『신자전』은 한자음의 구개음화를 거쳐야 되지만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승계하였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6>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8개, 청모자(淸母字) 3개, 중모

자(從母字) 6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인 장모자(章母字) 13개, 창모자(昌母字) 1개, 선모자(禪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징모자(澄母字) 5개가 있고 아음(牙音)인 의모자(疑母字) 1개가 있다. <표 16>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에 개구(開口)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터 초성에 /ʦ/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6>에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자음들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에 있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며 설두음자(舌頭音字)에 비해 일찍 이루어졌다.

<표 17> 초성과 중성 구조가 ʦ+ㄷ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翥	저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沮	저	저	저/저	저	精開三全清	tsjo
菹	저	저	저/저	저	莊開三全清	tʃjo
咀	저	저	저/저	저	精開三全清	tsjo
殖	저	저	저/저	저	莊合三全清	ʃiɔ
諸	저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蛆	저	저	저/저	저	精開三全清	tsjo
雖	저	저	저/저	저	清開三次清	tsʰjo
疽	저	저	저/저	저	清開三次清	tsʰjo
渚	저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杵	저	저	저/저	저	昌開三次清	tɕʰjo
苴	저	저	저/저, 차	저	精開三全清	tsjo
且	저	저	저/저, 차	저	精開三全清	tsjo
煮	저	저俗자	저/저, 차	저	章開三全清	tɕjo
勸	적	적	적/적	적	精開四全清	tsiek
踏	적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ek
積	적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ek
籍	적	적	적/적	적	從開三全濁	dzʰjek
寂	적	적	적/적	적	從開四全濁	dzʰiek
赤	적	적	적/적	적	昌開三次清	tɕʰjek

- 75) <표 17>의 ‘撰’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찬’은 규범음이고, ‘전’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76) <표 17>의 ‘蹠’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잔’은 규범음이고, ‘전’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77) <표 17>의 ‘鯖,菁’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정’은 규범음이고, ‘청’은 ‘鯖,菁’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78) <표 17>의 ‘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적’은 규범음이고, ‘덕’은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迹	적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ɛk
蹟	적	적	적/적	적	清開三次清	tsʰjɛk
跡	적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ɛk
蹟	적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ɛk
績	적	적	적/적	적	精開四全清	tsiek
積	적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ɛk
鐫	전	전	전/전	전	精合三全清	tsjuæn
鱸	전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n
舛	전	전	전/전	전	昌合三次清	tɕʰjuæn
鷗	전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n
湔	전	전	전/전	전	從開四全濁	dzʰiɛn
前	전	전	전/전	전	從開四全濁	dzʰiɛn
箭	전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ɛn
錢	전	전	전/전	전	從開三全濁	dzʰjæɛn
甄	전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n
顛	전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n
剪	전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ɛn
煎	전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ɛn
痊	전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ʰjuæn
全	전	전	전/전	전	從合三全濁	dzʰjuæn
戰	전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n
悛	전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ʰjuæn
鱣	전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n
翦	전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ɛn
燧	전	전	전/전	전	精開四全清	tsiɛn
箋	전	전	전/전	전	精開四全清	tsiɛn
旃	전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n
甄	전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n
專	전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n
剗	전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n
擅	전	선俗전	전/전, 선	선俗전	書開三全清	ɕjæn
撰 ⁷⁵⁾	전	찬, 전	전/전, 찬	찬, 전	崇合二全濁	dʒʰuan
跣 ⁷⁶⁾	전	잔, 전	전/전	잔, 전	精合三全清	tsjuen
截	절	절	절/절	절	從 全濁	dzʰiet
節	절	절	절/절	절	精開四全清	tsiet
竊	절	절	절/절	절	清開四次清	tsʰiet
癩	절	절	절/절	절	精開四全清	tsiet
絶	절	절	절/절	절	精合三全清	tsiuæt
稅	절	절	절/절	절	透合一次清	tʰuæt
拙	절, 졸	절俗졸	절/절, 졸	절俗졸	章合三全清	tɕjuæt
茁	졸, 절	굴正졸	절/절, 졸, 굴	굴正졸	知開三全清	tjet
疔	점	점	점/점	점	書開三全清	ɕjæɛm
占	점	점	점/점	점	章開三全清	tɕjæɛm
漸	점	점	점/점	점	精開三全清	tsjæɛm
僭	점	점正츰	점/점, 츰	점正츰	精開四全清	tsiɛm
苫	점	섬正점	점/점, 섬	섬正점	書開三全清	ɕjæɛm
接	접	접	접/접	접	精開三全清	tsjæɛp
接	접	접	접/접	접	精開三全清	tsjæɛp
淨	정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ɲ

井	정	정	정/정	정	精開三全清	tsjɛŋ
精	정	정	정/정	정	精開三全清	tsjɛŋ
睛	정	정	정/정	정	精開三全清	tsjɛŋ
政	정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鉦	정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旌	정	정	정/정	정	精開三全清	tsjɛŋ
正	정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征	정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靖	정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靜	정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晶	정	정	정/정	정	精開三全清	tsjɛŋ
整	정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穿	정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阱	정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情	정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鯖 ⁷⁷⁾	정	정, 청	정/정, 청	정, 청	章開三全清	tɕjɛŋ
菁	정	정, 청	정/정, 청	정, 청	精開三全清	tsjɛŋ
蜻	정	정正청	정/정, 청	정正청	清開四次清	tsʰiɛŋ
篠	더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ʰjo
筵	더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ʰjo
楮	더	저	저/저	저	徹開三次清	tʰjo
箸	더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貯	더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除	더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ʰjo
苧	더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ʰjo
猪	더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漕	더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杼	더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ʰjo
擣	더	저	저/저	저	徹開三次清	tʰjo
豬	더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儲	더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ʰjo
著	더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櫛	더	저	저/저	저	徹合三次清	tʰiɔ
謫	덕	적	적/적	적	澄開二全濁	dʰæk
摘 ⁷⁸⁾	덕	적, 덕	덕/적	적, 덕	知開二全清	tæk
傳	던	전	전/전	전	澄合三全濁	dʰjuæn
展	던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n
廛	던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n
馭	던	전	전/전	전	澄開三全濁	dʰjæn
纏	던	전	전/전	전	知合三全清	tjuæn
轉	던	전	전/전	전	澄開三全濁	dʰjɛŋ
禎	덩	정	정/정	정	澄開三全濁	dʰjɛŋ
蝗	덩	정	정/정	정	徹開三次清	tʰjɛŋ
楨	덩	정	정/정	정	知開三全清	tjɛŋ
鉉	덩	정	정/정	정	澄開二全濁	dʰɛŋ
楨	덩	정	정/정	정	徹開三次清	tʰjɛŋ
呈	덩	정	정/정	정	澄開三全濁	dʰjɛŋ
程	덩	정	정/정	정	澄開三全濁	dʰjɛŋ
檉	덩	정	정/정	정	徹開三次清	tʰjɛŋ

鄭	뎡	정	정/정	정	澄開三全濁	d ^h jeŋ
貞	뎡	정	정/정	정	知開三全清	tjeŋ
偵	뎡	정	정/정	정	徹開三次清	t ^h jeŋ
楨	뎡	징正정	정/정	징正정	澄開二全濁	d ^h eŋ

<표 17>에 제시된 12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ㄱ’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ㅈ, ㄷ+ㅊ, ㄷ+ㄱ, ㄷ+ㄴ, ㄷ+ㄷ, ㄷ+ㅌ, ㄷ+ㄴ, ㄷ+ㅇ’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ㄷ/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다만, <표 17>의 ‘摘’은 중세음에 ‘덕’으로 표시되었지만, 『전운옥편』에서 ‘적’과 ‘덕’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통해 ‘摘’은 이 시기에 구개음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 후의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가 완료된 상태로 나타난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7>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4개, 청모자(淸母字) 7개, 종모자(從母字) 1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1개, 창모자(昌母字) 3개, 서모자(書母字) 3개, 장모자(莊母字) 2개, 송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투모자(透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4개, 철모자(徹母字) 7개, 정모자(澄母字) 16개가 있다. <표 17>의 한자음은 /i/나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터 초성에 /ㄷ/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7>에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자음들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에 있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1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ㅛ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酬	ㅈ	ㅈ	ㅈ/ㅈ	ㅈ	精開三全清	tsjæu
詔	ㅈ	ㅈ	ㅈ/ㅈ	ㅈ	章開三全清	tɕjæu
照	ㅈ	ㅈ	ㅈ/ㅈ	ㅈ	章開三全清	tɕjæu
足 ⁷⁹⁾	ㅈ	주, ㅈ	ㅈ/ㅈ	주, ㅈ	精合三全清	tsjuok
踵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oŋ
種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oŋ
鍾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oŋ
終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ŋ
蟲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ŋ
腫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oŋ
鐘	ㅈ	ㅈ	ㅈ/ㅈ	ㅈ	章合三全清	tɕjuoŋ
蹤	ㅈ	ㅈ	ㅈ/ㅈ	ㅈ	精合三全清	tsjuoŋ
從 ⁸⁰⁾	ㅈ	ㅈ, ㅈ	ㅈ/ㅈ, ㅈ	ㅈ, ㅈ	清合三次清	ts ^h juoŋ
縱 ⁸¹⁾	ㅈ	ㅈ, ㅈ	ㅈ/ㅈ, ㅈ	ㅈ, ㅈ	精合三全清	tsjuoŋ
潮	ㅈ	ㅈ	ㅈ/ㅈ	ㅈ	澄開三全濁	d ^h jæu
肇	ㅈ	ㅈ	ㅈ/ㅈ	ㅈ	澄開三全濁	d ^h jæu
趙	ㅈ	ㅈ	ㅈ/ㅈ	ㅈ	澄開三全濁	d ^h jæu
兆	ㅈ	ㅈ	ㅈ/ㅈ	ㅈ	澄開三全濁	d ^h jæu
朝	ㅈ	ㅈ	ㅈ/ㅈ	ㅈ	知開三全清	tjæu
晔	ㅈ	ㅈ	ㅈ/ㅈ	ㅈ	澄開三全濁	d ^h jæu

<표 18>에 제시된 20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ㅛ’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ㅛ, ㅈ+ㅜ, ㅈ+ㅞ’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8>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4개, 청모자(淸母字) 1개가 있고 장모자(章母字) 9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 징모자

79) <표 18>의 ‘足’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주’는 규범음이고, ‘ㅈ’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0) <표 18>의 ‘從’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ㅈ’은 규범음이고, ‘ㅈ’은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1) <표 18>의 ‘縱’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ㅈ’은 규범음이고, ‘ㅈ’은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澄母字) 5개가 있다. <표 18>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터 초성에 /ʒ/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8>의 한자음 중 구개음화가 발생한 한자음들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에 속한다고 확인하였다.

<표 19> 초성과 중성 구조가 ʒ+ɲ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酌	쥬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州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珠	쥬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朱	쥬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酒	쥬	쥬	쥬/주	쥬	精開三全清	tsju
舟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主	쥬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賙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周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洲	쥬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粥	죽	죽	죽/죽	죽	章合三全清	tɕjuk
蠱	준	준	준/준	준	昌合三次清	tɕ ^h juen
踰	준	준	준/준	준	昌合三次清	tɕ ^h juen
逡	준	준	준/준	준	清合三次清	ts ^h juen
皴	준	준	준/준	준	清合三次清	ts ^h juen
儻	준	준	준/준	준	精合三全清	tsjuen
峻	준	준	준/준	준	精合三全清	tsjuen
稔	준	준	준/준	준	章合三全清	tɕjuen
餽	준	준	준/준	준	精合三全清	tsjuen
浚	준	순正준	준/준, 순	순正준	精合三全清	tsjuen
隼	준	순正준	준/준, 순	순正준	心合三全清	sjuen
竣 ⁸²⁾	준	준, 전	준/준, 전	준, 전	清合三次清	ts ^h juen
準 ⁸³⁾	준	준, 절	준/준	준, 절	章合三全清	tɕjuen
衆	중	중	중/중	중	章合三全清	tɕjun
住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d ^h juo
胄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紂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株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宙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拄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廚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d ^h juo

82) <표 19>의 ‘竣’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준’은 규범음이고, ‘전’은 ‘準’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3) <표 19>의 ‘準’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준’은 규범음이고, ‘절’은 ‘準’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稠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籌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嶺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d ^h juo
儔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柱	듀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d ^h juo
晝	듀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紬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蛛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疇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輈	듀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誅	듀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肘	듀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幃	듀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竹	득	죽	죽/죽	죽	知合三全清	tjuk
中	둥	중	중/중	중	知合三全清	tjun
仲	둥	중	중/중	중	澄合三全濁	d ^h jun
重	둥	중	중/중	중	澄合三全濁	d ^h juon

<표 19>에 제시된 4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ㄱ+ㅍ’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ㄱ+ㅍ, ㄱ+ㅍ, ㄱ+ㅍ, ㄱ+ㅍ’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ㄱ/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보면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19>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5개, 청모자(淸母字) 3개, 심모자(心母字) 1개가 있고 장모자(章母字) 12개, 창모자(昌母字) 2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9개, 징모자(澄母字) 16개가 있다. <표 19>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원래부터 초성에 /ㄱ/로 주음(注音)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한어중고음 설상음(舌上音)에 있는 한자음들이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찍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로 ‘耐’는 설상음(舌上音)에 속하는

데 구개음화 현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들 설상음(舌上音)의 한자음들이 절대적으로 구개음화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표 2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趾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祉	지	지	지/지	지	徹開三次清	tʰi
址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只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肢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脂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沚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祗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e
誌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痣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支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枝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砥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至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指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芝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止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摠	지	지	지/지	지	照 全清	tʃie
紙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之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摯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旨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底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志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 84) <표 20>의 ‘底’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더’는 ‘底’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이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85) <표 20>의 ‘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식’은 ‘識’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86) <표 20>의 ‘質’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질’은 ‘質’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87) <표 20>의 ‘織’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치, 직’은 ‘織’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와 이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88) <표 20>의 ‘抵’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더’는 ‘抵’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89) <표 20>의 ‘趁’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진’은 규범음이고, ‘년正년’은 ‘趁’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90) <표 20>의 ‘填’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진’은 규범음이고, ‘던’은 ‘填’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91) <표 20>의 ‘窰, 姪’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질’은 규범음이고, ‘덜’은 ‘窰, 姪’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咫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枳	지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底 ⁸⁴⁾	지, 더	지, 더	지/더/저	지, 더	端開四全清	tiei
識 ⁸⁵⁾	식	지, 식	식/지	지	章開三全清	tɕi
質 ⁸⁶⁾	질	지, 질	질/지	지, 질	章開三全清	tɕjet
漬	지	조正지	지/지	조正지	從開三全濁	dz ^h je
織 ⁸⁷⁾	지	지, 치, 직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ək
稷	직	직	직/직	직	精開三全清	tsjək
職	직	직	직/직	직	章開三全清	tɕjək
津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賑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進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螻	진	진	진/진	진	從開三全濁	dz ^h jen
晉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榛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盡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儘	진	진	진/진	진	精 全清	tsiən
溱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眞	진	진	진/진	진	照 全清	tʃiən
振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蓁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嗔	진	진	진/진	진	昌開三次清	tɕ ^h jen
秦	진	진	진/진	진	從開三全濁	dz ^h jen
震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臻	진	진	진/진	진	莊開二全清	tʃ(j)en
摺	진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疾	질	질	질/질	질	從開三全濁	dz ^h jet
磧	질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i
檣	질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嫉	질	질	질/질	질	從開三全濁	dz ^h jei
執	집	집	집/집	집	章開三全清	tɕjep
集	집	집	집/집	집	從開三全濁	dz ^h jep
箴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
墀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i
蚩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tje
知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tje
智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tje
持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d ^h i
蚩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i
躋	디	지	디/지	지	知開三全清	tjei
遲	디	지	디/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i
抵 ⁸⁸⁾	디	지, 더	디/지, 더/저	지, 더	端開四全清	tiei
池	디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
直	딕	직	직/직	직	澄開三全濁	d ^h jək
疚	딘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t ^h jen
眵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疹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en
鎮	딘	진	진/진	진	知開三全清	tjen
陣	딘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 ^h jen

珍	딘	진	진/진	진	知開三全清	tjen
陳	딘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 ^h jɛn
緝	딘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t ^h jɛn
診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ɛn
眵	딘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ɛn
紕	진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ɕjɛn
塵	딘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 ^h jɛn
趁 ⁸⁹⁾	딘	진, 년正년	진/진	진, 년正년	澄開三全濁	d ^h jɛn
填 ⁹⁰⁾	딘	진, 년	진/진	진, 년	知開三全清	tjen
柩	딜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ɛt
帙	딜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d ^h jɛt
銜	딜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ɛt
蛭	딜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ɛt
秩	딜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d ^h jɛt
窒 ⁹¹⁾	딜	질, 덜	질/질	질, 덜	知開三全清	tjɛt
姪	딜	질, 덜	질/질	질, 덜	澄開三全濁	d ^h jɛt
朕	딤	짐	짐/짐	짐	澄開三全濁	d ^h jɛm
徵	딩	징	징/징	징	知開三全清	tjɛŋ
懲	딩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d ^h jɛŋ
澄	딩	징	징/징	징	澄開二全濁	d ^h ɛŋ

<표 20>에 제시된 9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ㅣ’이고 구개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ㅣ, ㅈ+ㄴ, ㅈ+ㄹ, ㅈ+ㄷ, ㅈ+ㅂ, ㅈ+ㅃ, ㅈ+ㅅ, ㅈ+ㅇ’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i/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 20>의 ‘底’는 중세음에 ‘지, 더’로 표시되고 『전운옥편』에서도 ‘지’와 ‘더’로,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은 ‘저’로 표시되고 있음을 통해서 ‘底’는 ‘더>저>저’의 변천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도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0>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7개, 종모자(從母字) 6개가 있고 장모자(章母字) 42개, 창모자(昌母字) 1개, 조모자(照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9개, 철모자(徹母字) 3개, 정모자(澄母字) 17개가 있다. <표 20>의 한자음은 /i/나 /j/

환경에 해당하여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해당하고 정치음(正齒音)인 네 개의 장모자(莊母字)만 이등자(二等字)로 예외이다. 위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에 해당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치음자(齒音字)가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실현된 예에서 설상음(舌上音) 외에 정치(正齒) 삼등(三等) 장모자(章母字)와 설두음(舌頭音) 단모자(端母字)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구개음화의 발생은 설상음(舌上音)에서만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몇몇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ㄷ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製	제	제	제/제	제	章開三全清	tɕjæi
際	제	제	제/제	제	精開三全清	tsjæi
齏	제	제	제/제	제	精 全清	tsi
霽	제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ɕi
臍	제	제	제/제	제	從開四全濁	dz ^h iɕi
濟	제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ɕi
齏	제	제	제/제	제	從開四全濁	dz ^h iɕi
沛	제	제	제/제	제	精 全清	tsi
擠	제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ɕi
齊	제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ɕi
穉	제	제	제/제	제	精開三全清	tsjæi
制	제	제	제/제	제	章開三全清	tɕjæi
折 ⁹²⁾	제	제, 절, 설	제/제, 절	제, 절, 설	定開四全濁	d ^h iɕi
祭	제	제	제/제	제	精開三全清	tsjæi
劑	제	제	제/제	제	從開四全濁	dz ^h iɕi
齏	제	제	제/제	제	從開三全濁	dz ^h jei
齊	제	제	제/제	제	從開四全濁	dz ^h iɕi
刺	제	척	척/척	척	清開三次清	tshje
齏 ⁹³⁾	제	즈俗지, 제	제/제, 지	즈俗지, 제	精開三全清	tsjei
儕	제	지俗제	제/제, 지	지俗제	崇開二全濁	dʒ ^h ei

<표 21>에 제시된 20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ㄷ’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이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에 부합되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ㄷ/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92) <표 21>의 ‘折’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제’는 규범음이고, ‘절, 설’은 ‘折’의 이음자와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3) <표 21>의 ‘齏’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즈’는 규범음이고, ‘지, 제’는 ‘齏’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자음의 음운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1>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0개, 청모자(淸母字) 1개, 종모자(從母字) 5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다. <표 21>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나 /j/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세음자(細音字)이며 개구도(開口度)의 높이에 따라 대부분이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이며 정치음(正齒音)인 1개의 숭모자(崇母字)만 이등자(二等字)로 예외이다. 이를 통해 <표 21>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자음들은 설상음(舌上音)이 아니며 대부분은 치두음(齒頭音)과 몇몇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ㅈ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遮	차	차	차/차	차	章開三全淸	tɕja
借 ⁹⁴⁾	차	차, 적	차/차, 적	차, 적	精開三全淸	tsja
置	차	차俗저	차/차, 저	차俗저	精開三全淸	tsja
廠	창	창	창/창	창	昌開三次淸	tɕ ^h jaŋ
昌	창	창	창/창	창	昌開三次淸	tɕ ^h jaŋ
娼	창	창	창/창	창	昌開三次淸	tɕ ^h iaŋ
倡	창	창	창/창	창	昌開三次淸	tɕ ^h jaŋ
敞	창	창	창/창	창	昌開三次淸	tɕ ^h jaŋ
唱	창	창	창/창	창	昌開三次淸	tɕ ^h jaŋ
着	탁	착	착/착	착	澄開三全濁	d ^h jo
悵	탕	창	창/창	창	徹開三次淸	t ^h jaŋ
漲	탕	창	창/창	창	知開三全淸	tjaŋ
輦	탕	창	창/창	창	徹開三次淸	t ^h jaŋ
暢	탕	창	창/창	창	徹開三次淸	t ^h jaŋ
脹	탕	창	창/창	창	知開三全淸	tjaŋ

<표 22>에 제시된 15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ㅈ’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ㅈ, ㄷ+ㅊ, ㄷ+ㄱ’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

94) <표 22>의 ‘借’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차’는 규범음이고, ‘적’은 ‘借’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2>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개, 창모자(昌母字) 6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2개, 철모자(徹母字) 3개, 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표 22>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글자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치음(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구개음화를 거치지 못하고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ㄷ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淒	처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 ^h iei
靦	처	처	처/처	처	清開三次清	ts ^h jo
悽	처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 ^h iei
處	처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 ^h iei
妻	처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 ^h iei
感	척	척	척/척	척	清開四次清	ts ^h iek
斥	척	척	척/척	척	昌開三次清	tɕ ^h ja
跣	척	척	척/척	척	章開三全清	tɕjek
蹠	척	척	척/척	척	章開三全清	tɕjek
堵	척	척	척/척	척	從開三全濁	dz ^h jek
尺	척	척	척/척	척	昌開三次清	tɕ ^h jek
軋	척	척	척/척	척	昌開三次清	tɕ ^h jek
脊	척	척	척/척	척	精開三全清	tsjek
戚	척	척	척/척	척	清開四次清	ts ^h iek
鶴	척	척	척/척	척	精開三全清	tsjek

- 95) <표 23>의 ‘靦’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찬’은 규범음이고, ‘첸’은 ‘靦’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96) <표 23>의 ‘悽’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첸’은 규범음이고, ‘칭’은 ‘悽’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97) <표 23>의 ‘沾’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첩’은 규범음이고, ‘뎡’은 ‘沾’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躋	척	척	척/척	척	精開三全清	tsjek
隻	척	척	척/척	척	章開三全清	tɕjek
鍼	척	척	척/척	척	清開四次清	ts ^h iek
瘡	척	척	척/척	척	從開三全濁	dz ^h iek
摠	척	척	척/척	척	章開三全清	tɕjek
穿	천	천	천/천	천	昌合三次清	tɕ ^h juæn
薦	천	천	천/천	천	精開四全清	tsien
韃	천	천	천/천	천	清開三次清	ts ^h jæn
泉	천	천	천/천	천	從合三全濁	dz ^h juæn
賤	천	천	천/천	천	從開三全濁	dz ^h jæn
膾	천	천	천/천	천	禪合三全濁	zjuæn
喘	천	천	천/천	천	昌合三次清	tɕ ^h juæn
闡	천	천	천/천	천	昌開三次清	tɕ ^h jæn
蒨	천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 ^h ien
箒	천	천	천/천	천	禪合三全濁	zjue
飮	천	천	천/천	천	章開三全清	tɕiæn
淺	천	천	천/천	천	精開四全清	tsien
遷	천	천	천/천	천	清開三次清	ts ^h jæn
釧	천	천	천/천	천	昌合三次清	tɕ ^h juæn
千	천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 ^h ien
踐	천	천	천/천	천	從開三全濁	dz ^h jæn
川	천	천	천/천	천	昌合三次清	tɕ ^h juæn
擅	천	선俗천	천/천, 선	선俗천	禪開三全濁	zjæn
饌 ⁹⁵⁾	천	찬, 천	천/천, 찬	찬, 천	崇合二全濁	dʒ ^h uan
倩 ⁹⁶⁾	천	천, 칭	천/천, 칭	천, 칭	清開四次清	ts ^h ien
籤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 ^h iæm
瞻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æm
鞭	침	침	침/침	침	昌開三次清	tɕ ^h jæm
檐	침	침	침/침	침	昌開三次清	tɕ ^h jæm
尖	침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jæm
簷	침	염俗침	침/침, 염	염俗침	以開三次濁	ɔjæm
捷	첩	첩	첩/첩	첩	從開三全濁	dz ^h jæp
睫	첩	첩	첩/첩	첩	精開三全清	tsjæp
妾	첩	첩	첩/첩	첩	清開三次清	ts ^h jæp
晴	청	청	청/청	청	從開三全濁	dz ^h jɛŋ
圓	청	청	청/청	청	清開三次清	ts ^h jɛŋ
淸	청	청	청/청	청	清開三次清	ts ^h jɛŋ
請	청	청	청/청	청	清開三次清	ts ^h jɛŋ
靑	청	청	청/청	청	清開四次清	ts ^h ien
淸	청	청	청/청	청	清開三次清	ts ^h jɛŋ
擲	척	척	척/척	척	澄開三全濁	d ^h jek
躑	척	척	척/척	척	澄開三全濁	d ^h jek
陟	척	척	척/척	척	知開三全清	tjæk
撤	철	철	철/철	철	澄開三全濁	d ^h jæt
輟	철	철	철/철	철	知合三全清	tjuæi
澈	철	철	철/철	철	澄開三全濁	d ^h jæt
哲	철	철	철/철	철	知開三全清	tjæt
黻	철	철	철/철	철	昌合三次清	tɕ ^h juæt
輟	철	철	철/철	철	澄開三全濁	d ^h jæt

徹	털	철	철/철	철	澄開三全濁	d ^h jaet
啜	털	철	철/철	철	知合三全清	tjuæi
掇	털	탈俗철	철/철, 탈	탈俗철	知合三全清	tjuæt
諂	텀	첨	첨/첨	첨	徹開三次清	t ^h jaem
沾 ⁹⁷⁾	텀	첨, 덤	덤/첨, 첨	첨, 덤	知開三全清	tjaem
覘	텀	첨正점	점, 첨	첨正점	徹開三次清	t ^h jaem
輒	첩	첩	첩/첩	첩	知開三全清	tjaep
廳	텅	청	청/청	청	透開四次清	thien

<표 23>에 제시된 7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ㄲ’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ㄲ, ㄷ+ㄲ, ㄷ+ㄲ, ㄷ+ㄲ, ㄷ+ㄲ, ㄷ+ㄲ, ㄷ+ㄲ’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ㄷ/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3>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7개, 청모자(淸母字) 20개, 종모자(從母字) 7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6개, 창모자(昌母字) 11개, 선모자(禪母字) 3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투모자(透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7개, 철모자(徹母字) 2개, 징모자(澄母字) 6개가 있다. 나머지 한 개는 이모자(以母字)이다. <표 23>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해 보면 위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설상음(舌上音) 밖에는 없다. <표 23>의 치음(齒音)과 설두음(舌頭音), 그리고 아음(牙音)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ㅈ인 자례

98) <표 24>의 ‘湫’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쇼’는 규범음이고, ‘쥬’는 ‘湫’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焦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醮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鈔	ㄔ	ㄔ	ㄔ/ㄔ	ㄔ	初開二次清	tʃʰau
悄	ㄔ	ㄔ	ㄔ/ㄔ	ㄔ	清開三次清	tsʰjæu
勦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樵	ㄔ	ㄔ	ㄔ/ㄔ	ㄔ	從開三全濁	dzʰjæu
鈔	ㄔ	ㄔ	ㄔ/ㄔ	ㄔ	昌開三次清	tʃʰjæu
鷓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譙	ㄔ	ㄔ	ㄔ/ㄔ	ㄔ	從開三全濁	dzʰjæu
椒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噍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諂	ㄔ	ㄔ	ㄔ/ㄔ	ㄔ	從開三全濁	dzʰjæu
抄	ㄔ	ㄔ	ㄔ/ㄔ	ㄔ	初開二次清	tʃʰau
鈹	ㄔ	ㄔ	ㄔ/ㄔ	ㄔ	穿 次清	tʃʰiau
蕉	ㄔ	ㄔ	ㄔ/ㄔ	ㄔ	精開三全清	tsjæu
樵	ㄔ	ㄔ	ㄔ/ㄔ	ㄔ	從開三全濁	dzʰjæu
炒	ㄔ	ㄔ	ㄔ/ㄔ	ㄔ	初開二次清	tʃʰau
湫 ⁹⁸⁾	ㄔ	ㄔ, ㄑ	ㄔ/ㄔ	ㄔ, ㄑ	清開三次清	tsʰju
杪	ㄎ, ㄔ	ㄎ俗ㄔ	ㄔ/ㄔ, ㄎ	ㄎ俗ㄔ	初開二次清	tʃʰau
肖	ㄔ	ㄔ	ㄔ/ㄔ	ㄔ	心開三全清	sjæu
綯	ㄔ	ㄔ俗ㄔ	ㄔ/ㄔ, ㄔ	ㄔ俗ㄔ	心開三全清	sjæu
鞞	ㄔ	ㄔ俗ㄔ	ㄔ/ㄔ, ㄔ	ㄔ俗ㄔ	心開三全清	sjæu
稍	ㄔ	ㄔ正ㄔ	ㄔ/ㄔ, ㄔ	ㄔ正ㄔ	生開三全清	ʃau
軺	ㄔ	ㄎ俗ㄔ	ㄔ/ㄔ, ㄎ	ㄎ俗ㄔ	禪開三全濁	zjæu
觸	ㄑ	ㄑ	ㄑ/ㄑ	ㄑ	昌合三次清	tʃʰjuok
燭	ㄑ	ㄑ	ㄑ/ㄑ	ㄑ	章合三全清	tʃjuok
囑	ㄑ	ㄑ	ㄑ/ㄑ	ㄑ	章合三全清	tʃjuok
濁	ㄑ	ㄑ	ㄑ/ㄑ	ㄑ	禪合三全濁	zjuok
屬	ㄑ	ㄑ	ㄑ/ㄑ, ㄑ	ㄑ	章合三全清	tʃjuok
瘡	ㄑ	ㄑ	ㄑ/ㄑ, ㄑ	ㄑ	知合三全清	tʃjuok
獸	ㄑ	ㄑ	ㄑ/ㄑ	ㄑ	昌合三次清	tʃʰjuok
蜀	ㄑ	ㄑ正ㄑ	ㄑ/ㄑ, ㄑ	ㄑ正ㄑ	禪合三全濁	zjuok
蝟	ㄑ	ㄑ正ㄑ	ㄑ/ㄑ, ㄑ	ㄑ正ㄑ	章合三全清	tʃjuok
昭	ㄔ	ㄔ	ㄔ/ㄔ	ㄔ	昌開三次清	tʃʰjæu
超	ㄔ	ㄔ	ㄔ/ㄔ	ㄔ	徹開三次清	tʃʰjæu
招	ㄔ	ㄔ	ㄔ/ㄔ	ㄔ	章開三全清	tʃjæu
躑	ㄑ	ㄑ	ㄑ/ㄑ	ㄑ	澄合三全濁	dʃjuok
躑	ㄑ	ㄑ	ㄑ/ㄑ	ㄑ	澄合三全濁	dʃiok
豕	ㄑ	ㄑ	ㄑ/ㄑ	ㄑ	知合三全清	tʃjuoŋ
寵	ㄑ	ㄑ	ㄑ/ㄑ	ㄑ	徹合三次清	tʃʰjuoŋ
塚	ㄑ	ㄑ	ㄑ/ㄑ	ㄑ	知合三全清	tʃjuoŋ

<표 24>에 제시된 4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ㅁ’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ㅁ, ㄷ+ㅍ, ㄷ+ㅂ, ㄷ+ㅍ’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4>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7개, 청모자(淸母字) 2개, 종모자(從母字) 4개, 심모자(心母字) 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5개, 창모자(昌母字) 4개, 천모자(穿母字) 1개, 선모자(禪母字) 3개, 초모자(初母字) 4개, 생모자(生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철모자(徹母字) 2개, 징모자(澄母字) 2개가 있다.<표 24>의 한자음은 /i/나 /j/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어중고음의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고 있다. 나머지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음(正齒音) 삼등(三等)에 있는 장모자(章母字) ‘招’와 창모자(昌母字) ‘韶’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만 구개음화를 거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ㅍ인 사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芻	츄	츄	츄/추	츄	初合三次清	tʃʰjuo
儻	츄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佳	츄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筭	츄	츄	츄/추	츄	章開三全清	tɕju

- 99) <표 25>의 ‘出’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출’은 ‘出’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00) <표 25>의 ‘蹶’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턱’은 ‘蹶’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01) <표 25>의 ‘媼’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츄’는 ‘媼’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02) <표 25>의 ‘畜’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휴, 축, 혹’은 ‘畜’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03) <표 25>의 ‘逐’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덕’은 ‘逐’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臭	쑤	쑤	쑤/쑤	쑤	昌開三次清	tɕ ^h ju
雛	쑤	쑤	쑤/쑤	쑤	崇合三全濁	dʒ ^h juo
椎	쑤	쑤	쑤/쑤	쑤	澄合三全濁	d ^h juei
就	쑤	쑤	쑤/쑤	쑤	從開三全濁	dz ^h ju
錐	쑤	쑤	쑤/쑤	쑤	章合三全清	tɕjuei
秋	쑤	쑤	쑤/쑤	쑤	清開三次清	ts ^h ju
聚	쑤	쑤	쑤/쑤	쑤	從合三全濁	dz ^h juo
鞦	쑤	쑤	쑤/쑤	쑤	清開三次清	ts ^h ju
鯁	쑤	쑤	쑤/쑤	쑤	清開三次清	ts ^h ju
娶	쑤	쑤	쑤/쑤	쑤	清合三次清	ts ^h juo
媿	쑤	쑤	쑤/쑤	쑤	精合三全清	tsjuo
鷺	쑤	쑤	쑤/쑤	쑤	清開三次清	ts ^h ju
鷺	쑤	쑤	쑤/쑤	쑤	從開三全濁	dz ^h ju
醜	쑤	쑤	쑤/쑤	쑤	昌開三次清	tɕ ^h ju
楸	쑤	쑤	쑤/쑤	쑤	清開三次清	ts ^h ju
帚	쑤	쑤	쑤/쑤	쑤	章開三全清	tɕju
樞	쑤	쑤	쑤/쑤	쑤	昌合三次清	tɕ ^h juo
取	쑤	쑤	쑤/쑤	쑤	清合三次清	ts ^h juo
趣	쑤	쑤	쑤/쑤	쑤	清合三次清	ts ^h juo
出 ⁹⁹⁾	쑤	쑤, 츨	쑤/쑤, 츨	쑤, 츨	昌合三次清	tɕ ^h juei
魁	쑤	쑤	쑤/쑤, 퇴	쑤	定合一全濁	d ^h uAi
鎚	쑤	쑤	쑤/쑤, 퇴	쑤	澄合三全濁	d ^h juei
推	쑤	쑤	쑤/쑤, 퇴	쑤	昌合三次清	tɕ ^h juei
槌	쑤	쑤	쑤/쑤	쑤	章合三全清	tɕjuei
顛	츩	츩	츩/츩	츩	精合三全清	tsjuk
蹶 ¹⁰⁰⁾	츩	츩, 텅	츩/츩, 텅	츩, 텅	精合三全清	tsjuk
祝	츩	츩	츩/츩	츩	章開三全清	tɕju
踰	츩	츩俗 츩	츩/츩, 츩	츩俗 츩	生合三全清	fjuk
春	츩	츩	츩/츩	츩	昌合三次清	tɕ ^h juen
衝	츩	츩	츩/츩	츩	昌合三次清	tɕ ^h juoŋ
莽	츩	츩	츩/츩	츩	昌合三次清	tɕ ^h juŋ
充	츩	츩	츩/츩	츩	昌合三次清	tɕ ^h juŋ
墜	츩	츩	츩/츩	츩	澄合三全濁	d ^h juei
抽	츩	츩	츩/츩	츩	徹開三次清	t ^h ju
錘	츩	츩	츩/츩	츩	澄合三全濁	d ^h jue
瘳	츩	츩	츩/츩	츩	徹開三次清	t ^h ju
丑	츩	츩	츩/츩	츩	徹開三次清	t ^h ju
妯 ¹⁰¹⁾	츩	츩, 츩	츩/츩, 츩	츩	徹開三次清	t ^h ju
捶	츩	츩	츩/츩	츩	章合三全清	tɕjue
追	츩	츩	츩/츩	츩	知合三全清	tjuei
畜 ¹⁰²⁾	츩	츩, 츩, 츩, 츩	츩/츩, 츩	츩, 츩, 츩, 츩	徹開三次清	t ^h ju
軸	츩	츩	츩/츩	츩	澄合三全濁	d ^h juk
蓄	츩	츩	츩/츩	츩	徹合三次清	t ^h juk
舳	츩	츩	츩/츩	츩	澄合三全濁	d ^h juk
築	츩	츩	츩/츩	츩	知合三全清	tjuk
逐 ¹⁰³⁾	츩	츩, 텅	츩/츩, 텅	츩, 텅	澄合三全濁	d ^h juk
竺	츩	츩	츩/츩	츩	知合三全清	tjuk
柚	츩	츩	츩/츩	츩	澄合三全濁	d ^h juk
椿	츩	츩	츩/츩	츩	徹合三次清	t ^h juen

怵	툄	츨	츨/츨	츨	徹合三次清	t ^h juet
黜	툄	츨	츨/츨	츨	徹合三次清	t ^h juet
穉	툄	술俗츨	츨/츨, 술	술俗츨	船合三全濁	dz ^h juet
朮	툄	술正츨	츨/츨, 술	술正츨	船合三全濁	dz ^h juet
冲	툄	츨	츨/츨	츨	昌合三次清	tɕ ^h juon
衷	툄	츨	츨/츨	츨	知合三全清	tjun
蟲	툄	츨	츨/츨	츨	澄合三全濁	d ^h jun
狝	툄	츨	츨/츨	츨	澄合三全濁	d ^h jun
忠	툄	츨	츨/츨	츨	知合三全清	tjun

<표 25>에 제시된 6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ㅍ’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ㅍ, ㄷ+ㅍ, ㄷ+ㅍ, ㄷ+ㅍ, ㄷ+ㅍ’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ㄷ/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표 25>의 ‘蹶’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多音字) ‘덕’이라는 주음(注音)도 표시하였으므로 『자전석요』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쳤으므로 ‘적’으로 표시한다. 또한, ‘逐’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 ‘덕’이라는 주음(注音)도 표시하였으므로 『자전석요』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쳐 ‘적’으로 표시한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5>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4개, 청모자(淸母字) 8개, 종모자(從母字) 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7개, 창모자(昌母字) 10개, 선모자(船母字) 2개, 초모자(初母字) 1개, 숭모자(崇母字) 1개, 생모자(生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5개, 철모자(徹母字) 9개, 정모자(澄母字) 10개가 있다. <표 25>의 한자음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해 보면 위 한자음들은 대부분의 치음(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하고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를 거친 것은 주로 설상음(舌上音)에 속한 한자음들이다.

이 외에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인 장모자(章母字) ‘捶’, 선모자(船母字) ‘穉, 術’, 창모자(昌母字) ‘冲’도 구개음화 현상을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蹶’도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뿐만 아니라 치두음(齒頭音)과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에서도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자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扈	치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熾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蚩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侈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
齒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鴟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i
眇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je
幟	치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ʰi
樞	치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廁	치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ʰi
親	친	친	친/친	친	清開三次清	tsʰjen
七	칠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漆	칠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ʰjet
浸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斟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篋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侵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寢	침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ʰjem
枕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鍼	침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秤	칭	칭	칭/칭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稱	칭	칭	칭/침	칭	昌開三次清	tɕʰjəŋ
值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i
絺	티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ʰjei
置	티	치	치/치	치	知開三全清	tʰi
癡	티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ʰi
治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i
雉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jei
緻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jei
稚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jei
穉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jei

104) <표 26>의 ‘寢’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치’는 규범음이고, ‘테’는 ‘寢’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致	티	치	치/치	치	知開三全清	tjei
峙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
馳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je
痔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
恥	티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 ^h i
豸	티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je
懷	티	지正치	치/치	지正치	知開三全清	tjei
寔 ¹⁰⁴⁾	티, 테	치, 테	치/치, 체	치, 테	知開三全清	tjei
鵠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t ^h jək
飭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t ^h jək
勅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t ^h jək
驚	틱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t ^h jək
砧	팀	침	침/침	침	知開三全清	tjem
沈	팀	침	침/침	침	澄開三全濁	d ^h jem
忱	팀	심正침	침/침	심正침	禪開三全濁	zjem
蟄	팀	칩	칩	칩	澄開三全濁	d ^h jep

<표 26>에 제시된 4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ㅣ’이고 구개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ㅣ, ㅈ+ㄷ, ㅈ+ㄴ, ㅈ+ㄹ, ㅈ+ㅁ, ㅈ+ㅂ, ㅈ+ㅇ’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의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하여 일부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 /i/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음을 참고하여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6>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청모자(淸母字) 8개가 있고 정치음인 장모자(章母字) 5개, 창모자(昌母字) 9개, 선모자(禪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5개, 철모자(徹母字) 7개, 징모자(澄母字) 12개가 있다. <표 25>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과 대조해 보면 위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설상음(舌上音) 계열이다. 치음(齒音)에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외로 정치음(正齒音) 삼등(三等) 선모자(禪母字) ‘忱’은

‘팀>침’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ㄷ인 자례

字例	中世音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砌	체	체	체/체	체	淸開四次淸	ts ^h iɛi
切	체	체	체/체	체	淸開四次淸	ts ^h iɛi
蒂	체	체	체/체	체	端開四全淸	tiɛi
滯	체	체	체/체	체	澄開三全濁	d ^h jæi
屍	체	체	체/체	체	澄開三全濁	d ^h jæi
掣	체	체, 철	체/체, 철	체, 철	昌開三次淸	tɕ ^h jæi
綴	철	체, 철	체/체, 철	체, 철	知合三全淸	tʃuæi

<표 27>에 제시된 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ㄷ’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ㄷ, ㅈ+ㅈ’으로 구성된다. 이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에 부합되지만, 중세음과의 대조를 통해 원래부터 자음이 /ㅈ/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구개음화 및 과도교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여전히 『전운옥편』의 주음(注音)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자음의 음운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7>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청모자(淸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창모자(昌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 징모자(澄母字) 2개가 있다. <표 27>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치음(齒音)·설두음(舌頭音)·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이 한자음들은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표 9>부터 <표 27>까지 제시된 글자는 『전운옥편』의 한자음 표기 기준으로 ‘ㄷ+i, j’에 해당하는 것은 105자, ‘ㄷ+i, j’에 해당하는 것은 34자, ‘ㅈ+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346자, ‘ㅈ+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245자로 확인되었으며 중세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한자음 중 ‘ㄷ+i’에 해당하는 음은 ‘디’밖에 없다. 반면, ‘ㄷ+i’에 해당된 음은 ‘더, 덕, 던, 덜, 덤, 덩, 데’, ‘도’ 등이 있다. 이 중 ‘더, 덕, 덤, 덩, 도’ 등으로 구성된 한자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는 달리 위의 표에서는 ‘ㄷ+i’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전 시기에 한자음이 ‘티’였던 ‘치’가 이 자료에서는 ‘치’로 확인된다. 이

밖에 ‘ㄷ+i’의 환경에 있는 한자음에는 ‘턱, 턴, 털, 텀, 텃, 텅, 테’, ‘톳, 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턱, 텀, 텃, 테’ 등의 음절 구조로 이루어진 한자음이 많이 확인된다. 아울러 ‘ㄷ+i’에 해당하는 음은 ‘지, 진, 질, 집, 짐’ 등이 있고 ‘ㄷ+i’에 해당된 음은 ‘자, 작, 장’, ‘저, 적, 전, 절, 점, 정’, ‘조, 족, 종’, ‘쥬, 죽, 준, 중’과 ‘체’ 등이 있다. 이 중 동일한 성부(聲符) ‘者자’, ‘昔작’, ‘勻작’, ‘將장’, ‘齋장’, ‘且저’, ‘責적’, ‘前전’, ‘亶전’, ‘從종’, ‘重중’, ‘齊제’, ‘支지’, ‘止지’ 등으로 이루어진 한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아울러, ‘ㄷ+i’에 해당하는 음은 ‘치, 칩, 친, 칠, 침, 칩, 칭’ 등이 확인된다. 또, ‘ㄷ+i’에 해당하는 음은 ‘차, 착, 창, 처, 척, 천, 첨, 첩, 청, 초, 축, 총, 쥬, चु, 춘, चु, 체’ 등이 있다. 이 중 동일한 성부(聲符) ‘昌창, 長창, 妻처, 脊척, 耑천, 𠄎첩, 靑청, 焦초, 肖초, 召초, 蜀축, 佳쥬, 由축’ 등으로 이루어진 한자가 다수이다. 이로 보아 같은 음에 해당된 한자 대부분은 유사한 성부(聲符)로 구성된 해성자(諧聲字)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⁵⁾. 또한, 구개음 환경인 /i/에 해당하는 한자음 수가 /j/보다 훨씬 적게 있으므로 구개음화의 실현율과 점유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9>부터 <표 27>까지 제시된 글자의 한자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전석요』 한자음의 음운구조는 『전운옥편』의 한자음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전석요』에서 ‘ㄷ/ㄷ+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주음(注音) 표기 방식은 조금 다르다. 『자전석요』의 범례와 본문에서의 주음(注音)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1909년에 간행된 『자전석요』는 /i, j/ 환경에 놓여 /ㄷ, ㄷ/로 주음(注音)하는 한자음들은 원음(原音) 표기에서 『전운옥편』의 자음과 일치하기 위해서 한자 자례 바로 밑에 여전히 『전운옥편』의 규범음을 표기하는데, 뜻풀이에 나타난 시음(時音)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전석요』의 자례 ‘丁’ <자전석요 상 1a>

‘丁 1) 덩 2) 幹名疆圉천간정 3) 民夫장정정 4) 當也당할정 5) 盛也성할정靑징伐

10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부(聲符)란 한자의 네 귀퉁이 또는 그 중간에 붙여 그 한자의 사성(四聲)을 표시하는 점이고 ‘성방(聲旁), 형성(形聲)’이라고도 한다. 해성자(諧聲字)란 한자 육서(六書)의 하나. 두 글자를 합하여 새 글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다른 쪽은 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銅’자에서 ‘金’은 금속의 뜻을 나타내고 ‘同’은 음을 나타내는 따위이다.”라고 제시하였다. 왕력(2013:30)에서 ‘漢字當中, 諧聲字占百分之九十以上, 認識了諧聲字的聲符也就大致地知道了它們的讀音.’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성부(聲符)와 해성자(諧聲字)는 한자가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한자 발음을 습득할 중요한 방법을 알 수 있다.

木聲 | | 별목소래쟁庚’ 설명: 1) 뒤의 음은 위에 애기한 원음(原音)이고 2), 3), 4), 5)는 ‘丁’에 대한 한글 뜻풀이 또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자전석요』 간행한 시기까지 옥편 또는 자전류 저서에서의 한자 주음(注音) 중 구개음화 환경에 처하는 한자음들이 이미 구개음화 완성되었지만, 편찬자의 의도 또는 저서 편찬의 목적에 따라 한자의 원래 주음(注音)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전석요』의 한자음은 원음(原音)과 시음(時音)을 병기(併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의 주음(注音)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일부 다음자(多音字)와 일치하게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한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고대의 음(音)과 의(義)를 중요시하기 위하여 『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은 그대로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음과 똑같이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자전』의 한자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ㄷ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한자음 중 수많은 사례는 중세한국어 시기의 자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래는 관련 사례와 해당된 한자음의 주음(注音) 상황과 구개음화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⁰⁶⁾.

<표 2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ㄷ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疋	더	더/저	더	章開三全清	tɕiɛ
軋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ɕei
眠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ɕei
陴	더	더/저	더	澄開三全濁	d ^h jei
頓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 106) 이 부분에서 제시된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할 수 없는 글자들은 총 870자를 통계하였다.
- 107) <표 28>의 ‘軋’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던’은 규범음이고, ‘덕’은 ‘덩’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08) <표 28>의 ‘綻’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잔’은 규범음이고, ‘俗탄, 던’은 ‘綻’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09) <표 28>의 ‘墀’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덜’은 규범음이고, ‘체’는 ‘墀’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10) <표 28>의 ‘陴’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염’은 규범음이고, ‘正덤, 덤’은 ‘陴’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11) <표 28>의 ‘霿’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덩’은 규범음이고, ‘던’은 ‘霿’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商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駉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甌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嚙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ɛk
櫛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嬾	덕	덕/적	덕	書開三全清	ɕjek
均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邊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 ^h iek
妬	덕	덕/적	덕	端合一全清	tuə
籊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 ^h iek
籊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余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芍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瘳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en
悞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en
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閨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蹟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en
佃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涎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擯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驥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en
琰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en
泖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韻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ɛn
慎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en
鈿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en
顛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en
滇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en
渙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en
姪 ¹⁰⁷⁾	던, 덩	던/전	던, 덩	定開四全濁	d ^h ien
跣	년正던	던/전, 년	년正던	定開四全濁	d ^h ien
躡	년正던	던/전, 년	년正던	澄開三全濁	d.iæn
綻 ¹⁰⁸⁾	잔俗탄, 던	던/전, 잔, 탄	잔俗탄, 던	澄開二全濁	d ^h æɲ
芙	덜	덜/절	덜	定開四全濁	d ^h iet
閨	덜	덜/절	덜	端開四全清	tiet
滯 ¹⁰⁹⁾	덜, 체	덜/절	덜, 체	定開四全濁	d ^h iet
載	덜俗덜	덜/절	덜俗덜	澄開三全濁	d.iɛt
耋	덜俗덜	덜/절	덜俗덜	透開四次清	t ^h iet
𪗇	덜俗덜	덜/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et
眈	덜俗덜	덜/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et
拂	덜正덜	덜/절, 철	덜正덜	定開四全濁	d ^h iet
凸	덜正덜	덜/절, 철	덜正덜	定開四全濁	d ^h iet
軼	덜	덜/절	덜	定開四全濁	d ^h iet
佚	덜俗덜	덜/절	덜俗덜	透開四次清	t ^h iet
葢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ɛm
禫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玷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菴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黏	덤	덤/점	덤	娘開三次濁	njæm
唇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𪛗 ¹¹⁰⁾	엽正덤, 덤	덤/점	엽正덤, 덤	端開四全清	tɛm
拈	념俗덤	덤/점, 념	념俗덤	章開三全清	tɕiɛm
粘	념正덤	덤/점, 념	념正덤	照 全清	tɕiɛm
驪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籛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蜨	덤	덤/점	덤	心開四全清	siɛp
蹠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襍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跼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p
牒	덤	덤/점	덤	端 全清	tiɛp
牒	덤	덤/점	덤	透開一次清	t ^h ap
喋	덤	덤/점	덤	崇開二全濁	dʒ ^h ɛp
揲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頰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挺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苧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艇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挺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筵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婷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ɛŋ
汀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ɛŋ
町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艇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錠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絳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橙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𪛗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ɛŋ
𪛗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en
挺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渟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縵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挺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挺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叮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en
挺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擘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仃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en
仃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en
莖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靈 ¹¹¹⁾	덩, 던	덩/정, 전	덩, 던	定開四全濁	d ^h iɛŋ
玎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en
打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en

<표 28>에 제시된 98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ㄷ’이고 구개

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ㄷ, ㄷ+ㄷ, ㄷ+ㄷ, ㄷ+ㄷ, ㄷ+ㄷ, ㄷ+ㄷ ㄷ+ㄷ’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볼 때 <표 28>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심모자(心母字) 1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개, 조모자(照母字) 1개, 서모자(書母字) 1자, 송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8개, 투모자(透母字) 19자, 정모자(定母字) 40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징모자(澄母字) 4개, 낭모자(娘母字) 1개가 있다. <표 28>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표 28>의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 해당된다. 그리고 몇몇 설상음자(舌上音字)도 『자전석요』에 되어야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구개음화 변천 과정에 설두음자(舌頭音字)보다 설상음(舌上音)이 우선 이루어지고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전운옥편』까지 전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인다.

<표 2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ㅈ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洮	도正도	도/조, 도	도正도	透開一次清	t ^h au
弰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ɛu
釐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ɛu
越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ɛu
佻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ɛu
眺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ɛu

112) <표 29>의 ‘뫼’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도’는 규범음이고, ‘덕’은 ‘뫼’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跳	ㄷ	ㄷ/ㅈ	ㄷ	定開四全濁	d ^h ieu
柴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芴	ㄷ	ㄷ/ㅈ	ㄷ	端開四全清	tieu
篠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刁	ㄷ	ㄷ/ㅈ	ㄷ	端開四全清	tieu
窈	ㄷ	ㄷ/ㅈ	ㄷ	定開四全濁	d ^h ieu
筱	ㄷ	ㄷ/ㅈ	ㄷ	定開四全濁	d ^h ieu
幢	ㄷ	ㄷ/ㅈ	ㄷ	定開四全濁	d ^h ieu
瑠	ㄷ	ㄷ/ㅈ	ㄷ	端開四全清	tieu
桃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斛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蔦	ㄷ	ㄷ/ㅈ	ㄷ	端開四全清	tieu
詔	ㄷ	ㄷ/ㅈ	ㄷ	定開四全濁	d ^h ieu
庖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耀	ㄷ	ㄷ/ㅈ	ㄷ	定開四全濁	d ^h ieu
規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祧	ㄷ	ㄷ/ㅈ	ㄷ	透開四次清	t ^h ieu
吊 ¹¹²⁾	ㄷ, ㄷ	ㄷ/ㅈ	ㄷ, ㄷ	端開四全清	tieu
掉	ㄷ正ㄷ	ㄷ/ㅈ	ㄷ正ㄷ	定開四全濁	d ^h ieu
挑	ㄷ	ㄷ/ㅈ, ㄷ	ㄷ	透開四次清	t ^h ieu
敦	ㄷ	ㄷ/ㅈ	ㄷ	澄開三全濁	d ^h ieu

<표 29>에 제시된 2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ㅈ’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도 <표 28>과 같이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어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9>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6개, 투모자(透母字) 12자, 정모자(定母字) 8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표 29>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설상음자(舌上音字) 1개를 제외하면 『전운옥편』에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설두음자(舌頭音字)이다. 이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이르러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보다 대부분의 설두음자(舌頭音字)가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과정에서 느린 속도

로 진행하고 늦게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ㅍ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𪗇	두正듀	듀/주, 두	두正듀	透開一次清	t ^h u
𪗈	두正듀	듀/주, 두	두正듀	透開一次清	t ^h u

<표 30>에 제시된 2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ㅍ’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어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0>에 제시된 글자들이 설음(舌音) 계열에 있고 모두 투모자(透母)에 해당한다. <표 30>의 두 글자는 일등자(一等字)에 해당되지만, 구개음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두 한자음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까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墜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 ^h jei
錫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z ^h je
飶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z ^h je
簋	딩	딩/징	딩	羣合三全濁	g ^h juɛŋ

<표 31>에 제시된 4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ㅣ’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ㅣ, ㄷ+ㅣ’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1>에서는 설두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1개, 정치음(正齒音)인 선모자(船母字) 2개, 아음(牙音)인 군모자(羣母字) 1개가 있다. 위의 네 한자음은 삼등자(三等字)에 해당되며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표 31>에 제시된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들은 정치음(正齒音)과 설두음자(舌頭音字)이며 구개음화도 늦은 시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ㅞ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第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蹠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颯	데	데/제	데	透開四次清	t ^h iei
鯢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隄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埶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穰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廙	데	데/제	데	透開四次清	t ^h iei
堤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鞞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第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埶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唬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睨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媿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褪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鶖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駢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磳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緹	데, 테	데/제, 체	데, 테	定開四全濁	d ^h iei
鯨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표 32>에 제시된 2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ㅞ’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2>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투모자(透母字) 2자, 정모자(定母字) 17개가 있다. <표 32>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환경에 해당되며, 한어중고음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운옥편』에 구개음화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이 한자음들은 모두 설두음자(舌頭音字)이다. 이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이르러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설상음(舌上音)보다 대부분의 설두음자(舌頭音字)가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과정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늦게 완성되었다고 알 수 있다.

<표 3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ㄷ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倣	덕	덕/척	덕	昌合三次清	tɕ ^h juk
瞭	덕	덕/척	덕	定開四全濁	d ^h iɛu
誓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 ^h iek
愁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 ^h iek
踢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 ^h iek
撚	던	던/천	던	泥開四次濁	niɛn
蚤	던	던/천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鍊	털	털/철	털	透開四次清	t ^h iɛt
驥	털	털/철	털	透開四次清	t ^h iɛt
榛	덤	덤/침	덤	透開四次清	t ^h iɛm
礮	덤	덤/침	덤	透開四次清	t ^h iɛm
醮	덤	덤/침	덤	透開四次清	t ^h ɛm
恬	덤俗념	덤/침, 념	덤俗념	定開四全濁	d ^h iɛm
黓	텨	텨/첩	텨	端 全清	tiep
粘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 ^h iɛp
製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iɛp
釐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iɛp
堞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iɛp

113) <표 33>의 ‘喋’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텨’는 규범음이고, ‘잡’은 ‘喋’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咕	텃	텃/첩	텃	透開四次清	thiɛp
諜	텃	텃/첩	텃	定開四全濁	d ^h iɛp
諫	텃	텃/첩	텃	端 全清	tiɛp
怙	텃	텃/첩	텃	透開四次清	thiɛp
擻	텃	텃/첩	텃	定開四全濁	d ^h iɛp
喋 ¹¹³⁾	텃, 잡	텃/첩	텃, 잡	定開四全濁	d ^h iɛp
鈷	텃	텃/첩	텃	透開四次清	thiɛp
褶	텃	텃/첩	텃	定開四全濁	d ^h iɛp

<표 33>에 제시된 26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ㅌ+ㄷ’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ㅌ+ㄷ, ㅌ+ㄴ, ㅌ+ㄹ, ㅌ+ㄺ, ㅌ+ㄻ’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3>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투모자(透母字) 13자, 정모자(定母字) 9개, 니모자(泥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정치음(正齒音)인 창모자(昌母字) 1개가 있다. <표 33>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얘기한 바와 같이 위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설두음(舌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이르러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보아 구개음화 변천 과정에 설두음(舌頭音)과 정치음(正齒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구개음화의 확산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구개음화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ㅌ+ㄷ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迢	ㄷ	ㄷ/초	ㄷ	定開四全濁	d ^h iɛu
韶	ㄷ	ㄷ/초	ㄷ	端開四全清	tɛu

船	뉘	뉘/초	뉘	端開四全淸	tiɛu
苔	뉘	뉘/초	뉘	定開四全濁	d ^h iɛu
髻	뉘	뉘/초	뉘	定開四全濁	d ^h iɛu
岾	뉘	뉘/초	뉘	定開四全濁	d ^h iɛu

<표 34>에 제시된 6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ㅛ’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표 32>와 같이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므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4>에서는 설음(舌音) 계열의 설두음(舌頭音)인 정모자(定母字) 4개, 단모자(端母字) 2개에 속한다. 위의 6개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고음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다만, 위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설두음자(舌頭音字)는 구개음화의 확산 속도가 느리게 진행하고 있으며 늦은 시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ㅛ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移 ¹¹⁴⁾	세正테, 테	테/체, 세	세正테, 테	禪開三全濁	zjæi
軀	테	테/체	테	透 次淸	t'i
鬚	테	테/체	테	透開四次淸	t ^h iɛi
遞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 ^h iɛi
荊	테	테/체	테	透開四次淸	t ^h iɛi
鬚	테	테/체	테	透開四次淸	t ^h iɛi
逶	테	테/체	테	定 全濁	d'i
襜	테	테/체	테	透開四次淸	t ^h iɛi
蟠	테	테/체	테	端開四全淸	tiɛi
體	테	테/체	테	透開四次淸	t ^h iɛi
滯	테	테/체	테	透開四次淸	t ^h iɛi
欽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 ^h iɛi

114) <표 35>의 ‘移’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세’는 규범음이고, ‘正테, 테’는 ‘移’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揚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 ^h ɕi
霽	티/티	테/체, 티	티/티	定開一全濁	d ^h Ai

<표 35>에 제시된 14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t+체’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도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구개음 환경 /j/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전석요』의 원음(原音)은 여전히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시음(時音)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으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음운 현상도 비슷하게 나타나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5>에 제시된 글자들은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며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투모자(透母字) 8자, 정모자(定母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정치음(正齒音)인 선모자(禪母字) 1개가 있다. <표 35>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사등자(四等字)에 속하여 구개음 환경에 해당한다. 얘기한 바와 같이 위의 한자음들은 구개음화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설두음자(舌頭音字)에 속한다. 이를 통해 설두음자(舌頭音字)는 구개음화의 확산 속도가 느리게 진행하고 있으며 늦은 시기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ㅊ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儻	자	자/자	자	章開三全清	tɕja
蔗	자	자/자	자	章開三全清	tɕja
樵	자	자/자	자	章開三全清	tɕja
餌	자	자/자	자	精開三全清	tsja
鷓	자	자/자	자	章開三全清	tɕja
担	자/자	자/자, 저	자/자	精開三全清	tsja
她	자/자	자/자, 저	자/자	精開三全清	tsia
焯	작	작/작	작	昌開三次清	tɕ ^h jak
鞞	작	작/작	작	昌開三次清	tɕ ^h jak
狻	작	작/작	작	清合三次清	ts ^h iok
敲	작	작/작	작	清開三次清	ts ^h jak
焯	작	작/작	작	章開三全清	tɕjak
糕	작	작/작	작	章開三全清	tɕjak

115) <표 36>의 ‘焯’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작’은 규범음이고, ‘俗탁, 작’은 ‘焯’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獵	작	작/작	작	淸開三次淸	ts ^h jak
繳	작俗격	작/작	작俗격	章開三全淸	tɕjak
斲	작	작/작	작	莊開三全淸	tʃjak
遶 ¹¹⁵⁾	착俗탁, 작	작/작, 착	착俗탁, 작	徹開三次淸	t ^h jak
洳	작	작/작	작	章開三全淸	tɕjak
漚	장	장/장	장	知開三全淸	tjan
場	장	장/장	장	書開三全淸	ɕjan
牆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 ^h jan
樟	장	장/장	장	章開三全淸	tɕjan
蒼	장	장/장	장	澄開三全濁	d ^h jan
璋	장	장/장	장	章開三全淸	tɕjan
踰	장	장/장	장	淸開三次淸	ts ^h jan
蜚	장	장/장	장	精開三全淸	tsjan
曷	장	장/장	장	書開三全淸	ɕjan
璋	장	장/장	장	章開三全淸	tɕjan
漳	장	장/장	장	章開三全淸	tɕjan
廡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 ^h jan
樯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ian
瘡	장	장/장	장	章開三全淸	tɕjan
璋	장	장/장	장	章開三全淸	tɕjan
熒	장	장/장	장	精開三全淸	tsjan
牆	장	장/장	장	從開三全濁	dzian
瑤	장	장/장	장	淸開三次淸	ts ^h jan
蔣	장	장/장	장	淸開三次淸	ts ^h jan
櫛	장	장/장	장	精開三全淸	tsjan
饅	장	장/장	장	知開三全淸	tjan

<표 36>에 제시된 39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ㅏ’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ㅏ, ㅈ+ㅑ, ㅈ+ㅕ’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6>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6개, 청모자(淸母字) 6개, 중모자(從母字) 4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4개, 창모자(昌母字) 2개, 서모자(書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2개, 철모자(徹母字) 1개, 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표 36>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에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3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ㄷ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玚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赳	저	저/저	저	清開三次清	ts ^h jo
怛	저	저/저	저	精開三全清	tsjo
佇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階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紵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鬻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滌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槩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櫛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宁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褚	저	저/저	저	知開三全清	tjo
砮	저	저/저	저	清開三次清	ts ^h jo
玚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蠶	저	저/저	저	章開三全清	tɕjo
踰	저	저/저	저	從開三全濁	dz ^h jo
屠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杼	저	저/저	저	船開三全濁	dz ^h jo
苧	저, 저	저/저, 서	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岨	저	저/저	저	清開三次清	ts ^h jo
躡	저	저/저	저	澄開三全濁	d ^h jo
狙 ¹¹⁶⁾	저, 처	저/저, 처	저	清開三次清	ts ^h jo
蛛	저正여	저/저, 여	저	禪開三全濁	zjo
禮	조俗저	저/저, 조	저	莊合三全清	tʃjo
宋	적	적/적	적	從開四全濁	dz ^h iek
躡	적	적/적	적	從開三全濁	dz ^h ja
鱣	적	적/적	적	精開三全清	tsjɛk
藉	적	적/적	적	從開三全濁	dz ^h jek
謫	적	적/적	적	知開二全清	tæk
鯽	적正즉	적/적, 즉	적	精開三全清	tsjɛk
鬻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ŋ

116) <표 37>의 ‘狙’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저’는 규범음이고, ‘저’는 ‘狙’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117) <표 37>의 ‘岨’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찰’은 규범음이고, ‘절’은 ‘岨’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8) <표 37>의 ‘櫛’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접’은 규범음이고, ‘뎡’은 ‘櫛’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筌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揃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ŋ
鱸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ŋ
錢	전	전/전	전	精開四全清	tsiɛŋ
譚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iæŋ
諫	전	전/전	전	從開三全濁	dz ^h jæŋ
旻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ŋ
膊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ŋ
囀	전	전/전	전	知合三全清	tjuæŋ
荃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遭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ŋ
篆	전	전/전	전	澄合三全濁	d ^h juæŋ
躔	전	전/전	전	澄開三全濁	d ^h jæŋ
機	전	전/전	전	精開四全清	tsiɛŋ
趨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ŋ
瑑	전	전/전	전	澄合三全濁	d ^h juæŋ
戩	전	전/전	전	精開三全清	tsjæŋ
澶	전	전/전	전	澄開三全濁	d ^h jæŋ
筭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ŋ
詮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騰	전	전/전	전	精合三全清	tsjuæŋ
漣	전	전/전	전	澄開三全濁	d ^h jæŋ
絰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拴	전	전/전	전	從合三全濁	dz ^h juæŋ
縛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juæŋ
衰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ŋ
顫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ŋ
拴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餞	전	전/전	전	從開三全濁	dz ^h jæŋ
敷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ŋ
鄺	전	전/전	전	澄開三全濁	d ^h jæŋ
銓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塹	전	전/전	전	章合三全清	tɕiuæŋ
棧	전	전/전	전	精開四全清	tsiɛŋ
緜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駮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輦	전	전/전	전	禪合三全濁	zjuæŋ
輦	전	전/전	전	章開三全清	tɕjæŋ
雋	전	전/전	전	從合三全濁	dz ^h juæŋ
佺	전	전/전	전	清合三次清	ts ^h juæŋ
禮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ŋ
輓	전	전/전	전	知開三全清	tjæŋ
吮	전	전/전	전	船合三全濁	dz ^h juen
椽	전俗연	전/전, 연	전俗연	澄合三全濁	d ^h juæŋ
船	전正선	전/전, 선	전正선	船合三全濁	dz ^h juæŋ
譔	전正선	전/전, 선	전正선	清合三次清	ts ^h juæŋ
鞞	전正천	전/전, 천	전正천	精開四全清	tsɛŋ
鞞	전正천	전/전, 천	전正천	精開四全清	tsiɛŋ

濺	전正전	전/전, 전	전正전	精開四全清	tsien
篡	전	전/전	전	崇合三全濁	dziuæn
淺	전	전/전	전	從開一全濁	dzʰan
僕	전正션	전/전	전	精合三全清	tsjuen
𠂇	절	절/절	절	精開四全清	tsɛt
臙	절	절/절	절	清開四次清	tsʰiɛt
截	절	절/절	절	從開四全濁	dzʰiɛt
浙	절	절/절	절	章開三全清	tɕjæ̃t
岬	절	절/절	절	精開四全清	tsiɛt
竊	절	절/절	절	清開四次清	tsʰiɛt
橐	절	절/절	절	精開四全清	tsiɛt
躑	절	절/절	절	精開四全清	tsiɛt
晰	절	절/절	절	章開三全清	tɕjæ̃t
巖 ¹¹⁷⁾	찰, 절	절/절, 찰	찰, 절	從開四全濁	dzʰiɛt
躑	점	점/점	점	昌開三次清	tɕʰjæ̃m
霑	점	점/점	점	知開三全清	tjæ̃m
飈	점	점/점	점	章開三全清	tɕjæ̃m
灑	점	점/점	점	精開三全清	tsjæ̃m
蕝	점	점/점	점	從開三全濁	dzʰjæ̃m
躑	점	점/점	점	端開三全清	tɕiæ̃m
殲	점正섬	점/점, 섬	점正섬	精開三全清	tsjæ̃m
燂	점正즈	점/점, 즘	점正즈	精開三全清	tsjæ̃m
灑	점	점/점	점	章開三全清	tɕjæ̃p
愷	점	점/점	점	章開三全清	tɕjæ̃p
檝	점	점/점	점	從開三全濁	dzʰjɛ̃p
菱	점	점/점	점	精開三全清	tsjæ̃p
牒	점	점/점	점	澄開三全濁	dʰjæ̃p
牒 ¹¹⁸⁾	점, 덩	점/점	점, 덩	定開四全濁	dʰiɛ̃p
讐	점正섭	점/점, 섭	점正섭	章開三全清	tɕjæ̃p
懣	점正섭	점/점, 섭	점正섭	章開三全清	tɕjæ̃p
浹	점正협	점/점, 협	점正협	精開四全清	tsiɛ̃p
楫	점	점/점	점	精開三全清	tsjæ̃p
聶	점	점/점	점	章開三全清	tɕiæ̃p
摺	점正섭	점/점	점正섭	章開三全清	tɕjæ̃p
旃	정	정/정	정	精開三全清	tsjɛ̃ŋ
醒	정	정/정	정	澄開三全濁	dʰjɛ̃ŋ
脛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經	정	정/정	정	徹開三次清	tʰjɛ̃ŋ
怔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禎	정	정/정	정	知開三全清	tjɛ̃ŋ
鴟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逌	정	정/정	정	徹開三次清	tʰjɛ̃ŋ
艷	정	정/정	정	清開四次清	tsʰiɛ̃ŋ
崢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紘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証	정	정/정	정	章開三全清	tɕjɛ̃ŋ
靚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澣	정	정/정	정	從開三全濁	dzʰjɛ̃ŋ

理	정	정/정	정	澄開三全濁	d ^h jeŋ
逞	정俗령	정/정	정俗령	徹開三次清	t ^h jeŋ
鶻	정正청	정/정, 청	정正청	精開三全清	tsjeŋ
幘	징正정	정/정, 징	징正정	知開二全清	tjeŋ

<표 37>에 제시된 13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ㄷ’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ㅈ, ㅈ+ㄷ, ㅈ+ㄴ, ㅈ+ㄹ, ㅈ+ㅅ, ㅈ+ㅆ, ㅈ+ㅇ’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표 37>을 보면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위 표의 ‘櫟’은 『전운옥편』에서 ‘접’과 ‘뎡’으로 표기되고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 ‘접’과 ‘접’으로 나타나 분명히 구개음화를 거칠 수 있고 『전운옥편』까지 혼용(混用)하는 단계에 처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7>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27개, 청모자(淸母字) 17개, 종모자(從母字) 16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26개, 창모자(昌母字) 1개, 선모자(船母字) 3개, 선모자(禪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1개, 승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3개, 철모자(徹母字) 3개, 징모자(澄母字) 19개가 있다. <표 37>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하며 예외로 몇몇 이등자(二等字)도 있다.

<표 37>의 한자음들도 치음(齒音字)과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38>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ㄷ인 자례

- 119) <표 38>의 ‘齠, 齠’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쵸’는 규범음이고, ‘작’은 ‘齠, 齠’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0) <표 38>의 ‘啣’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쵸’는 규범음이고, ‘쥬’는 ‘啣’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旄	쇼	쇼/조	쇼	澄開三全濁	d ^h jæu
篲	쇼	쇼/조	쇼	莊開二全清	ʃau
嘲	쇼	쇼/조	쇼	知開二全清	ʈau
埭	쇼	쇼/조	쇼	澄開三全濁	d ^h jæu
駝	쇼	쇼/조	쇼	澄開三全濁	d ^h jæu
罌	쇼	쇼/조	쇼	章開三全清	tɕjæu
翼	쇼	쇼/조	쇼	莊開二全清	ʃjau
摑	쇼	쇼/조	쇼	澄開三全濁	d ^h jæu
鼉	쇼	쇼/조	쇼	知開三全清	tjæu
燭 ¹¹⁹⁾	쇼, 작	쇼/조, 작	쇼, 작	精開三全清	tsjæu
燭	쇼, 작	쇼/조, 작	쇼, 작	精開三全清	tsjæu
啁 ¹²⁰⁾	쇼, 쥬	쇼/조, 주	쇼, 쥬	知開二全清	ʈau
灑	쇼	쇼/조	쇼	崇開二全濁	dʒ ^h ɔk
昭	쇼	쇼/조	쇼	章開三全清	tɕjæu
沼	쇼俗쇼	쇼/조	쇼俗쇼	章開三全清	tɕjæu
召	쇼俗쇼	쇼/조	쇼俗쇼	澄開三全濁	d ^h jæu
釗	쇼正쇼	쇼/조	쇼正쇼	章開三全清	tɕjæu
炤 ¹²¹⁾	쇼正쇼, 쇼, 작	쇼/조	쇼正쇼, 쇼, 작	章開三全清	tɕjæu
瘡	쥬	쥬/중	쥬	船合三全濁	dʒion
齧	쥬	쥬/중	쥬	章合三全清	tɕjun
懲	쥬	쥬/중	쥬	心合三全清	sjuon
樞	쥬	쥬/중	쥬	禪合三全濁	zjuon
淙	쥬	쥬/중	쥬	從合一全濁	dʒ ^h uon
樞	총正쥬	쥬/중, 총	총正쥬	精合三全清	tsjuon

<표 38>에 제시된 13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ㅂ’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ㅂ, ㄷ+ㅍ’으로 구성된다. 이 글자들이 구개음 환경에 처하고 있는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ㄷ/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ㄷ/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정된다. 만약에 ‘ㄷ>ㄷ’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이 간행된 시기까지 이 과정에서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8>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개, 종모자(從母字) 1개, 심

121) <표 38>의 ‘炤’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쇼’는 규범음이고, ‘正쇼, 쇼, 작’은 ‘炤’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자(心母字) 1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6개, 선모자(船母字) 1개, 선모자(禪母字) 1개, 장모자(莊母字) 2개, 숭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정모자(澄母字) 5개가 있다. <표 38>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한어중고음 삼등자(三等字)에 속하며 예외로 몇몇 이등자(二等字)도 있다¹²²⁾.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39>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ㄱ+ㅍ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郝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佻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講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味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整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侏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俯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駐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籊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躑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d ^h juo
鈇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輞	쥬	쥬/주	쥬	章開三全清	tɕju
躑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絀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軸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噉	쥬	쥬/주	쥬	知開三全清	tju
姝	쥬	쥬/주	쥬	昌合三次清	tɕ ^h juo
室	쥬	쥬/주	쥬	章合三全清	tɕjuo
迨	쥬	쥬/주	쥬	精開三全清	tsju
株	쥬	쥬/주	쥬	知合三全清	tjuo
禡	쥬	쥬/주	쥬	澄合三全濁	d ^h juo

122) 한어중고음의 기준으로 고려하면 이 시기에 정치음은 정치 이등자와 정치 삼등자(三等字)로 구별하여 본다. 이돈주(1997)에서는 근세중국어음에서 知[t]계 성모가 정치 이등(二等)의 장[f]계와 정치 삼등(三等)의 照 [tɕ]계 성모와 합류하여 권설음의 /s, s^h/로 변화한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 이등자(二等字)로 나타나는 것도 한자음 구개음화가 완료된 상태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23) <표 39>의 ‘料’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쥬’는 규범음이고, ‘두’는 ‘料’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稠	쥬	쥬/주, 도	쥬	端開一全清	tau
條	도, 쥬	도/조, 주	도, 쥬	澄開三全濁	d ^h ju
料 ¹²³⁾	쥬, 두	쥬/주, 두	쥬	章合三全清	tɕjuo
繇	쥬	쥬/주	쥬	澄開三全濁	d ^h ju
鬻	죽	죽/죽	죽	章合三次清	tɕiuk
峻	준	준/준	준	精合三全清	tsjuen
越	준	준/준	준	清開三次清	tsh ^h ju
駿	준	준/준	준	心合三全清	sjuen
燾	준	준/준	준	昌合三次清	tɕ ^h juen
嶠	준	준/준	준	心合三次清	siuen
巍	준	준/준	준	清合三次清	tsh ^h juen
准	준	준/준	준	章合三全清	tɕjuen
埠	준	준/준	준	章合三全清	tɕjuen
踰	준	준/준	준	清合三次清	tsh ^h juen
峻	준	준/준	준	精合三全清	tsjuen
驢	준	준/준	준	昌合三次清	tɕ ^h iuen
屯	준	준/준	준	知合三全清	tjuen
竣	순正준	준/준, 순	순正준	心合三全清	sjuen
揆	준	준/준	준	清合三次清	tsh ^h juen
肫	준俗순	준/준, 순	준俗순	章合三全清	tɕjuen
迕	준正둔	준/준, 둔	준正둔	知合三全清	tjuen
窀	준正둔	준/준, 둔	준正둔	知合三全清	tjuen
鍾	중	중/중	중	澄合三全濁	d ^h juoŋ
龢	중	중/중	중	章合三全清	tɕjuŋ
鯛	중	중/중	중	澄合三全濁	d ^h juoŋ
種	중	중/중	중	澄合三全濁	d ^h juoŋ

<표 39>에 제시된 4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ㄱ+ㅍ’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ㄱ+ㅍ, ㄱ+ㅍ, ㄱ+준, ㄱ+ㅇ’으로 구성된다. 위 글자들은 구개음 환경에 처하고 있는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ㄱ/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ㄱ/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ㄱ’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39>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개, 청모자(淸母字) 4개, 심모자(心母字) 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1개, 창모자(昌母字) 3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1개, 정모자(澄母字) 11개가 있다. <표 39>의 한자음은 대부분 개음(介音) /j/ 환경에 해당되며

모두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논의된 바와 같이 치음(齒音字)과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0>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ㅣ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軹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躋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tɕjei
抵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澍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贅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趾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矢	지	지/지	지	書開三全清	ɕjei
沚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結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e
鷺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胝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tɕjei
芷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i
鳩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臍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筱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輕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tɕjei
檣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
痕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ɕjei
踟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
貶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d̪ ^h jei
箎	지	지/지	지	澄開三全濁	d̪ ^h ie

- 124) <표 40>의 ‘坻’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더’는 ‘坻’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25) <표 40>의 ‘禊’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시, 테’는 ‘禊’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26) <표 40>의 ‘質’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질’은 ‘質’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27) <표 40>의 ‘泚’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지’는 규범음이고, ‘치, 더’는 ‘泚’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28) <표 40>의 ‘墳’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진’은 규범음이고, ‘던’은 ‘墳’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29) <표 40>의 ‘唾’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회’는 규범음이고, ‘질, 덜’은 ‘唾’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30) <표 40>의 ‘懟’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집’은 규범음이고, ‘첩’은 ‘懟’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鷲	지	지/지	지	知開三全清	t̚jei
祇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je
耆	기, 지	지/지	기, 지	章開三全清	t̚ci
伎	지俗기	지/지	지俗기	章開三全清	t̚je
坻 ¹²⁴⁾	지, 더	지/지	지, 더	章開三全清	t̚je
氏	지	지/지	지	章開三全清	t̚je
禔 ¹²⁵⁾	지, 시, 데	지, 데/제	지, 시, 데	章開三全清	t̚je
質 ¹²⁶⁾	지, 질	지/지, 질	지, 질	知開三全清	t̚jei
氾 ¹²⁷⁾	지, 치, 더	지, 더/저	지, 치, 더	章開三全清	t̚jei
螭	지俗리	지/지, 리	지俗리	徹開三次清	t̚ʰje
鱣	지俗치	지/지, 치	지俗치	章開三全清	t̚je
憤	지正치	지/지, 치	지正치	知開三全清	t̚jei
穢	직	직/직	직	章開三全清	t̚jək
植	직	직/직	직	知開三全清	t̚jək
臈	직	직/직	직	章開三全清	t̚jək
植	직	직/직	직	澄開三全濁	d̚ʰjək
梓	진	진/진	진	莊開三全清	t̚ʃien
趯	진	진/진	진	穿 次清	t̚ʃ'ien
帳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輶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t̚ʰjen
軫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稹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蔭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ien
縉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嗽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ʰjen
諷	진	진/진	진	昌開三次清	t̚ʰjen
轅	진	진/진	진	精開四全清	tsien
璽	진	진/진	진	徹開三次清	t̚ʰien
璉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黥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倝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扞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ien
瞋	진	진/진	진	昌開三次清	t̚ʰjen
紉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ʰjen
唇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ien
脣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璿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晉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倂	진	진/진	진	崇開二全濁	d̚ʒʰæn
眦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振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玼	진	진/진	진	知開三全清	t̚jen
籟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澹	진	진/진	진	精開三全清	tsjen
振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睽	진	진/진	진	澄開三全濁	d̚ʰjen
鬣	진	진/진	진	章開三全清	t̚cjen
璵 ¹²⁸⁾	진, 던	진/진	진, 던	定開四全濁	d̚ʰien
扶	질	질/질	질	徹開三次清	t̚ʰjet

劑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挫	질	질/질	질	知開三全清	tjet
秩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dʰjet
厓	질	질/질	질	知開三全清	tjet
稭	질	질/질	질	知開三全清	tjet
啞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蒺	질	질/질	질	從開三全濁	dzʰjet
郅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眈	질	질/질	질	徹開三次清	tʰjet
表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dʰjet
狝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dʰjet
鑣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袂	질	질/질	질	澄開三全濁	djet
瓊	질	질/질	질	章開三全清	tɕjet
鷲	질正즐	질/질, 즐	질	章開三全清	tɕjet
啞 ¹²⁹⁾	희, 질, 덜	질, 덜/절	희, 질, 덜	徹開三次清	tʰjet
湫	짐	짐/짐	짐	澄開三全濁	dʰjem
鳩	짐	짐/짐	짐	澄開三全濁	dʰjem
醢	짐	짐/짐	짐	端開一全清	tAm
漑	집	집/집	집	精開三全清	tsjep
趣	집	집/집	집	精開一全清	tsAp
鑊	집	집/집	집	從開三全濁	dzʰjep
噍	집	집/집	집	精開三全清	tsjep
熱 ¹³⁰⁾	집, 접	집/접	집, 접	章開三全清	tɕjep
矚	징	징/징	징	澄開二全濁	dʰɛŋ
澗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dʰjɛŋ
癢	징	징/징	징	知開三全清	tjɛŋ
愷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dʰjɛŋ
瞪	징	징/징	징	澄開三全濁	dʰjɛŋ
惝	징俗탕	징/칭	징俗탕	徹開二次清	tʰɛŋ
瞳	징	징/징	징	徹開二次清	tʰɛŋ

<표 40>에 제시된 10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ㅣ’이고 구개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ㅈ+ㅣ, ㅈ+ㄷ, ㅈ+ㄹ, ㅈ+ㄴ, ㅈ+ㄷ, ㅈ+ㄴ, ㅈ+ㅇ’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ㅈ/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ㅈ’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0>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9개, 종모자(從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44개, 창모자(昌母字) 2개, 천모자(穿母字) 1개, 서모자(書母字) 1개, 장모자(莊母字) 1개, 승모자(崇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2개, 철모자(徹母字) 8개, 징모자(澄母字) 18개가 있다. <표 40>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치음(齒音字)과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표 40>의 ‘坻’, ‘泚’, ‘啞’은 다음자(多音字)의 주음(注音)으로 각각 ‘더’, ‘더’, ‘덜’로 나타나 정치음(正齒音) 삼등자(三等字)와 설상음(舌上音) 삼등자(三等字)에 해당하며 『전운옥편』부터 『자전석요』까지 확실히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ㄹ인 자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獠	계正제	제/제, 계	계正제	章開三全清	tciaei
喇	제	제/제	제	章開三全清	tciaei
儻	제	제/제	제	從開四全濁	dz ^h iaei
整	제	제/제	제	精開四	tsiei
穰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ei
釐	제	제/제	제	章開三全清	tɕjæi
躋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ei
躋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ei
躋	제	제/제	제	從開四全濁	dz ^h iaei
齋	제	제/제	제	精開四全清	tsiei
涉	제	제/제	제	精 全清	tsi
紫	제	제/제	제	精開三全清	tsje
皙 ¹³¹⁾	제, 절	제/제, 절	제, 절	章開三全清	tɕjæi
澗	제, 절	제/제, 절	제, 절	章開三全清	tɕjæi
賁	제俗지	제/제, 지	제俗지	精開三全清	tsjei

- 131) <표 41>의 ‘皙, 澗’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제’는 규범음이고, ‘절’은 ‘皙, 澗’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32) <표 41>의 ‘澗’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제’는 규범음이고, ‘正체, 절’은 ‘澗’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133) <표 41>의 ‘叢’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제’는 규범음이고, ‘正체, 최, 절’은 ‘叢’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純 ¹³²⁾	제정체, 절	제/제, 체, 절	제정체, 절	精合三全清	tsjuæi
叢 ¹³³⁾	제정체, 최, 절	제/제, 절, 최	제정체, 최, 절	從合一全濁	dz ^h uai
皆	제	제/제	제	從開三全濁	dz ^h je
批	제	제/제	제	精開三全清	tsje
玼	체	제/제	체	精開三次清	tshje

<표 41>에 제시된 20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ㄷ’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 /j/에 처하고 있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ㅈ/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ㅈ’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1>에 제시된 글자들은 모두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0개, 청모자(淸母字) 1개, 종모자(從母字) 4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5개가 있다. <표 41>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2>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ㅈ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魏	차	차/차	차	昌開三次清	tɕ ^h ja
參	차	차/차	차	昌開三次清	tɕ ^h ia
禪	차	차/차	차	昌開三次清	tɕ ^h ja
嗟	차	차/차	차	精開三全清	tsja
摺	차	차/차	차	昌開三次清	tɕ ^h ja
碑	차	차/차	차	昌開三次清	tɕ ^h ja
車	차	차/차	차	昌開三次清	tɕ ^h ja
擘	차	차/차	차	精開三全清	tsja
妣	차俗타	차/차, 타	차俗타	徹開二次清	t ^h a
斫	착	착/착	착	章開三全清	tɕjak
媧	착	착/착	착	徹開三次清	t ^h jak
場	창	창/창	창	徹開三次清	t ^h jan

攄	창	창/창	창	昌開三次清	tɕ ^h jaŋ
擘	창	창/창	창	昌開三次清	tɕ ^h jaŋ
昶	창	창/창	창	徹開三次清	tʰ ^h jaŋ
闔	창	창/창	창	昌開三次清	tɕ ^h jaŋ
驚	창	창/창	창	昌開三次清	tɕ ^h jaŋ
偃	창	창/창	창	徹開三次清	tʰ ^h jaŋ
猖	창	창/창	창	昌開三次清	tɕ ^h jaŋ
穅	창	창/창	창	初開三次清	tʃ ^h jaŋ
鬯	창	창/창	창	徹開三次清	tʰ ^h jaŋ

<표 42>에 제시된 21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ㅈ’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ㅈ, ㄷ+ㅈ, ㄷ+ㅈ’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ㄷ/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ㄷ/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ㄷ’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2>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개, 창모자(昌母字) 11개, 초모자(初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철모자(徹母字) 6개가 있다. <표 42>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43>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ㅈ인 사례

- 134) <표 43>의 ‘攄’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척’은 규범음이고, ‘덕’은 ‘攄’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5) <표 43>의 ‘鬯’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철’은 규범음이고, ‘탈俗철’은 ‘鬯’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処	처	처/처	처	昌合三次清	tʰiɔ
萋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ʰiɛi
縷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ʰiɛi
囊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ʰiɛi
淒	처	처/처	처	清開四次清	tsʰiɛi
攄	처俗터	처/처	처俗터	徹開三次清	tʰjo
絮	처	처/처	처	徹開三次清	tʰjo
跡	척	척/척	척	昌開三次清	tʰiæk
墟	척	척/척	척	章開三全清	tɕjek
城	척	척/척	척	清開一次清	tsʰək
彳	척	척/척	척	徹開三次清	tʰjek
憾	척	척/척	척	清開四次清	tsʰiek
螿	척	척/척	척	清開四次清	tsʰiek
擿 ¹³⁴⁾	척, 덕	척/척, 직	척, 덕	澄開三全濁	dʰjek
拓	척	척/척	척	章開三全清	tɕjek
葳	천	천/천	천	徹開三次清	tʰjæɛn
阡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畝	천	천/천	천	禪合三全濁	zjuæɛn
埏	천	천/천	천	徹開三次清	tʰjæɛn
仟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遄	천	천/천	천	禪合三全濁	zjuæɛn
洵	천	천/천	천	從開四全濁	dzʰiɛn
圖	천	천/천	천	禪合三全濁	zjue
楸	천	천/천	천	從合一全濁	dzʰuɛn
荐	천	천/천	천	從開四全濁	dzʰiɛn
芊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縑	천	천/천	천	昌開三次清	tɕjæɛn
葺	천	천/천	천	昌合三次清	tɕʰjuæɛn
茜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幘	천	천/천	천	昌開三次清	tɕʰjæɛn
摠	천	천/천	천	清開三次清	tsʰiæɛn
銜	천	천/천	천	從開四全濁	dzʰiɛn
儻	천	천/천	천	從開三全濁	dzʰjæɛn
燁	천	천/천	천	昌開三次清	tɕʰjæɛn
裕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礎	천	천/천	천	昌開三次清	tɕʰjæɛn
端	천	천/천	천	昌合三次清	tɕʰiuæɛn
轄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輓	천	천/천	천	徹開三次清	tʰiæɛn
扞	천	천/천	천	清開三次清	tsʰjæɛn
串	천	천/천	천	見合二全清	kuan
竈	천	천/천	천	清合三次清	tsʰjuæɛi
精	천	천/천	천	清開四次清	tsʰiɛn
儻	천	천/천	천	禪開三全濁	zjæɛn
擘	천	천/천	천	昌開三次清	tɕʰjæɛn
綴	철	철/철	철	知合二全清	tʰuat

憊	철	철/철	철	知合三全清	tjuæt
喆	철	철/철	철	知開三全清	tjæet
蜚	철	철/철	철	知開三全清	tjæet
叢	철	철/철	철	知合三全清	tjuæt
耿	철	철/철	철	徹開三次清	tʰjæet
𪗇 ¹³⁵⁾	철, 탈俗철	철/철, 탈	철, 탈俗철	知合三全清	tjuæt
𪗈	탈俗철	철/철, 탈	탈俗철	清合三次清	tsʰjuæt
僉	첨	첨/첨	첨	清開三次清	tsʰjæem
幘	첨	첨/첨	첨	昌開三次清	tɕʰjæem
調	첨	첨/첨	첨	徹開三次清	tʰjæem
躡	첨	첨/첨	첨	昌開三次清	tɕʰjæem
簽	첨	첨/첨	첨	清開三次清	tsʰiæem
袞	첨	첨/첨	첨	昌開三次清	tɕʰjæem
詹	첨	첨/첨	첨	章開三全清	tɕjæem
諄	첨	첨/첨	첨	昌開三次清	tɕʰjæem
幟	첨	첨/첨	첨	清開三次清	tsʰjæem
塹	첨俗참	첨/첨, 참	첨俗참	清開三次清	tsʰjæem
𪗉	첨俗참	첨/첨, 참	첨俗참	清開三次清	tsʰiæem
佔	첨正덤	덤/첨, 첨	첨正덤	端開四全清	tiem
𪗊	첨	첨/첨	첨	昌開三次清	tɕʰjæem
檐	염俗첨	첨/첨, 염	염俗첨	以開三次濁	ɔjæem
燂	첨	첨/첨	첨	從開三全濁	dzʰjæem
灑	첨	첨/첨	첨	從開三全濁	dzʰjem
憊	첨	첨/첨	첨	清開四次清	tsʰiɛm
槩	참, 첨	첨/첨, 참	참, 첨	清開三次清	tsʰjæem
楷	첨正즈	첨/첨	첨正즈	從開三全濁	dziem
𪗋	첨正섬	첨/첨, 섬	첨正섬	章開三全清	tɕiæem
諄	첨正섬	첨/첨, 섬	첨正섬	章開三全清	tɕiæem
潛	첨正즈	첨/첨	첨正즈	從開三全濁	dzʰjæem
𪗌	첩	첩/첩	첩	精開三全清	tsjæp
𪗍	첩	첩/첩	첩	清開三次清	tsʰjæp
諫	첩	첩/첩	첩	從開三全濁	dzʰjæp
帆	첩	첩/첩	첩	透開四次清	tʰiɛp
婕	첩	첩/첩	첩	精開三全清	tsjæp
鯢	첩	첩/첩	첩	知開三全清	tjæp
捷	첩	첩/첩	첩	從開三全濁	dzʰjæp
捷	첩	첩/첩	첩	清開三次清	tsʰjæp
攄	청	청/청	청	清開四次清	tsʰiɛŋ
媿	청	청/청	청	精開三全清	tsjɛŋ
浬	청	청/청	청	從開三全濁	dziɛŋ
賄	청	청/청	청	從開三全濁	dzʰiɛŋ

<표 43>에 제시된 87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ㄷ’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ㅈ, ㄷ+ㅊ, ㄷ+ㄺ, ㄷ+ㄻ, ㄷ+ㄼ, ㄷ+ㄽ, ㄷ+ㄾ, ㄷ+ㄿ’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

성 /츠/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츠/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츠’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3>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3개, 청모자(淸母字) 28개, 종모자(從母字) 13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5개, 창모자(昌母字) 14개, 선모자(禪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투모자(透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7개, 철모자(徹母字) 8개, 정모자(澄母字) 1개가 있다. 나머지 두 글자는 아음(牙音)인 견모자(見母字)와 이모자(以母字)이다. <표 43>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치음(齒音字)과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표 43>의 ‘憵’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의 주음(注音)인 ‘덕’으로 나타났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佔’은 『전운옥편』에서 정음 ‘덤’으로 나타나 설두음(舌頭音) 단모자(端母字)에 속하여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4> 초성과 중성 구조가 츠+ㄱ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焦	츠	츠/초	츠	精開三全淸	tsjæu
鋤	츠	츠/초	츠	章開三全淸	tɕjæu
癩	츠	츠/초	츠	莊開二全淸	tʃau
醮	츠	츠/초	츠	精開三全淸	tsjæu
鈔	츠	츠/초	츠	初開二次淸	tʃʰau
剿	츠	츠/초	츠	精開三全淸	tsjæu

136) <표 44>의 ‘憵, 欸’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츠’는 규범음이고, ‘츄’는 ‘憵, 欸’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嫖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iæu
峭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iæu
焦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怊	ㄷ	ㄷ/ㄷ	ㄷ	昌開三次清	tɕ ^h jæu
謙	ㄷ	ㄷ/ㄷ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悄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jæu
鏊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jæu
勦	ㄷ	ㄷ/ㄷ	ㄷ	崇開二全濁	dʒ ^h au
輶	ㄷ	ㄷ/ㄷ	ㄷ	崇開二全濁	dʒ ^h au
諷	ㄷ	ㄷ/ㄷ	ㄷ	初開三次清	tʃ ^h ju
顛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憔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剝	ㄷ	ㄷ/ㄷ	ㄷ	精開四全清	tsiɕu
嶠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麪	ㄷ	ㄷ/ㄷ	ㄷ	昌開三次清	tɕ ^h jæu
鷓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譙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椒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澗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jæu
諛	ㄷ	ㄷ/ㄷ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襍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噍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愀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jæu
膳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諛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趨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陷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jæu
抄	ㄷ	ㄷ/ㄷ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稊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黷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鍬	ㄷ	ㄷ/ㄷ	ㄷ	穿 次清	tʃ ^h iau
秒	ㄷ	ㄷ/ㄷ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燥	ㄷ	ㄷ/ㄷ	ㄷ	清開三次清	ts ^h jæu
焦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巢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燭	ㄷ	ㄷ/ㄷ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蕉	ㄷ	ㄷ/ㄷ	ㄷ	精開三全清	tsjæu
樵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炒	ㄷ	ㄷ/ㄷ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鏹	ㄷ	ㄷ/ㄷ	ㄷ	從開三全濁	dz ^h jæu
趕	ㄷ	ㄷ/ㄷ	ㄷ	徹開二次清	tʃ ^h au
踔	ㄷ	ㄷ/ㄷ, ㄷ	ㄷ	徹開二次清	tʃ ^h au
湫 ¹³⁶⁾	ㄷ, ㄱ	ㄷ/ㄷ, ㄱ	ㄷ, ㄱ	清開三次清	ts ^h ju
絞	ㄷ, ㄱ	ㄷ/ㄷ, ㄱ	ㄷ, ㄱ	清開三次清	ts ^h jæu
灑	ㄷ正 ㄷ	ㄷ/ㄷ, ㄷ	ㄷ正 ㄷ	精開三全清	tsjæu
巢	ㄷ正 ㄷ	ㄷ/ㄷ, ㄷ	ㄷ正 ㄷ	崇開二全濁	dʒ ^h au
杪	ㄷ俗 ㄷ	ㄷ/ㄷ, ㄷ	ㄷ俗 ㄷ	初開二次清	tʃ ^h au
肖	ㄷ	ㄷ/ㄷ	ㄷ	心開三全清	sjæu

哨	쇼	쇼/초	쇼	淸開三次淸	ts ^h jæu
俏	쇼	쇼/초	쇼	淸開三次淸	ts ^h jæu
綃	쇼俗쇼	쇼/초	쇼俗쇼	心開三全淸	sjæu
鞘	쇼俗쇼	쇼/초	쇼俗쇼	心開三全淸	sjæu
鞘	쇼俗쇼	쇼/초	쇼俗쇼	心開三全淸	sjæu
稍	쇼正쇼	쇼/초	쇼正쇼	生開二全淸	ʃau
軺	요俗쇼	쇼/초, 요	요俗쇼	禪開三全濁	zjæu
輶	요俗쇼	쇼/초, 요	요俗쇼	以開三次濁	ʔiæu
觸	축	축/축	축	昌合三次淸	tɕ ^h juok
燭	축	축/축	축	章合三全淸	tɕjuok
燭	축	축/축	축	照 全淸	tʃyuk
鑪	축	축/축	축	知合三全淸	tjuok
躡	축	축/축	축	澄合三全濁	d ^h juok
矚	축	축/축	축	章合三全淸	tɕjuok
囑	축	축/축	축	章合三全淸	tɕjuok
踰	축	축/축	축	澄合三全濁	d ^h iok
瑠	축	축/축	축	禪合三全濁	zjuok
灑	축	축/축	축	章合三全淸	tɕiok
于	축	축/축	축	徹合三次淸	t ^h juok
襖	축	축/축	축	禪合三全濁	zjuok
矚	축	축/축	축	照 全淸	tʃyuk
屬	축	축/축	축	章合三全淸	tɕjuok
瘡	축	축/축	축	知合三全淸	tjuok
斲	축, 착	축/축, 착	축, 착	知合三全淸	tjuok
歎	축	축/축	축	昌合三次淸	tɕ ^h juok
蜀	속正축	축/축, 속	속正축	禪合三全濁	zjuok
蠋	속正축	축/축, 속	속正축	章合三全淸	tɕjuok
鞮	속正축	축/축 속	속正축	船合三全濁	ziok
龍	총	총/총	총	穿 次淸	tʃ'yun

<표 44>에 제시된 83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ㅂ’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ㅂ, ㄷ+ㅍ, ㄷ+ㅇ’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ㄷ/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ㄷ/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ㄷ’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4>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5개, 청모자(淸母字) 11개, 중

모자(從母字) 10개, 심모자(心母字) 4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7개, 조모자(照母字) 2개, 창모자(昌母字) 4개, 천모자(穿母字) 2개, 선모자(船母字) 1개, 선모자(禪母字) 4개, 장모자(莊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9개, 승모자(崇母字) 3개, 생모자(生母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3개, 철모자(徹母字) 3개, 정모자(澄母字) 2개가 있다. 나머지 한 글자는 아음(牙音)인 이모자(以母字)이다. <표 44>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와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표 45>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ㅍ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啾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芻	츄	츄/추	츄	初合三次清	tʃʰjuo
雛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徇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綯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佳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筵	츄	츄/추	츄	章開三全清	tɕju
羆	츄	츄/추	츄	徹合三次清	tʰjuo
臭	츄	츄/추	츄	昌開三次清	tɕʰju
篁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
菽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榘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iue
擘	츄	츄/추	츄	精開三全清	tsju
雛	츄	츄/추	츄	崇合三全濁	dʒʰjuo
趨	츄	츄/추	츄	清開三次清	tsʰju
酋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鯪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惆	츄	츄/추	츄	徹開三次清	tʰiəu
椎	츄	츄/추	츄	澄合三全濁	dʰjuei
就	츄	츄/추	츄	從開三全濁	dzʰju
錐	츄	츄/추	츄	章合三全清	tɕjuei

137) <표 45>의 ‘出’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출’은 ‘出’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38) <표 45>의 ‘蹶’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츄’는 규범음이고, ‘턱’은 ‘蹶’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秋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ju
嶽	츨	츨/추	츨	從開三全濁	dz ^h ju
縋	츨	츨/추	츨	澄合三全濁	d ^h jue
穉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ju
聚	츨	츨/추	츨	從合三全濁	dz ^h juo
揪	츨	츨/추	츨	精開三	tsiu
鞦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ju
鯨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ju
娶	츨	츨/추	츨	清合三次清	ts ^h juo
媿	츨	츨/추	츨	精合三全清	tsjuo
騅	츨	츨/추	츨	章合三全清	tɕjuei
鶩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ju
髓	츨	츨/추	츨	澄合三全濁	d ^h jue
樛	츨	츨/추	츨	精合三全清	tsjuei
孺	츨	츨/추	츨	昌開三次清	tɕ ^h ju
鷲	츨	츨/추	츨	從開三全濁	dz ^h ju
醜	츨	츨/추	츨	昌開三次清	tɕ ^h ju
楸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ju
捶	츨	츨/추	츨	澄合三全濁	d ^h jue
甄	츨	츨/추	츨	澄合三全濁	d ^h jue
帚	츨	츨/추	츨	章開三全清	tɕju
鞦	츨	츨/추	츨	清開三次清	ts ^h ɿəu
礎	츨	츨/추	츨	端合一全清	tuAi
樞	츨	츨/추	츨	昌合三次清	tɕ ^h juo
取	츨	츨/추	츨	清合三次清	ts ^h juo
諏	츨	츨/추	츨	精合三全清	tsjuo
趣	츨	츨/추	츨	清合三次清	ts ^h juo
出 ¹³⁷⁾	츨, 츨	츨/추, 츨	츨, 츨	昌合三次清	tɕ ^h juei
髻	츨	츨/추	츨	澄合三全濁	d ^h jue
槌	츨	츨/추, 퇴	츨	澄合三全濁	d ^h juei
魑	츨	츨/추, 퇴	츨	定合一全濁	d ^h uAi
鎚	츨	츨/추, 퇴	츨	澄合三全濁	d ^h juei
槌	츨	츨/추, 퇴	츨	端合一全清	tuAi
推	츨	츨/추, 퇴	츨	昌合三次清	tɕ ^h juei
萑	츨	츨/추	츨	章合三全清	tɕjuei
擘	츨正츨	츨/추, 주	츨正츨	昌開三次清	tɕ ^h ju
擷	츨	츨/추	츨	精合三全清	tsjuo
榷	츨	츨/추	츨	莊開三全清	tʃju
蝮	츨	츨/추, 유	츨	精開三全清	tsju
醜	츨	츨/추, 수	츨	昌開三次清	tɕ ^h ju
蕪	츨	츨/추, 수	츨	禪合三全濁	zjue
藪	츨正츨	츨/추, 수	츨正츨	禪開三全濁	zju
杻	츨	츨/추	츨	徹開三次清	t ^h ju
緘	츨	츨/츨	츨	精合三全清	tsjuk
遂	츨	츨/츨	츨	徹合三次清	t ^h juk
蹴	츨	츨/츨	츨	精合三全清	tsjuk
蠍	츨	츨/츨	츨	精合三全清	tsjuk
閔	츨	츨/츨	츨	初合三次清	tʃjuk

鯨	축	축/축	축	澄合三全濁	d ^h ju:k
祝	축	축/축	축	昌合三次清	tɕ ^h ju:k
頤	축	축/축	축	精合三全清	tsju:k
稽	축	축/축	축	徹合三次清	tʰju:k
盛	축	축/축	축	精合三全清	tsju:k
筑	축	축/축	축	澄合三全濁	d ^h ju:k
蹶 ¹³⁸⁾	축, 덕	축/축, 적	축, 덕	精合三全清	tsju:k
羸	축正축	축/축, 축	축正축	初合三次清	tʃ ^h ju:k
祝	축	축/축, 추	축	章開三全清	tɕju
縮	축	축/축, 속	축	生合三全清	ʃju:k
蹠	축俗축	축/축, 속	축俗축	生合三全清	ʃju:k
春	춘	춘/춘	춘	昌合三次清	tɕ ^h ju:en
荀	춘	춘/춘	춘	徹合三次清	tʰju:en
樞	춘	춘/춘	춘	徹合三次清	tʰju:en
杵	춘	춘/춘	춘	徹合三次清	tʰju:en
輻	춘俗춘	춘/춘, 춘	춘俗춘	徹合三次清	tʰju:en
諄	춘正춘	춘/춘, 춘	춘正춘	章合三全清	tɕju:en
紬	출	출/출	출	知合三全清	tʃju:et
幢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衝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燼	충	충/충	충	澄合三全濁	d ^h ju:ŋ
衝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恍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种	충	충/충	충	澄合三全濁	d ^h ju:ŋ
冲	충	충/충	충	澄合三全濁	d ^h ju:ŋ
茱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充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種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忡	충	충/충	충	徹合三次清	tʰju:ŋ
琿	충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盅	충	충/충	충	徹合三次清	tʰju:ŋ
懂	충俗동	동, 충/충	충俗동	昌合三次清	tɕ ^h ju:ŋ
幢	충	동,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置	충	동, 충/충	충	昌合三次清	tɕ ^h ju:ŋ
悤	충	충/충	충	徹合三次清	tʰju:ŋ
備	충	충/충	충	徹合三次清	tʰju:ŋ

<표 45>에 제시된 105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ㅍ’이고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ㅍ, ㄷ+ㅍ, ㄷ+ㅍ, ㄷ+ㅍ, ㄷ+ㅍ’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ㄷ/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ㄷ/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ㄷ>ㄷ’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5>에 제시된 글자들은 대부분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15개, 청모자(淸母字) 13개, 종모자(從母字) 6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1개, 창모자(昌母字) 21개, 선모자(禪母字) 2개, 장모자(莊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3개, 숭모자(崇母字) 1개, 생모자(生母字) 2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2개, 정모자(定母字) 1개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1개, 철모자(徹母字) 13개, 징모자(澄母字) 13개가 있다. <표 45>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과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 한자음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를 거쳤을 수도 있음을 추측한다.

그 밖에 <표 45>의 ‘蹶’은 『전운옥편』에서 다음자의 주음(注音)인 ‘턱’으로 나타났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6> 초성과 중성 구조가 ㄷ+ㅣ인 사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侍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i
媿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i
卮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ʃje
熾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i
蚩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i
侈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je
齒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i
饑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i
糴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ʃʰi
序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ʰi
郟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ʰjei

139) <표 46>의 ‘侈’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치’는 규범음이고, ‘차’는 ‘侈’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40) <표 46>의 ‘糴’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치’는 규범음이고, ‘테’는 ‘糴’의 구개음 환경에 있는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時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
時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i
稔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e
脛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 ^h jei
齟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 ^h ie
禩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je
峙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
侈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je
齧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 ^h i
峙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
滄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jei
鴟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 ^h jei
眇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幟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i
痴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 ^h i
甌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 ^h jei
樞	치	치/치	치	章開三全清	tɕje
杔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 ^h je
眙	치	치/치	치	徹開三次清	t ^h i
埴	치	치/치	치	昌開三次清	tɕ ^h i
植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i
嵯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 ^h je
廡	치	치/치	치	澄開三全濁	d ^h je
哆 ¹³⁹⁾	치, 차	치, 차/차	치, 차	昌開三次清	tɕ ^h i
廁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 ^h i
差	치,	치/치	치	初開三次清	tʃ ^h je
阨	치	치/치	치	書開三全清	ɕje
薙 ¹⁴⁰⁾	치, 테	치, 테/체	치, 테	邪開三全濁	zjei
鬻	치俗리	치/치	치俗리	徹開三次清	t ^h je
擿	치俗리	치/치	치俗리	徹開三次清	t ^h je
魑	치俗리	치/치	치俗리	徹開三次清	t ^h je
敕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t ^h jək
鴟	칙	칙/칙	칙	徹開三次清	t ^h jək
剖	칙	칙/칙	칙	清開一次清	ts ^h ak
親	친	친/친	친	清開三次清	ts ^h jen
七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 ^h jet
榛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 ^h jet
漆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 ^h jet
黍	칠	칠/칠	칠	清開三次清	ts ^h jet
浸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 ^h jem
錠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jæm
寢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 ^h jem
篋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 ^h jem
綸	침	침/침	침	徹開三次清	t ^h jem
跚	침	침/침	침	初開三次清	tʃ ^h iem
針	침	침/침	침	章開三全清	tɕjem
駸	침	침/침	침	清開三次清	ts ^h jem
霰	침	침/침	침	澄開三全濁	d ^h jem
寢	침	침/침	침	精開三全清	tsiem

侵	침	침/침	침	淸開三次淸	ts ^h jem
葢	침	침/침	침	章開三全淸	tɕjem
搃	침	침/침	침	知開三全淸	t̚jem
寢	침	침/침	침	淸開三次淸	ts ^h jem
蹠	침	침/침	침	徹開三次淸	t̚ ^h jem
寢	침	침/침	침	淸開三次淸	ts ^h jem
蹠	침	침/침	침	徹開三次淸	t̚ ^h jem
澆	침	침/침	침	精開三全淸	tsjem
柳	침	침/침	침	徹開三次淸	t̚ ^h jem
棖	침	침/침	침	精開三全淸	tsjem
枕	침	침/침	침	章開三全淸	tɕjem
禛	침	침/침	침	精開三全淸	tsjem
沉	침	침/침	침	澄開三全濁	d̚ ^h jem
璦	침	침/침	침	徹開三次淸	t̚ ^h jem
緝	침	침/침	침	淸開三次淸	ts ^h jem
鍼	침	침/침	침	章開三全淸	tɕjem
楫	침	침/침	침	知開三全淸	t̚jem
沁	침俗심	침/침	침俗심	淸開三次淸	ts ^h jem
箴	침俗즘	침/침	침俗즘	章開三全淸	tɕjem
瀋	침正심	침/침	침正심	昌開三次淸	tɕ ^h jem
闡	침正츰	침/침	침正츰	徹開三次淸	t̚ ^h jem
帶	칩	칩/칩	칩	知開三全淸	t̚jep
繫	칩	칩/칩	칩	知開三全淸	t̚jep
繫	칩	칩/칩	칩	徹開三次淸	t̚ ^h jep
倂	칭	칭/칭	칭	昌開三次淸	tɕ ^h jəŋ
秤	칭	칭/칭	칭	昌開三次淸	tɕ ^h jəŋ
稱	칭	칭/칭	칭	昌開三次淸	tɕ ^h jəŋ
騁	칭俗빙	칭/칭	칭俗빙	徹開三次淸	t̚ ^h jɛŋ
儻	칭正등	칭/칭	칭正등	徹開三次淸	t̚ ^h jəŋ

<표 46>에 제시된 89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ㄷ+ㅣ’이고 구개음 환경 /i/에 해당하고 있다. 중성까지 보면 위 한자음들은 ‘ㄷ+ㅣ, ㄷ+ㄴ, ㄷ+ㄹ, ㄷ+ㄷ, ㄷ+ㅁ, ㄷ+ㅂ, ㄷ+ㅇ’으로 구성된다. 위 한자음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ㄷ/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ㄷ/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ㅌ>ㄷ’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6>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정모자(精母字) 5개, 청모자(淸母字) 15개, 사모자(邪母

字) 1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장모자(章母字) 10개, 창모자(昌母字) 16개, 서모자(書母字) 1개, 초모자(初母字) 4개가 있다. 그 외에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4개, 철모자(徹母字) 20개, 정모자(澄母字) 13개가 있다. <표 46>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모두 삼등자(三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표 46>의 ‘籀’는 『전운옥편』에서 다음자의 주음(注音)인 ‘테’로 나타났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체’로 표기하여 구개음화를 거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표 47> 초성과 중성 구조가 ㅈ+ㅞ인 자례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搨	체	체/체	체	端開四全清	tɕi
漑	체	체/체	체	昌開三次清	tɕʰje
際	체	체/체	체	清開四次清	tsʰiɕi
癩	체	체/체	체	知開三全清	tɕæi
齧 ¹⁴¹⁾	체, 철	체/체, 철	체, 철	知合三全清	tɕjuæi
噉	체, 철	체/체, 철	체, 철	知合三全清	tɕjuæi
餽	체, 철	체/체, 철	체, 철	知合三全清	tɕjuæi
際	체正제	제, 체/체	체正제	徹開三次清	tɕʰjæi
泚	체	체/체	체	清開三次清	tsʰje

<표 47>에 제시된 9자에 대응한 한자음의 초성과 중성 구조는 모두 ‘ㅈ+ㅞ’이고 받침 위치의 음소가 없다. 위 한자음들은 구개음 환경 /j/에 해당하지만,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한자음 처음부터 바로 초성 /ㅈ/로 표기하는지를 고찰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한자음 처음부터 초성 /ㅈ/로 표기하면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ㅞ>ㅈ’의 변화를 거쳤다면 중세한국어 시기에서 『전운옥편』까지 해당 한자음은 구개음화 현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변화가 없으므로

141) <표 47>의 ‘齧, 噉, 餽’에 대해 『전운옥편』 주음의 ‘체’는 규범음이고, ‘철’은 ‘齧, 噉, 餽’의 다음자로 표시한다. 『신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타나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어중고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표 47>에 제시된 글자들은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며 치두음(齒頭音)인 청모자(淸母字) 2개가 있고 정치음(正齒音)인 창모자(昌母字) 1개가 있다. 그 외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 1개,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 4개, 철모자(徹母字) 1개가 있다. <표 47>의 한자음은 개음(介音) /i/와 /j/ 환경에 해당되며 삼등자(三等字)와 사등자(四等字)에 속한다. 앞에 살펴본 바를 통해 치음(齒音字)과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한어중고음 측면으로 볼 때 설음(舌音)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설상음(舌上音)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가능성이 크다.

4. 『전운옥편』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

4.1. 구개음화 실현된 한자음의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개음화와 관련된 1,595자 중에 중세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30자일 뿐이다. 이 730자 중 구개음화를 거친 것은 많지 않다. 중세시기의 한자음과 대조하여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중 확실하게 구개음화가 이미 완성된 것이 총 199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ㄷ+i, j>ㅈ+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112자, ‘ㅌ+i, j>ㅊ+i, j’에 해당하는 한자음은 87자로 확인된다.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를 거치면서 구개음화를 겪은 예로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

1) ‘ㄷ+i, j>ㅈ+i, j’에 해당하는 사례(字例)

場장 (L당 <자회上:3b/7a>), 丈장 (R당 <자회中:9b/19a>), 杖장 (R당<자회中:9b/19a>), 長장

(R당/H당/L당 <천자:8b>), 張장 (L당 <자회下:5b/10a>), 腸장 (L당 <진언:20a>), 仗장 (R당 <진언:37b>), 帳장 (R당 <번소七:13a>), 篠저 (L데 <번소六:25a, 소학五:23a>), 除저(L데/L더 <유합下:58b>, 번소八:18a), 筋저 (R더 <자회中: 6a/11a>), 楮저 (R더 <자회上:5b/10b>), 箸저 (R더 <번소四:26a, 九:76a>), 貯저 (X더 <유합하:43a>), 苧저 (R더 <자회上:4b/9a>), 猪저 (L더 <자회上:10a/19a>), 瀝저 (L더 <자회上:3a/5b>), 杼저 (R더 <자회中:9a/18a>), 擣저 (L더 <자회下:10a/22a>), 豬저 (X더 <유합上:14a>), 儲저 (L더 <자회中:1a/1a>), 著저, 착 (R더 <유합상:10a>), 樗저, 화 (L더 <자회上:5b/10b>), 抵지, 더(R더/H더/R데/H데 <소학五:72a,111b, 유합下:41b, 소학五:60b, 75a>), 謫적(L덕 <자회下:13a/29b>, 유합下:21a), 摘적, 덕 (X덕 <유합下:46a>), 展전 (X던 <유합下:8b>), 塵전 (L던<자회中:5a/8a>), 馭전 (R던 <자회下:5a/10a>), 纏전 (L던 <유합下:54b>), 傳전(L던 <육조序:4a, 번소六:1a, 천자:10a>), 轉전 (R던 <자회下:1a/1a>), 稭정 (L덩 <자회下:9a/19b>), 楨정 (L덩 <중용:36a>), 鋳정 (R덩 <자회下:7b/16a>), 幘정 (L덩 <자회中:14b/30a>), 呈정 (L덩 <자회上:18b/35b>), 程정 (L덩 <유합下:60a>), 蝗정(L덩 <자회上:10b/20a>), 檉정 (L덩 <자회上:5b/10a>), 鄭정 (R덩 <번소九:63b>), 貞정 (L덩 <자회下:11b/25b>), 偵정 (X덩 <유합下:42b>), 梘정(正정 (L덩 <논어一:44a²>), 潮조 (L도 <자회上:2b/5a>), 嘲조 (L도 <자회下:4a/8b>), 肇조 (X도 <유합下:57a>), 趙조 (R도 <천자:25a>), 兆조 (L도/R도 <유합下:58a>), 朝조 (L도 <자회上:1b/2a>), 晁조 (L도 <번소九:80a, 소학六:74a>), 住쥬 (H듀 <번소九:68b>), 胄쥬 (R듀 <자회中:14a/28a>), 紂쥬 (H듀 <소학四:24a²>), 株쥬 (L듀 <자회下:2a/3b>), 宙쥬 (R듀 <자회上:1a/1a>), 拄쥬 (R듀 <자회下:8a/17a>), 廚쥬 (L듀 <자회中:5b/9b>), 籌쥬 (L듀 <자회下:10a/22a>), 稠쥬(X듀 <유합下:52b>), 調도, 쥬(L도 <천자:2a, 유합下:60a>), 幬쥬 (L듀 <자회中:7b/13b>), 僑쥬 (L듀 <유합下:36a>), 柱쥬 (R듀 <자회中:4a/6b>), 晝쥬 (R듀 <자회上:1a/1b>), 紬쥬 (L듀 <자회中:15a/31a>), 蛛쥬 (L듀 <자회上:11a/21a>), 疇쥬 (L듀 <자회上:4a/7a>), 輻쥬 (L듀 <자회中:13a/26b>), 誅쥬 (L듀 <천자:38b>), 肘쥬 (R듀 <자회上:13b/26a>), 幬도, 쥬 (H도 <중용:48a>), 竹죽 (Hдук <자회上:4a/8a>), 中중 (L똥 <자회下:15a/34b>), 仲중 (R똥/H똥 <번소十:26a, 중용:47b>), 重중 (R똥 <천자:3b>), 箠지 (X디<유합下:16b>), 擘지 (L디 ◀뽕 L디<자회中:3b/6a>), 蚩지 (L디 <자회上:11a/21a>), 知지 (L디 <천자:8a>), 智지 (H디 <자회下:11b/26a>), 持지 (L디 ◀디닐 씨/가질 디<천자:17b>), 蚩지 (L디 <맹자四:15a, 15b²>), 躋지 (R티 <번소六:27b, 소학五:25b>), 遲지 (L디 <유합下:57a>), 池지, 타 (L디 <자회中:5a/8b>), 直직, 치 (H딕 <자회下:12b/29a>), 疚진 (R딘 <맹자十三:12a>), 鎮진 (H딘/R딘 <진언:43a>), 陣진 (H딘 <육조上:27a², 소학二:35a>), 疹진(L딘 <자회상:4a/7a>), 疹진(H딘 <자회中:16a/33b>), 疹진(R딘 <소학四:48b>), 疹진(R딘 <맹자十

三:3a/32a>), 墳진, 던(L던 <맹자一:6b, 유합下:20a>)珍진 (L던 <자회中:15b/31b(珍)>), 陳진 (H던 <논어四:1a, 27a, 맹자十四:3a>), 纘진 (X던 <유합下:4b>), 診진 (X던 <유합下:18a>), 塵진 (L던 <자회下:8b/18b>), 趁진, 년正던 (X던 <유합下:42a>), 帙질 (H딜 <자회上:18a/34b>), 梘질(H딜 <맹자十三:2a>), 蝱질(H딜 <자회上:12a/23a>, 유합上:16a)銍질 (H딜 <자회中:8b/16a>), 秩질 (H딜 <유합下:20b>), 窒질, 덜 (H딜 <논어四:44a>), 姪질, 덜 (H딜 <자회上:16b/32a>), 朕집 (L딜<논어四:67b>), 懲징 (L딩 <맹자五:30a, 六:32a>), 澄징 (L딩 <삼단:24b>), 徵지, 징(L딩 <자회下:9b21a, 유합下:58a>)

위의 예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에 본래 ‘ㄷ+i, j’로 실현되던 한자이다. 이 한자음들은 중세 한국어부터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 시기까지 ‘ㄷ+ i, j>ㅈ+ i, j’의 확산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위에 제시한 한자음들은 적어도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ㅌ+i, j>ㅊ+i, j’에 해당하는 사례(字例)

着착 (H탁 <자회下:9a/19b>), 悵창 (X탕 <유합下:35a>), 漲창 (R탕 <자회下:15a/35b>), 輶창 (R탕 <자회中:14b/29b>), 暢창 (R탕 <맹자五:22b>), 脹창 (R탕 <자회中:16a/33b>), 擲척 (H탁 <자회下:10a/22b>), 躑척 (H척 <변소九:99b, 소학六:92b>), 陟척 (X척 <천자:29a>), 撤철 (H털 <변소七:19b, 소학三:26a>), 黻철(H털 <변소四:27a>), 掣체, 철(H털 <변소十:25a, 소학六:123a>), 綴체, 철(H털 <소학二:7b, 유합下:24b>), 輟철 (H털 <변소七:44a, 소학五:75b>), 澈철 (X털 유합下:37a>), 哲철 (H털 <자회下:11a/25b>), 輟철 (X털 <유합下:58a>), 徹철 (H털 <유합下:31a>), 啜철 (H털 <자회下:7a/14b>), 擻탈俗철 (X털 <유합下:46b>), 輒첩(H텨 <변소七:20a, 소학四:41b>), 諂첩 (R텨 <자회下:12b/29a>), 沾첩, 텨 (L텨 <유합下:50b>), 覘첩正첩(R텨 <자회下:12a/27a>), 廳청 (L텨 <자회中:3a/4b>), 韶초(L톈 <자회下:5a/10a>), 招초, 교(L톈 <천자:32a, 유합下:34b>), 躑축 (X톡 <유합上:7b>), 躑축 (H톡 <자회上:4a/7b>), 冢총 (R통 <소학二:18b 논어三:70a, 五:6a>), 寵총 (R통 <자회下:14a/33a>), 塚총 (H통 <자회中:17a/35b>), 墜츄 (H튜 <소학題:4a, 五:97b>), 椎츄 (L퇴 <자회中:9b/18b>), 抽츄 (L튜 <맹자八:17a>), 舳츄, 축 (H톡 <자회上:16a/31a>), 錘츄 (H튜 <자회中:6b/11b>), 捶츄, 타(L튜 <변소九:63b, 소학六:58b>), 畜츄, 휴, 축, 흑(H톡 <유합下:14a>), 瘳츄 (L튜 <소학四:16b>), 丑츄 (R튜 <맹자三:1a², 四:17a, 六:21b>), 追츄, 퇴 (L튜 <변소七:29a, 소학五:61ba>), 樅츄(L통 <소학六:68b, 70a, 70b>), 軸츄 (H톡 <자회中:13a/26b>), 蓄츄 (X톡 <유합下:17b>), 舳츄

(H톡 <자회中:13a/26a>), 築축 (H톡 <자회下:8a/17a>), 逐축, 덕 (H톡 <자회下:13a/30a>), 竺축, 독 (H톡 <육조上:5b, 中:109a>), 柚유, 축 (톡(器皿)<『훈몽자회』: ?권 ?ab>), 秫술俗출(H 톨 <자회上:7a/12b>), 怵출 (H톨 <소학二:25a, 맹자三:30b>), 黜출 (H톨 <자회하:13a/30a>), 術술正출 (X톨 <유합上:8a>), 冲충 (L퉁(<자회上:17a/32b>), 衷충 (L퉁 <자회下:15a/34b>), 蟲충 (L퉁 <자회下:2a/3a>), 狃충 (L퉁 <자회下:4b/8a>), 忠충 (L퉁 <자회下:11a/25b>), 値치 (X티 <유합下:29a>), 締치 (L티 <자회中:15a/30b>), 置치 (R티/H티 <유합下:13b>), 癡치 (L 티 <자회下:13a/30b>), 治치 (H티 <천자:28a>), 雉치 (R티 <자회上:9a/16b>), 緻치 (X티 <유 합下:22b>), 稚치 (R티 <자회上:17a/32b>), 穉치 (R티 <변소六:4a, 소학書:1b, 五:4a>), 致치 (H티 <천자:2b>), 峙치 (X티 <유합下:59a>), 馳치 (L티 <자회下:4b/9a>), 痔치 (R티 <자회 中:16b/34a>), 恥치 (H티 <천자:30b>), 豸치, 채 (X티 <유합上:16b>), 寔치, 테(L팀 <육조 上:77b>), 懷지正치 (R티 <대학:13a>), 鷓칙 (X틱 <유합上:11b>), 飭칙 (H틱 <유합下:21a>), 勅칙(H틱 <자회上:18b/35a, 천자:29b, 유합下:14b>), 驚칙 (H틱 <자회상:9b/17b>), 砧침 (L팀 <자회中:6b/11a>), 枕심正침(X팀 <유합下:22b>), 沈침, 심 (L팀 <천자:31b>), 蟄침 (H팀 <자 회下:5a/9b>), 滯체 (H테 <자회下:2b/4a>), 滯체 (R테 <소학五:119b, 六:107b>), 穢체 (H테 <자회上:10a/19a>)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 수록된 사례(字例) 중 ‘ㄷ+i, j>ㅈ+i, j’의 확산 과 정을 거친 것은 87자이다. 이를 통해 위에 제시한 글자들은 적어도 『전운옥편』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구개음화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 현황

한국어의 구개음화가 한자음보다 고유어가 실현 진도가 훨씬 빠르고 일찍 완성되었다는 논의를 감안하면(배영환 2020:63), 18세기 말에 간행된 『전운옥편』은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렇다고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사정은 아직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ㄷ+i, j’와 ‘ㄷ+i, j’의 환경에 있는 한자의 예이다. 이 예들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음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지만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음가와 비교를 통해 『전운옥편』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의 미실현 사례¹⁴³⁾

字例	『全韻玉篇』 注音	『字典釋要』 原音/俗音	『新字典』 注音	漢語中古音	擬音
底	더	더/저	더	章開三全清	tɕiɕ
砥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氏	더	더/저	더	知開三全清	tʃei
砥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抵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抵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砥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低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眈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抵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砥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低	더	더/저	더	澄開三全濁	dʰjei
邸	더	더/저	더	端開四全清	tiɕi
頤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商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駟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覲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的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鎔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甌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逖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hiek
迪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嚳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ɛk
楠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荻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敵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茆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ɛk
鞞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嬈	덕	덕/적	덕	書開三全清	ɕjɛk
均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邊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hiek
糴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妬	덕	덕/적	덕	端合一全清	tuɔ
籊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hiek
趨	덕	덕/적	덕	透開四次清	thiek
籊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滴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狄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嫡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笛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ʰiek

142) ‘𪔑’는 한어 상·중고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글자이고 이체자(異體字) ‘𪔑’만 확인되어 중고음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같은 계열의 동일한 음운구조로 된 한자를 참고하면 설두음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43) <표 48>의 글자는 권인환(200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이며 그 외에 나머지 글자들의 구개음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叅	덕, 잡	덕/적, 잡	덕, 잡	定開四全濁	d ^h iek
芍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翟	덕	덕/적	덕	定開四全濁	d ^h iek
躋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適	덕	덕/적	덕	端開四全清	tiek
腆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癡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悞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寘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闞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蹟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巔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覲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吹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佃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涎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ŋ
顛	던	던/전	던	端 全清	tiɛn
電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奠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損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驥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典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殿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油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典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顛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ɛn
偵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癩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鈿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顛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淀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田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滇	던	던/전	던	端開四全清	tiɛn
渙	던	던/전	던	透開四次清	t ^h iɛn
涎	던, 덩	던/전	던,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涎	던, 덩	덩/정, 전	던,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d ^h iɛn)
甸	던	던/전	던	定開四全濁	d ^h iɛn
殄	던俗던	딘/진, 전	던俗던	定開四全濁	d ^h iɛn
跹	년正던	던/전, 년	년正던	定開四全濁	d ^h iɛn
躑	년正던	던/전, 년	년正던	澄開三全濁	d̪iɛn
綻	던	던/전	던	澄開二全濁	d̪ ^h ɛn
芙	덜	덜/절	덜	定開四全濁	d ^h iɛt
閨	덜	덜/절	덜	端開四全清	tiɛt
滯	덜, 체	덜/절	덜, 체	定開四全濁	d ^h iɛt
裁	덜俗덜	덜/절	덜俗덜	澄開三全濁	d̪iɛt
奎	덜俗덜	덜/절	덜俗덜	透開四次清	t ^h ɛt
迭	덜俗덜	덜/절, 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ɛt
跌	덜俗덜	덜/절, 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ɛt
埵	덜俗덜	덜/절, 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ɛt
經	덜俗덜	덜/절, 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ɛt
耨	덜俗덜	덜/절, 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ɛt
𪔐	덜俗덜	덜/절	덜俗덜	定開四全濁	d ^h iɛt

咈	덜俗밀	덜/절	덜俗밀	定開四全濁	d ^h iɛt
拂	덜正털	덜/절, 철	덜正털	定開四全濁	d ^h iɛt
凸	덜正털	덜/절, 철	덜正털	定開四全濁	d ^h iɛt
軼	덜	덜/절	덜	定開四全濁	d ^h iɛt
佚	덜俗딜	덜/절	덜俗딜	透開四次清	t ^h ɛt
簞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玷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葢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ɛm
禪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點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墊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店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玷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m
莖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黏	덤	덤/점	덤	娘開三次濁	njæm
屆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鮎	덤	덤/점	덤	泥開四次濁	niɛm
陆	엄正덤, 덤	덤/점, 엄	엄正덤, 덤	端開四全清	tɛm
拈	넬俗덤	덤/점, 넬	넬俗덤	章開三全清	tɕiɛm
粘	넬正덤	덤/점, 넬	넬正덤	照 全清	tɕiɛm
驪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m
籛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蜨	덤	덤/점	덤	心開四全清	siɛp
蹠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蝶	덤	덤/점	덤	透開四次清	t ^h iɛp
楪	덤	덤/점	덤	以開三次濁	0jæp
襍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跖	덤	덤/점	덤	端開四全清	tiɛp
躐	덤	덤/점	덤	端 全清	tiɛp
躐	덤	덤/점	덤	透開一次清	t ^h ɔp
漑	덤	덤/점	덤	崇開二全濁	dʒ ^h ɛp
撲	덤	덤/점	덤	定開四全濁	d ^h iɛp
頤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佺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苧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艇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艇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筵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婷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ɛŋ
庭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釘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iɛŋ
汀	덩	덩/정	덩	端開四全清	tɛŋ
亭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町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汀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艇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艇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錠	덩	덩/정	덩	定開四全濁	d ^h iɛŋ
訂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經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靛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程	덩	덩/정	덩	透開四次清	t ^h iɛŋ

詵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eu
庖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耀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eu
規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涸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eu
篠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鱗	도	도/조	도	定開四全濁	d ^h ieu
桃	도	도/조	도, 덕	端開四全清	tieu
鈞	도	도/조	도	端開四全清	tieu
弔	도, 덕	도/조, 저	도, 덕	端開四全清	tieu
吊	도, 덕	도/조	도, 덕	端開四全清	tieu
掉	도正道	도/조, 도	도正道	定開四全濁	d ^h ieu
挑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銚	도	도/조	도	透開四次清	t ^h ieu
敦	도	도/조	도	澄開三全濁	d ^h ieu
斟	두正道	듀/주, 두	두正道	透開一次清	t ^h u
斟	두正道	듀/주, 두	두正道	透開一次清	t ^h u
地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 ^h jei
墜	디	디/지	디	定開三全濁	d ^h jei
舐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z ^h je
錫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z ^h je
舐	시俗디	디/지, 시	시俗디	船開三全濁	dz ^h je
蒼	딩	딩/징	딩	羣合三全濁	g ^h juɛŋ
梯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第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蹠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題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颯	데	데/제	데	透開四次清	t ^h iei
踈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帝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梯	데	데/제	데	透開四次清	t ^h iei
弟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醍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鯉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隄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娣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埶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第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廕	데	데/제	데	透開四次清	t ^h iei
梯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堤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鞮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第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堤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iei
娣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鵝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啼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噦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隄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蹄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媿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iei

緋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褪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鶻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隄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碑	데	데/제	데	端開四全清	tɛi
緹	데, 테	데/제, 체	데, 테	定開四全濁	d ^h ɛi
提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鯁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萑	데	데/제	데	定開四全濁	d ^h ɛi
蜴	덕	덕/척	덕	以開三次濁	ɔjɛk
俶	덕	덕/척	덕	昌合三次清	tɕ ^h juk
睪	덕	덕/척	덕	定開四全濁	d ^h ɛu
砮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hiɛk
剔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hiɛk
侗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hiɛk
滌	덕	덕/척	덕	定開四全濁	d ^h ɛk
愁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hiɛk
惕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hiɛk
踢	덕	덕/척	덕	透開四次清	thiɛk
撚	던	던/천	던	泥開四次濁	niɛn
天	던	던/천	던	透開四次清	thiɛn
蚕	던	던/천	던	透開四次清	thiɛn
簞	덜	덜/철	덜	透開四次清	thiɛt
鐵	덜	덜/철	덜	透開四次清	thɛt
鍊	덜	덜/철	덜	透開四次清	thiɛt
驥	덜	덜/철	덜	透開四次清	thiɛt
恬	텀	텀/침	텀	定開四全濁	d ^h ɛɪm
舂	텀	텀/침	텀	透 次清	t ^h ɛɪm
椶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hiɛm
忝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hiɛm
澹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hiɛm
添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hiɛm
酤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hɛm
餽	텀	텀/침	텀	透開四次清	thɛm
恬	텀俗넙	텀/침, 넙	텀俗넙	定開四全濁	d ^h ɛɪm
氈	텨	텨/첩	텨	端 全清	tiep
粘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hiɛp
製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帖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hiɛp
貼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hiɛp
蹇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堞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帖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hiɛp
諜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諛	텨	텨/첩	텨	端 全清	tiep
牒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帖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hiɛp
擗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疊	텨	텨/첩	텨	端 全清	tiep
喋	텨, 잡	텨/첩	텨, 잡	定開四全濁	d ^h ɛp
鈇	텨	텨/첩	텨	透開四次清	thiɛp
褶	텨	텨/첩	텨	定開四全濁	d ^h ɛp

聽	텅	텅/청	텅	透開四次清	thien
迢	뎡	뎡/초	뎡	定開四全濁	dhieu
韶	뎡	뎡/초	뎡	端開四全清	teu
船	뎡	뎡/초	뎡	端開四全清	thieu
苔	뎡	뎡/초	뎡	定開四全濁	dhieu
髻	뎡	뎡/초	뎡	定開四全濁	dhieu
韶	뎡	뎡/초	뎡	端開四全清	teu
貂	뎡	뎡/초	뎡	端開四全清	thieu
峇	뎡	뎡/초	뎡	定開四全濁	dhieu
髑	독正독	독/촉	독正독	定合一全濁	dhuk
移	세正테	테/체, 세	세正테, 테	禪開三全濁	zjæi
𧯛 ¹⁴²⁾	테	테/체	테		
𧯛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iɛi
涕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締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ɛi
締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ɛi
髭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ɛi
軀	테	테/체	테	透 次清	t'i
諦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iɛi
替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鬚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噓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ei
遞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ɛi
遭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ɛi
剃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鬚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體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遞	테	테/체	테	定 全濁	d'i
襠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蟬	테	테/체	테	端開四全清	tiɛi
體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帶	테	테/체	테	透開四次清	thiɛi
欽	테	테/체	테	定開四全濁	dhiɛi
睇	테, 데	테/체, 제	테, 데	透開四次清	thiɛi
謁	테	테/체, 석	테	透開四次清	thiɛi
逮	테	테/체, 티	테	定開四全濁	dhiɛi
棣	테	테/체, 티	테	定開四全濁	dhiɛi
隸	티俗테	테/체, 티	티俗테	定開一全濁	dhi

<표 48>에 제시된 글자 중 ‘ㄷ+i, j’에 해당하는 예는 257자, ‘ㅌ+i, j’에 해당하는 예는 81자이다. 이 한자음들의 형태를 보면 적어도 『전운옥편』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 한자음은 과도교정을 거쳤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전제로 『자전석요』와 『신자전』의 주음(注音)을 확인해 보니 해당 한자음들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표 48>에 제시된 한자음 중 ㄷ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적용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 48>의 한자음들은 구개음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다.

<표 48>에 제시된 구개음화가 미실현된 글자는 『자전석요』, 『신자전』이 간행된 시기에 거의 100% 완성되었지만, 자전 또는 옥편 체제의 저서로서 『전운옥편』의 음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례 밑에 원음(原音)과 시음(時音)을 병기(併記)하는 형식으로 주음(注音)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음(注音)은 원음(原音)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구개음화의 실현은 『전운옥편』과 거의 비슷하지만 당시의 시음(時音)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이미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세 권의 저서에서 수록된 글자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표 48>에 제시한 한자음은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보면 ‘舐(船母)’를 제외하면 모두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투모자(透母)·정모자(定母字)에 해당한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설상음(舌上音)에 속한 한자음은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설두음(舌頭音)에 속한 한자음은 적어도 『전운옥편』 시기까지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더 늦은 시기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3. 한자음 구개음화의 사성칠음적 해석

앞 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구개음화가 이미 실현된 한자음 수와 미실현된 한자음 수를 명백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여부는 『전운옥편』을 기준으로 한다.

- 1) ‘ㄷ+i, j>ㅈ+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112자이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됨
- 2) ‘ㅌ+i, j>ㅊ+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87자이며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됨
- 3) ‘ㄷ+i, j>ㄷ+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257자이며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음
- 4) ‘ㅌ+i, j>ㅌ+i, j’에 해당하는 자례는 81자이며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음

1)과 2)에 제시한 112자와 87자의 한자음은 『전운옥편』 간행 시기까지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3)과 4)에 제시한 257자와 81자의 한자음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완료되었으므로 나타났다. 다만 『신자전』은 『자전석요』보다 몇 년 늦게 간행되었지만 『전운옥편』의 한자 주음(注音)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전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제시된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여부에 따라 다시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¹⁴⁴⁾. 앞에 고찰한 바와 같이 설음(舌音) 계열에 설상음(舌上音)은 먼저 구개음화가 이루어졌으며 순차적으로 설두음(舌頭音)은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대비되는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에 제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실현된 한자음과 미실현된 한자음을 사성칠음 측면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미실현 한자음의 사성칠음 분류

구개음화가 완성됨 112자 'ㄷ+i, j>ㅈ+i, j'				
설두음	端母 1자		定母 1자	
설상음	知母 34자	徹母 9자	澄母 61자	
정치음	章母 6자			
구개음화가 완성됨 87자 'ㅌ+i, j>ㅊ+i, j'				
설두음	端母 1자	透母 1자		
설상음	知母 22자	徹母 23자	澄母 31자	
정치음	船母 2자	昌母 4자	章母 2자	禪母 1자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257자 'ㄷ+i, j>ㄷ+i, j'				
설두음	端母 79자	透母 43자	定母 116자	泥母 1자
설상음	知母 1자	澄母 4자	娘母 2자	
정치음	船母 3자	章母 1자	崇母 1자	擘母 1자
치두음	心母 1자	淸母 1자		
아 음	羣母 1자			
후 음	以母 1자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81자 'ㅌ+i, j>ㅌ+i, j'				
설두음	端母 12자	透母 38자	定母 27자	泥母 1자
정치음	昌母 1자	禪母 1자		
후 음	以母 1자			

144)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한어중고음 사성칠음 측면으로 전개한 필요성에 대해 김무리(2022:219)에서 “근대국어 『전운옥편』의 한자음에서 구개음화의 적용은 [i/j] 앞에서 [ㄷ/ㅌ]이라는 음운적 조건만이 아니라, 漢語의 字母體系에 비추어 설두음인가 아니면 설상음인가의 여부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의 적용을 설상음에만 한정된 것은 漢語에서 설상음의 파찰음화가 『集韻』(1039)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中原音韻』(1324)에서는 파찰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운옥편』의 구개음화 적용은 근대국어의 음운 변화를 참조하면서도 음운 변화가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표 49>에 근거하여 구개음화가 실현된 한자음이 주로 설상음(舌上音)인 지모(知母)·철모(徹母)·정모(澄母)에 속하며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자음은 주로 설두음(舌頭音)인 단모(端母)·투모(透母)·정모(定母)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몇몇 한자음은 아음(牙音)·후음(喉音)·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음(舌音)계의 한자음은 구개음화의 확산 과정에서 설상음(舌上音)과 설두음(舌頭音)으로 분명하게 나뉘어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중국 자음(字音)으로부터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한국어 자체의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둘 다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가령,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중국 한자음의 영향으로 본다면 중국 한자음은 우선 설상음(舌上音) 2·3등자(等字)가 치음화(齒音化)하여 [t]와 [tʰ]가 정치음(正齒音) [tʂ]와 [tʂʰ]로 바뀌고 설두음(舌頭音)은 모두 여전히 [t]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준환 2007). 하지만 중국 한자음 구개음화가 발생한 시기를 고려하면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시작하는 시기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며 약 8세기 경부터 13세기까지를 거쳤으므로 한국 한자음 구개음화의 발생 시기보다 약 400여 년 빠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주 긴 시간을 거친 후 다시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중국 자음(字音)의 구개음화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설음(舌音)계 자음(字音)의 변화에 있지만 차이가 있다. 우선 중국 자음(字音)은 상고음(上古音) 시기에는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을 구별하지 않다가 중고음 시기부터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의 구별이 시작하였으며 8세기 경부터 13세기 사이에 설상음(舌上音)계의 자음들이 정치음(正齒音)계의 자음들과 합류(合流)하였다. 따라서 정치음(正齒音)은 중고음시기에 다시 정치 이등자(二等字)과 정치 삼등자(三等字)로 구별하였다. 이런 전제로 중국 자음(字音)의 구개음화는 원래부터 파찰음(破擦音)이었던 치음(齒音)과 치두음(齒頭音)인 [tʂ, tʂʰ, s]와 아·후음(喉音)계 파열음(破裂音) [k, kʰ, x]가 경구개음(輕舌音)인 [tʂ, tʂʰ, ʃ]로 변환된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의 구개음화는 중세한국어의 자음(子音) 중에서 치경음 /ㄷ[t]/, /ㄷʰ[tʰ]/가 경구개파찰음 /ㅈ[tʃ]/, /ㅈʰ[tʃʰ]/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추정음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치음과찰음: ㅈ[tʃ], ㅊ[tʃʰ] > ㅉ[tʃ], ㅊ[tʃʰ]

치음과찰음: ㄷ[t], ㅌ[tʰ] > ㅉ[tʃ], ㅊ[tʃʰ]

한국 한자음은 위와 같은 두 가지의 변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 치음(치경음)의 경우에는 변화 전이나 변화 후에 모두 동일한 /ㅉ, ㅊ/로 표기되었으므로 변화 과정의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설음(舌音)계 자음(字音)인 경우에는 설단파열음(치경음)으로 발음되던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에서 설상음(舌上音)계 자음(字音)이 먼저 파찰음인 경구개음으로 변화하며, 이어서 반모음 /i/나 /j/와 결합된 설두음(舌頭音)계 자음(字音)도 역시 똑같은 변화 양상을 거쳤다(강신항 1987:6). 이는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우선 설상음(舌上音)부터 이루어지고 다음은 설두음(舌頭音)으로 확산되고 완성되는 가장 유력한 해석이다.

IV. 자전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한 고찰

1. 자전류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따라 구개음화가 다르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ㄷ/과 /ㅌ/에서의 실현율의 차이와 반모음 /i/와 /j/에서의 실현율의 차이를 검토해야 한다. 즉, /i/인 경우와 /j/인 경우, /j/보다는 /i/의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실현된다는 기존의 논의를 감안하면¹⁴⁵⁾ 환경별 실현 양상을 먼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중 중세시기 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음(字音) 수와 구개음화가 일어난 자음(字音) 수를 비교하여 실현율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전운옥편』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우선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을 살펴볼 것이다.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발생 가능한 한자는 총 334자이다. 그 가운데 /ㄷ/과 /ㅌ/의 구개음화 실현 예는 /ㄷ/ 계열에 112자와 /ㅌ/ 계열에 87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예를 좀 더 환경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ㄷ+i>ㅌ+i’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37자이고, ‘ㄷ+j>ㅌ+j’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75자이다. 또, ‘ㅌ+i>ㅌ+i’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25자이고, ‘ㅌ+j>ㅌ+j’의 과정을 겪은 한자음은 총 62자이다. 이를 통해 『전운옥편』 한자음의 ㄷ구개음화 실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5) 송민,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1986, 64쪽.

<표 50>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환경에 따른 구개음화 실현율

환경	실현율	비고
ㄷ+j>ㅈ+j	43.35%(75/173)	
ㄷ+i>ㅈ+i	92.5%(37/40)	
ㅌ+j>ㅊ+j	64.58%(62/96)	
ㅌ+i>ㅊ+i	100%(25/25)	

<표 50>에 따라 /ㄷ/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j/ 환경에서 43.35%, /i/ 환경에서 92.5%로 나타났다. /ㅌ/의 경우는 /j/ 환경에서 실현율 64.58%, /i/ 환경에서 100%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ㅌ/의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ㄷ/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i/ 환경과 /j/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j/ 환경보다 /i/ 환경에서의 구개음화가 압도적으로 실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 환경에서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은 실현율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적어도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i/ 환경에서 먼저 완성된 근거라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四聲七音)을 기준으로 볼 때 /ㄷ/과 /ㅌ/은 설음(舌音)에 해당한다. 이 중 설음(舌音)은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 사이에 구개음화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 등으로 나누어 실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

환경	설음 분류	실현율	비고
ㄷ+i, j > ㅈ+i, j	설상음	49.77%(106/213)	
	정치음	2.82%(6/213)	
ㅌ+i, j > ㅊ+i, j	설상음	62.81%(76/121)	
	설두음	1.65%(2/121)	蒂, 廳
	정치음	7.44%(9/121)	术, 冲

<표 52> 『전운옥편』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의 세부 실현 양상

환경	설음 분류	점유율	비고
ㄷ+i, j > ㅈ+i, j ㅌ+i, j > ㅊ+i, j	징모(澄母)	46.73%(93/199)	
	지모(知母)	28.64%(57/199)	
	철모(徹母)	16.08%(32/199)	

한국어 자음 /ㄷ/와 /ㅌ/은 사성칠음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부분은 설음(舌音)인 설상음(舌上音)과 설두음(舌頭音)에 속한다. 설두음(舌頭音)에는 단모(端母)·투모(透母)·정모(定母)·니모(泥母)가 있고, 설상음(舌上音)에는 지모(知母)·철모(徹母)·징모(澄母)·낭모(娘母)가 있다. <표 52>를 바탕으로 ‘ㄷ, ㅌ>ㅈ, ㅊ’의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은 모두 설상음(舌上音)의 징모자(澄母字)·지모자(知母字)·철모자(徹母字)이다. 그 가운데 징모자(澄母字)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ㅌ>ㅊ’의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은 설상음(舌上音)의 징모자·지모자·철모자 외에 몇몇 설두음(舌頭音)의 단모자(端母字)와 투모자(透母字), 그리고 정치음(正齒音)의 선모자(船母字)와 창모자(昌母字)도 존재한다. 위의 표에서 설음(舌音) 가운데 설상음(舌上音)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약 50% 이상으로 확인된다. 반면, 설두음(舌頭音)과 정치음(齒音) 계열은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중국 한자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설상음(舌上音)에서 구개음화가 좀 더 활발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중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중국 본토 자음에서 정치음(正齒音)으로 변화한 설상음(舌上音)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한자음의 설상음(舌上音)을 구개음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한자음에도 영향을 끼쳐서, 16세기의 문헌부터 차츰 변화된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한국 한자음의 ㄷ구개음화는 결국, 설상음(舌上音)계 자음부터 일어났다고 했다(강신항 2009). 다만, 표기의 변화가 실제 발음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로의 변화와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로의 변화의 일치 여부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 한자음의 영향보다는 한국 한자음에서의 자생적 변화로 볼 필요도 있다¹⁴⁶⁾. 『전운옥편』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과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은 二·三等에 속하는 설상음(舌上音)이고,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은 一·四等に 속하는 설두음(舌頭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운옥편』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김민경 2021).

결국,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설상음(舌上音), 그 가운데 징모와 지모, 그리고 철모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46) 이에 대해 한국 한자음의 면밀한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

2) 『자전석요』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다음으로 『자전석요』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을 살펴볼 것이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자전석요』에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글자 바로 밑에 『전운옥편』에서의 음과 같이 규범음으로 주음(注音)되었지만, 뜻풀이 부분에서 현실 발음(속음)도 주음(注音)되었다. 이 현실 발음은 당시 사회에서의 발음이고 이미 구개음화가 된 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전제를 고려하면서 『자전석요』에서의 구개음화 발생 조건에 부합되는 한자음 총 537자¹⁴⁷⁾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ㄷ/와 /ㅌ/의 구개음화 실현 예는 /ㄷ/ 계열에 369자와 /ㅌ/ 계열에 168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예를 좀 더 환경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ㄷ+ i>ㅅ+ i’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43자이고, ‘ㄷ+ j>ㅅ+ j’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326자이다. 또, ‘ㅌ+ i>ㅈ+ i’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25자이고, ‘ㅌ+ j>ㅈ+ j’의 과정을 거친 한자음은 총 143자이다. 이를 통해 『자전석요』에서의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환경별로 따라 각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환경에 따른 구개음화 점유율

환경	점유율	비고
ㄷ+ j > ㅅ+ j	88.3%(326/369))	이 비율이 단지 ㄷ과 ㅌ이 /i/와 /j/에서 각자 점유한 것으로 참고한다.
ㄷ+ i> ㅅ+ i	11.7%(43/369))	
ㅌ+ j > ㅈ+ j	85.1%(143/168)	
ㅌ+ i> ㅈ+ i	14.9%(25/168)	

<표 53>에 따라 /ㄷ/의 구개음화 점유율은 /j/ 환경에서 88.3%, /i/ 환경에서 11.7%로 나타났다. /ㅌ/의 경우는 /j/ 환경에서 점유율 85.1%, /i/ 환경에서 14.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ㅌ/의 구개음화의 점유율이 /ㄷ/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i/ 환경과 /j/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i/ 환경보다 /j/ 환경에서의 구개음화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에 따라 /j/ 환경에서 구개음화를 거치지 않는 예는 찾기 어려운 만큼 높은 실현율을 보여 준다는 사실은 『자전석요』에서는 적어도 한자

147) 중세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ㄷ>ㅅ, ㅌ>ㅈ’에 해당하는 글자 112자와 87자, 그리고 『전운옥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ㄷ>ㄷ, ㅌ>ㅌ’에 해당하는 글자 257자와 81자의 총수이다.

음의 구개음화는 /j/ 환경에서 먼저 완성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별로 분류할 때 /i/ 환경에는 /l/일 뿐이고 /j/ 환경에는 /ㅈ, ㅊ, ㅌ, ㅍ, ㅊ, ㅊ/가 있기 때문에 수량상 /i/보다 /j/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당연히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j/ 환경에 구개음화된 한자음들이 /i/보다 높은 점유율로 나타났다. /ㄷ/과 /ㅌ/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도 있어 /ㅌ/보다 /ㄷ/으로 주음(注音)된 한자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에 따라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전운옥편』보다 『자전석요』가 더 높은 정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靚, 的, 鎊, 逖, 迪, 荻, 敵, 葯, 鞞, 糴, 趨, 滴, 狄, 嫡, 笛, 翟’ 등은 『전운옥편』에서 여전히 ‘덕’으로 주음(注音)되어 있으며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는 규범음으로 ‘덕’을 한자 바로 밑에 표시하였지만, 뜻풀이 부분에 현실음 ‘적’으로도 적혀 있다. 이 현실음들이 모두 ‘덕>적>적’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 한자음의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볼 때 /ㄷ/과 /ㅌ/은 설음(舌音)에 해당한다. 『자전석요』에 해당하는 한자음 중 설음(舌音)은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으로 나뉘는데, 이들 사이에 구개음화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전석요』에 나타난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설두음(舌頭音)과 설상음(舌上音)으로 나누어 실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사성칠음에 해당하는 구개음화 실현율

환경	설음 분류	점유율	비고
ㄷ+i, j > ㅈ+i, j	설두음	64.8%(239/369)	
	설상음	30.6%(113/369)	
	정치음	3.3%(12/369)	
	치두음	0.54%(2/369)	
ㅌ+i, j > ㅊ+i, j	설상음	45.2%(76/168)	
	설두음	47.6%(80/168)	
	정치음	6.54%(11/168)	

<표 54>에 따라 『자전석요』 한자음은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되는 성모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전운옥편』과 같이 높은 정도로 나타나는데 치음(齒音) 계열에 있는 정치음(正齒音)과 치두음(齒頭音)에 해당 한자음도 보다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한편, 『자전석요』의 구개음화 현상은 『전운옥편』처럼 여전히 설음자(舌音字)에 압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모두 90% 이상이다.

물론 『자전석요』 한자음은 『전운옥편』보다 구개음화가 더 높은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설음자(舌音字)와 치음자(齒音字)가 대부분이며, 설두음>설상음>정치음>치두음의 순이다. <표 51>을 보면 『전운옥편』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우선 설상음(舌上音)에서부터 이루어지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표 54>를 보면 『자전석요』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설두음(舌頭音)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설상음(舌上音)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는 이른 시기부터 설상음(舌上音)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된 후 다음으로 설두음(舌頭音)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표 55> 『자전석요』에 수록된 글자 중 설음의 세부 실현 양상

환경	설음 분류	점유율	비고
ㄷ+i, j>ㅈ+i, j ㅌ+i, j>ㅊ+i, j	징모(澄母)	18.6%(97/521)	
	지모(知母)	11.1%(58/521)	
	철모(徹母)	6.1%(32/521)	
	단모(端母)	17.5%(91/521)	
	투모(透母)	15.5%(81/521)	
	정모(定母)	27.4%(143/521)	
	니모(泥母)	0.38%(2/521)	

<표 55>는 『자전석요』 한자음 구개음화 완성된 설음자(舌音字)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전석요』의 한자음 설음(舌音) 계열에는 설두음(舌頭音)인 단모(端母)·투모(透母)·정모(定母)·니모(泥母)와 설상음(舌上音)인 지모(知母)·철모(徹母)·징모(澄母)가 있다. <표 52>를 바탕으로 ‘ㄷ/ㅌ>ㅈ/ㅊ’의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 가운데 설두음(舌頭音)의 정모자(定母字), 단모자(端母字), 투모자(透母字)와 설상음(舌上音)의 징모자(澄母字), 지모자(知母字)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강신향(2009)에서는 구개음화가 우선 설상음(舌上音)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 후에 설두음(舌頭音)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설상음자(舌上音字) ‘筋(澄), 楮(徹), 箸(知), 貯(知), 除(澄), 苧(澄), 豬(知), 瀦(知), 杼(澄), 擣(徹), 豬(知), 儲(澄), 著(澄.知), 樗(徹)’ 등은 『전운옥편』까지 이미 ‘더>저>저’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설두음자(舌頭音字) ‘腆(透), 巔(端), 颯(透), 畋(定), 顛(端),

電(定), 奠(定), 殿(端/定), 典(端), 癩(端), 淀(定), 田(定), 蜓(定), 甸(定), 殄(定)’ 등은 『전운옥편』에서 여전히 ‘던’으로 주음(注音)되었다가 『자전석요』와 『신자전』에서 규범음으로 ‘던’을 한자 바로 밑에 표시하지만, 뜻풀이에서는 현실음이 ‘전’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설두음(舌頭音)에 해당하는 글자는 최소 『전운옥편』 이후부터 『자전석요』까지나 그 이전 시기에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설상음(舌上音字)보다 구개음화가 좀 더 늦은 시기에 진행된 사실은 검증되었다.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는 단모자(端母字)·투모자(透母字)·정모자(定母字)·니모자(泥母字)와 지모자(知母字)·철모자(徹母字)·징모자(澄母字) 외에 일부 설상음(舌上音)인 낭모자(娘母字), 정치음(正齒音)인 선모자(船母字)·장모자(章母字)·숭모자(崇母字)·서모자(書母字)·청모자(淸母字), 치두음(齒頭音)인 심모자(心母字), 아음(牙音)인 군모자(羣母字), 그리고 후음(喉音)인 이모자(以母字)도 존재한다. 이런 글자들이 본 연구에서 비중이 아주 낮아서 한자음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이로 보아 『자전석요』 시기의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중국 한자음의 사성철음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설상음(舌上音)과 설두음(舌頭音)에서 나타나며 이른 시기부터 먼저 설상음(舌上音)에서 발생하였고 그 후 20세기 초까지는 설두음(舌頭音)에도 넓은 정도로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자전』 한자음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 체계는 거의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신자전』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착안할 수 있다.

첫째, 『신자전』은 『자전석요』보다 『전운옥편』에서의 한자음 주음(注音)과 더 긴밀하며 완전히 『전운옥편』의 음을 본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 방식은 『자전석요』와 비슷하며 한자 바로 밑에 『전운옥편』 음을 밝히고 『전운옥편』에서의 정음(正音)과 속음(俗音)도 제시하였다. 『자전석요』 한자음의 시음(時音)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전석요』보다 편찬 시기가 몇 년 늦은 『신자전』은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당연히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신자전』은 『전운옥편』을 존중하기 위해 편찬자가 일부러 원음(原音)을 표시하였지만, 이 시기에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아직까

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전』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과 환경별에 따라 분포된 점유율은 『자전석요』와 일치하게 처리해도 합리적이다.

둘째, 『신자전』은 『자전석요』보다 『전운옥편』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다. 이는 『신자전』의 한자 주음(注音)은 완전히 『전운옥편』의 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은 『전운옥편』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자전』에서만 답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분석 방식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주음(注音)을 취하기로 했으므로 『신자전』의 주음(注音)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여 이 자전에서 구개음화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전운옥편』을 참고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제시한 한자음 구개음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참고하여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6>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실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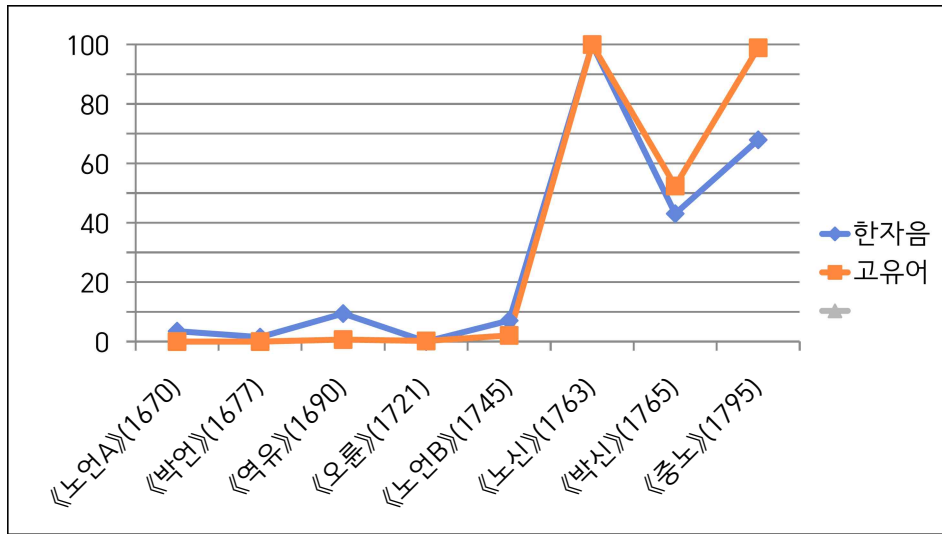
환경	『전운옥편』 실현율	『자전석요』 실현율	『신자전』 실현율
총 실현율	37.1%	100%	37.1%
ㄷ+j > ㅈ+j	43.35%(75/173)	88.3%(326/369)	43.35%(75/173)
ㄷ+i > ㅈ+i	92.5%(37/40)	11.7%(43/369)	92.5%(37/40)
ㅌ+j > ㅊ+j	64.58%(62/96)	85.1%(143/168)	64.58%(62/96)
ㅌ+i > ㅊ+i	100%(25/25)	14.9%(25/168)	100%(25/25)

<표 56>에 따라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각각 37.1%, 100%, 37.1%로 나타났다. 『신자전』의 한자음은 『전운옥편』의 규범음과 정·속음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일치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신자전』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 및 실현율의 특성은 『전운옥편』과 동일하며 /i/나 /j/ 환경에 해당하는 점유율도 똑같이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의 통시적 고찰

김주필(2018)에서는 한학서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된 예들의 빈도와 비율에 대해 논의하였다¹⁴⁸⁾. 이 연구에서 한학서에 나타나는 ㄷ구개음화에 대해 고유어-고유어 어휘-고유어 문법-한자음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김주필(2018)에서의 한자음 ㄷ구개음화를 중심으로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 한학서에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¹⁴⁹⁾



<그래프 1>을 보면 위의 한학서의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은 각각 『노언A』 3.49%(3/86), 『박언』 1.49%(1/67), 『역유』 9.43%(5/53), 『오륜』0%(0/62), 『노언B』 7.06%(6/85), 『노신』 100%(9/9), 『박신』 43.06%(31/72), 『중노』 67.93%(36/53)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한학서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17세기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8세기 전까지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낮은 정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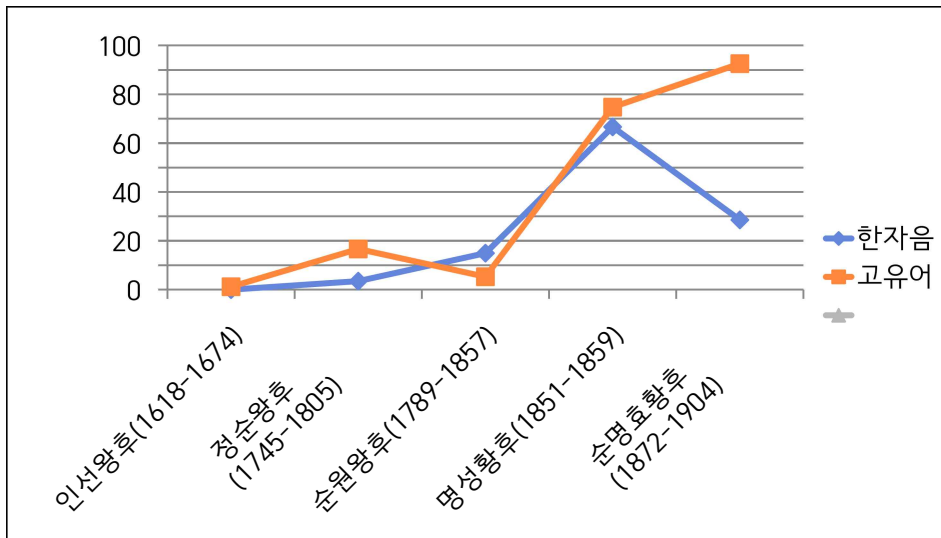
148) 김주필(2018),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 『언어학』(80), 115-150쪽.

149) 김주필(2018)에 따르면 <도표 1>의 대상 문헌과 대응한 약호는 『노걸대언해』(1670): <규1528>, 『노언A』, 『박통사언해』(1677): <규귀1810>, 『박언』, 『역어유해』(1690): <가람 고413.1-G418y-v.1-2>, 『역어』, 『오륜전비언해』(1721): <규1456>, 『오륜』, 『노걸대언해』(기영관, 1745): <규장각 소장>, 『노언B』, 『노걸대신석언해』(1763): <콜롬비아대학교 소장본(권1)>, 『노신』, 『박통사신석언해』(1765): <가람고495.1824-C456b-v.1-3>, 『박신』, 『중간노걸대언해』(1795): <가람 고495.1824-Y63ja-v.1-2>, 『중노』로 나타난다.

한 고유어보다 한자음에서의 ㄷ구개음화가 먼저 나타나지만 18세기 말까지 실현율이 고유어보다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보인다. <그래프 1>에 제시된 한학서들이 사역원에서 간행되기 때문에 국한혼용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제시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실현된 용례들은 한글로 쓴 일부 한자어에 국한되므로 이것을 당시 한자음의 일반적인 상황이라 반영하기 어렵다. 다른 유형의 문헌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영환(2021)은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나는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¹⁵⁰. 이 연구에서 조선 왕후들의 언간에 대해서 인물 별로 고유어와 한자음을 나누어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그래프 2>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프 2>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



<그래프 2>를 보면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 실현율은 각각 인선왕후 0%(0/63), 정순왕후 3.49%(15/43), 순원왕후 14.94%(39/300), 명성황후 66.67%(52/78), 순명효황후 28.57%(8/28)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그래프 2>에 따라 조선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나타나는 한자음 ㄷ구개음화의 확산 모습은 <그래프 1>에서의 한학서와 비슷하게 나타났음을 보인다. 이는 순원왕후 이전 시기의 왕실 여성의 언간에서 나타나는 한자음 구개음화 용례가 있었지만 그다지 많지 않다. 순원왕후 이후부터 순명효황후 시기 즉 20세기 초까지 언간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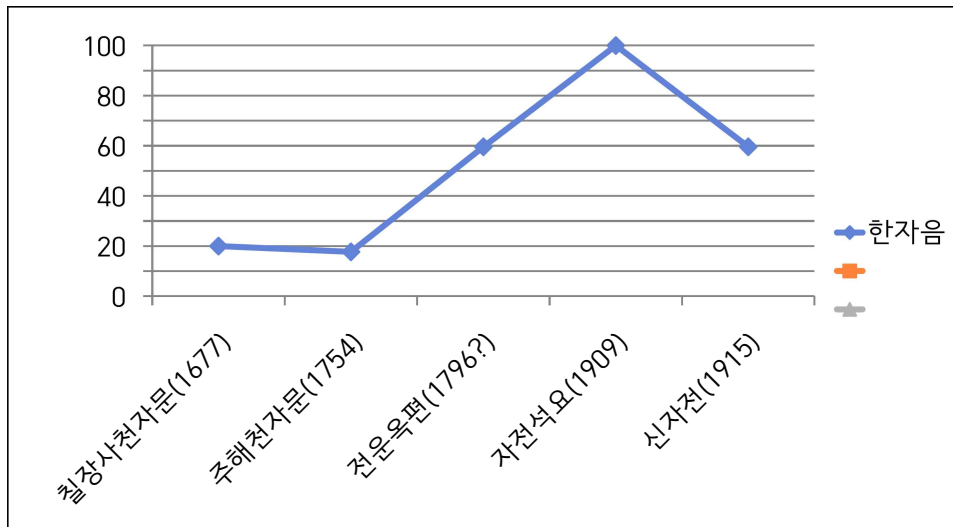
150) 배영환(2021),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언간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59호

비교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학서에서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과 같이 한자음보다 고유어가 더 높은 속도로 확산되며 일찍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한학서와 언간 자료 등에서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고유어보다 늦지 않게 시작하였지만 확산 과정이 상당히 낮은 정도로 나타났음을 보이고 18세기 중 후반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고유어보다 더 오랜 기간을 거쳤으며 보다 늦은 시기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전류 문헌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 양상과 김주필(2006)¹⁵¹에서 제시된 자석류 문헌인 천자문의 이본들에서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을 바탕으로 대비·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한국어 시기의 한자음 구개음화 확산 과정 및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프 3> 자서류(字書類) 문헌의 한국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율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한자 자서의 구개음화 현상을 <그래프 3>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위의 제시된 비율은 각각 『철장사 천자문』은 20%, 『주해 천자문』은 17.7%, 『전운옥편』은 59.6%, 『자전석요』는 100%, 『신자전』은 59.6%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전운옥편』 이전 시기의 자전류 문헌의 구개음화 실현은 거의 50%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20세기 초기까지의 자서는 구개음화가 거의 완성 상태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3>에서는 『전운옥편』 이후부터 『자전석요』까지 거의 백여 년 동안에 주목할

151) 김주필(2006),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 『어문학논총』 제25집.

만한 한자 자전류 자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오천자문』(1894)에 이르러서야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에 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갑오천자문(1894)』에서는 ‘天(텨), 宙(듀), 張(당), 玆(딘), 重(똥), 帝(데), 鳥(도)’ 등은 아직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자전석요』(1909)의 시음(時音)에서는 이미 구개음화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전류와 자석류의 한자음 구개음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 한자음 구개음화 과도교정에 대한 해석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 나타난 ㄷ구개음화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현상은 이른바 과도교정이다. 과도교정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역구개음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ㅈ, ㅊ+ i, j>ㄷ, ㅌ+ i, j’로 설명될 수 있는데, 본래 /ㅈ, ㅊ/였지만 이를 /ㄷ, ㅌ/로 대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은 ‘ㄷ, ㅌ+ i, j’의 환경에 과도교정의 예로 볼 수 있는 한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중세시기 한자음에서 확인될 수 있는 ‘ㄷ, ㅌ+ i, j’ 환경의 한자를 중세한국어의 한자음과 비교해 볼 때 이전 시기에도 역시 ‘ㄷ, ㅌ+ i, j’의 환경에 있었던 한자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에서는 과도교정이 적용된 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과도교정의 예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민경(2021)에서는 『전운옥편』에서 舌上音은 /ㅈ, ㅊ/로 표기되지만, ‘茶(다)’, ‘姪(덜)’, ‘逐(덕)’에서 /ㄷ/와도 혼용되어 사용되는 양상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로 보아 설두음(舌頭音)의 /ㄷ/가 /ㅈ/로 표기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과도교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과도교정이 음운 변화의 어느 시기에 나타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체로 과도교정은 음운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주로 나타난다고 논의되었지만, 구개음화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구개음화가 완성된 단계에서도 과도교정은 여전히 확인된다고 알려졌다¹⁵²⁾.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이 문헌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과도교정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음운 변화와 과도교정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구개음화의 초기 단계로 보고 과도교정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변화의 초기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두루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둘째, 한자음의 경우 고유어에 비해 과도교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한자음 역시 과도교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에서의 한자음도 과도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관점 또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은 성격상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과도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결국 이 자료의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전운옥편』은 『규장전운』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규장전운』은 다른 자료에 비해 당시의 규범음을 지향했기 때문에 과도교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규장전운』의 영향을 받은 『전운옥편』 뿐만 아니라 『자전석요』와 『신자전』은 역시 한자음에 대한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사회문화 측면에서 볼 때 한자음은 고유어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을 거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특히 자서류 문헌은 한자 계몽서와 학습서의 역할로써 사대부 혹은 양반 계층이 애용해서 오히려 한자음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자음의 구개음화 등 음운 현상이 고유어보다 확산 속도가 느리며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자료의 성격상 과도교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당시 규범적인 한자음을 지향한 자료의 영향으로 한자음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편찬했기 때문에 과도교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152)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107-108쪽; 배영환(2017), 「음운 변화에 대한 과도교정의 양상 고찰-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00, 한국언어학회, 45쪽.

VI.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시기 자전류(字典類)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본론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근대한국어 시기에 간행된 『전운옥편(全韻玉篇)』(1796?)·『자전석요(字典釋要)』(1909)·『신자전(新字典)』(1915)의 간행 시기, 배경, 범례 판본 등 기본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는 한국어 자음 체계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시기에 간행된 문헌에 나타난 한자음의 구개음화 상황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구개음화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통시적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개음화의 상세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을 통계하였으며 세 문헌의 한자음에 포함되는 음운 체계를 먼저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세 자전에서의 한자음은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글자를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비교·고찰하였다. 우선 『전운옥편』에 수록된 10,977자 중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 1,595자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1,595자의 한자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중세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음운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ㄷ, ㅌ+i, j’와 ‘ㅈ, ㅊ+i, j’의 경우이다. 음운구조는 ‘ㄷ, ㅌ+i, j’로 된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아직 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자음의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다. 음운구조는 ‘ㅈ, ㅊ+i, j’로 된 경우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즉 구개음화 과정을 거쳤다면 ‘ㄷ, ㅌ+i, j>ㅈ, ㅊ+i, j’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과, 본래의 음운구조는 ‘ㅈ, ㅊ+i, j’이므로 어떠한 음운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운옥편』 시기까지 구개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자음이 『자전석요』와 『신자전』 시기까지 완성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예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서 구개음 환경과 관련이 있는 한자음은 『전운옥편』까지 구개음화가 이미 실현되었거나 『전운옥편』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전석요』,

『신자전』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과도교정의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전류 문헌의 한자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음운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문화 측면에서 볼 때 한자음은 고유어보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을 거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전운옥편』·『자전석요』·『신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음운론적 측면으로 착안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 구개음화의 한국어 음운론적 해석과 한어중고음 성운학(聲韻學)적 해석의 측면으로 분석해 보고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 시기에 이르러서 한국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당 한자음들은 구개음화의 과도교정 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운론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 구개음화는 /ㄷ/와 /ㅌ/에서의 실현율의 차이와 반모음 /i/와 /j/에서의 실현율의 차이를 밝혔다. 즉 /j/보다는 /i/의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실현되었으며 자음 /ㄷ/으로 표시된 한자음보다 ‘ㅌ’으로 주음(注音)된 글자가 구개음화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한어중고음 사성칠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한자음의 ㄷ구개음화는 이른 시기에 주로 설음(舌音) 계열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치음(齒音) 계열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음운구조는 본래 형태인 ‘ㄷ, ㅌ+i, j’로 된 것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설음(舌音) 계열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구개음화는 대부분이 설상음자(舌上音字)로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 서서히 설두음자(舌頭音字)에서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즉, 설음(舌音) 계열의 한자음은 설두음(舌頭音)인 단모자(端母字)·투모자(透母字)·정모자(定母字)보다 설상음(舌上音)인 지모자(知母字)·철모자(徹母字)·징모자(澄母字)가 이른 시기에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으며 그 후에 설두음자(舌頭音字)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중국 한자음의 영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에 나타난 한자음 구개음화의 실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운옥편』에 수록된 한자 중에 중세한국어 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는 591자이며, 구개음화를 거친 한자음은 총 199자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개음화의 실현율로 볼 때, ‘ㄷ+ i>ㅌ+ i’는 92.5%, ‘ㄷ+ j>ㅌ+ j’는 43.35%, ‘ㅌ+ i>ㅌ+ i’는 100%, ‘ㅌ+ j>ㅌ+ j’는

64.58%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 /ㄷ/과 /ㅌ/에서의 구개음화 실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i/ 환경이 /j/ 환경보다 구개음화의 실현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운옥편』의 구개음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여 『자전석요』 시기까지 한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이 거의 100%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개음화 실현 환경의 비율에서 살펴보면, 각각 ‘ㄷ+ i>ㅈ+ i’는 88.3%, ‘ㄷ+ j>ㅈ+ j’는 11.7%, ‘ㅌ+ i>ㅊ+ i’는 85.1%, ‘ㅌ+ j>ㅊ+ j’는 14.9%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자전석요』에서도 /j/보다 /i/ 환경에 해당하는 한자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음 /ㅌ/보다 /ㄷ/로 초성이 된 한자음의 구개음화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09년에 간행된 『자전석요』의 시음(時音)에서는 구개음화가 완성되었지만, 그보다 늦게 1915년에 간행된 『신자전』에서의 한자음은 『전운옥편』과 일치하여 『신자전』에서 구개음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전』에 수록된 한자음의 구개음화 확산 양상은 『전운옥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본론의 논의 결과를 총망라하였다. 본 논문에서 근대 시기에 간행된 세 자전의 한자음 구개음화 실현 양상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 결과 『전운옥편』, 『자전석요』, 『신자전』은 상호 관련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록된 한자음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한·중 구분 없이 가나다순, 알파벳 순 및 연대순

1. 저서

- 강신항(1987), 『수정증보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신항(1993), 『奎章全韻 全韻玉篇』, 박이정.
- 강신항(2003), 『韓漢音韻史 研究』, 태학사.
- 권인한(2009),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김무림(2022), 『국어 한자음의 역사』, 태학사.
- 김주필(2015), 『구개음화의 통시성과 역동성』, 태학사.
- 김태경(2005), 『쉽게 배우는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 남광우(1973), 『朝鮮(李朝)漢字音研究』, 一潮閣.
- 남광우(1995), 『古今韓漢字典』, 인하대학교출판부.
- 박성원(1747), 『화동정음통석운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박형익(2012), 『한국 자전의 역사』, 도서출판 역락.
- 박형익(2016), 『한국 자전의 해제와 목록』, 도서출판 역락.
- 이기문(1977), 『국어 음운사 연구』, 국어학회.
- 이기문(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 이돈주(2003),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 이명규(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한국문화사.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안병희·이광호(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 왕력(2013), 『중국언어학사』, 중화서국.
- 왕평·형신보·하영삼(2012), 『《全韻玉篇》整理與研究』, 上海人民出版社.
- 왕평·하영삼(2019), 『한국 근대 한자사전 연구』, 도서출판3.
-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 아카넷.
- 정경일(2008),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 朝鮮光文會(1915), 『신사전』, 디지털 장서각 고문서자료관(SJ_ANC).
- 지석영(1909), 『사전석요』, 장서각(SJ_JSG).

최세진(1527), 『훈몽자회』, 디지털 장서각 전자도서관(SJ_LIB).

황문환 외(2016), 『친자문 장서각 소장 왕실 친자문 역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 논문 자료

강신항(1972), 「한자음(漢字音) 연구사(研究史)」, 『국어국문학』 58-60, 국어국문학회, 373-377쪽.

강신항(1983), 「齒音과 한글表記」, 『國語學』 12, 국어학회, 13-34쪽.

강신항(1987), 「韓國漢字音과 漢語上古音과의 對應可能性에 관하여」, 『東洋學』 1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26쪽.

강신항(1987), 「韓國漢字音內 舌音系字音의 變化에 대하여」, 『동방학지』 54-5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29쪽.

강신항(1989), 「한국 한자음의 어제와 오늘」,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30-50쪽.

강신항(2001), 「韓國漢字音(高麗譯音)의 한 모습」, 『國語學』 38, 국어학회, 3-27쪽.

곽예(2010), 「中國과 韓國의 漢字音 口蓋音化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충구(2001), 「口蓋音化 規則의 發生과 그 擴散」,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237-268쪽.

권인한(2015), 「한자사전 字音 處理의 原則과 實際에 대한 比較」, 『동양학』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69-187쪽.

권정후(2008), 「近代啓蒙期 漢字字典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혜민(2018), 「한·중 한자음의 구개음화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기혜민·김정태(2018), 「한·중 구개음화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105, 한국언어문학회, 7-39쪽.

김민수(1961), 「‘ㄷ, ㅌ’의 변화현상-특히 그 본질과 국어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어문논집』 5, 민족어문학회, 7-18쪽.

김병욱(1991), 「『字典釋要』의 音韻現象研究」, 『韓國國語教育研究會 論文集』 41, 한국어교육학회, 0-25쪽.

김억섭(2014), 「한국 근현대 한자사전{옥편}에 대한 小考-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전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64, 한국중국언어학회, 113-131쪽.

김억섭(2016), 「한국 근현대 한자사전{옥편}에 대한 小考*-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전을

- 중심으로-, 『中國言語研究』 64, 한국중국어학회, 113-131쪽.
- 김림하(1998), 「中世國語의 齒音과 半齒音 研究」,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빈(2003), 「韓國漢字音의 口蓋音化와 介母消失에 關한 歷史的研究」,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177-221쪽.
- 김정태(1995), 「口蓋音化의 例外問題」, 『목원국어국문학』 3,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34쪽.
- 김주원(1997), 「구개음화와 과도교정」, 『국어학』 29, 국어학회, 33-49쪽.
- 김주필(1999), 「구개음화」, 『새국어생활』 9, 국립국어연구원, 181-191쪽.
- 김주필(2005), 「18세기 譯書類 문헌과 王室 문헌의 音韻變化-ㄷ口蓋音화와 圓脣母音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9-57쪽.
- 김주필(2006a),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한국학』 29, 한국학중앙연구원, 127-157쪽.
- 김주필(2006b),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 『어문학논총』 25,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87-109쪽.
- 김주필(2008), 「『오륜행실도』에 사용된 국어사 자료의 중층성-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의 확산 상태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27,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89-112쪽.
- 김주필(2013), 「口蓋音化의 擴散 過程과 『老乞大新釋諺解』의 特異性」, 『한국학논총』 3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79-410쪽.
- 김주필(2013),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와 특성」,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95-137쪽.
- 김주필(2018),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 『언어학』 1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15-150쪽.
- 김차균(1989), 「국어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복(1987), 「국어 구개음화고」, 『漢城語文學』 6,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87-101쪽.
- 김형규(1959), 「口蓋音化의 研究」, 『서울대학교 論文集』 9, 서울대학교, 155-180쪽.
- 나도원(2013), 「『字典釋要』 全字 初探*」, 『中語中文學』 54, 韓國中語中文學會, 407-433쪽.
- 나도원(2013), 「『字典釋要』俗字考」, 『중국어학연구』 53, 한국중문학회, 311-327쪽.
- 리금희(2007), 「구개음화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148,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34-39쪽.
- 박미수(2011), 「中世 以後 韓國漢字音의 變遷樣相 研究」,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채(1971), 「古代國語의 音韻體系 再構試論: 국어한자음의 분석을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55-97쪽.
- 박승철(2000), 「16世紀 南部方言의 音韻과 關聯된 몇 가지 問題 -‘△, ㄹ, 口蓋音化’를 中心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희(1986), 「t系 口蓋音化의 通時的 研究」, 『論文集』 20, 圓光大學校, 83-112쪽.
- 박종희·권병로(2011),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 『한글』 291, 한글학회, 47-72쪽.
- 박창원(2015), 「고대국어 자음체계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 이승재(2013), 「백제어 자음체계」의 간행에 즈음하여」, 『이화어문논집』 35, 이화어문학회, 247-271쪽.
- 배영환(2020), 「17세기 충북 방언의 구개음화 연구 - 우암의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121-146쪽.
- 배영환(2020), 「조선시대 왕실 남성의 구개음화 현상 연구」, 『語文論集』 82, 중앙어문학회, 41-73쪽.
- 배영환(2021), 「왕실 여성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언간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9, 한말연구학회, 111-136쪽.
- 성희재(1989), 「국어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상현(2009), 「朝鮮後期 文字言語學 研究 흐름과 字書 編纂」, 『동아한학연구』 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187-222쪽.
- 신용권(2010), 「近代漢語 구개음화 연구(I) -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중심으로」, 『中國文學』 33, 한국중국어문학회, 281-309쪽.
- 신용권(2010), 「近代漢語 구개음화 연구(II) - 변화의 양상과 원인을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33,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7-56쪽.
- 신용권(2017), 「근대중국어의 구개음화 현상」,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1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0-42쪽.
- 심영자(1983), 「근대국어의 구개음화시기에 대하여-관련된 음운 변화의 관점에서-」, 『국어교육』 4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17-223쪽.
- 안대현(2009), 「한국어 중앙어 ㄷ구개음화의 발생 시기*」, 『국어학』 54, 국어학회, 109-136쪽.
- 엄익상(2000), 「한자음 구개음화의 어휘 확산적 변화」, 『中國學報』 41, 한국중국학회, 197-231쪽.

- 여찬영(2003), 「지석영 『자전석요』의 한자 자석 연구」, 『語文學』 79, 韓國語文學會, 193-212쪽.
- 연설(2010), 「한국어 한자음과 중국어의 구개음화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정란(1990),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205-229쪽.
- 우민섭(1995), 「구개음화(口蓋音化)에 관련(關聯)된 몇 가지 문제(問題)」, 『어문연구』 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8-76쪽.
- 육효창(2006), 「구개음화에 대한 일고찰」, 『동국어문학』 18, 동국어문학회, 59-75쪽.
- 윤진영(2020), 「16-17세기 전라 간행 문헌의 구결문에 반영된 구개음화 연구」, 『배달말』 6, 배달말학회, 1-29쪽.
- 이결경 외(2021),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연구 - 牙·舌·脣音의 聲母를 중심으로 -」, 『중국학연구』 98, 중국학연구회, 1-38쪽.
- 이길경 외(2022), 「『全韻玉篇』 漢字音의 正音 研究 - 齒音의 濁音 聲母를 중심으로 -」, 『한중언어문화연구』 63, 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3-32쪽.
- 이길경·배영환(2022), 「전운옥편 한자음의 구개음화 실현 양상 연구」, 『어문론총』 94, 한국문학언어학회, 45-69쪽.
- 이돈주(1997), 「『全韻玉篇』의 正·俗 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34쪽.
- 이동석(1997), 「구개음화의 어휘화와 ‘ㅅ’ 중성에 대하여」,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269-288쪽.
- 이동석(2002), 「15세기의 ㄷ구개음화 현상 고찰」,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143-160쪽.
- 이명규(1974), 「口蓋音化에 對한 文獻的 考察」,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규(1995), 「中世國語 齒音의 口蓋音化」,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 한국음운론학회, 115-128쪽.
- 이승환(1973),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생성 음운 규칙」, 『한글』 152, 한글학회, 367-380쪽.
- 이준환(2007), 「고유어와 한자어 구개음화의 상관성」, 『國語學』 49, 국어학회, 33-68쪽.
- 이준환(2007),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 성모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이준환(2007), 「舌音系 漢字音의 口蓋音化: 諺簡 漢字音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301-335쪽.
- 이준환(2011), 「16세기 후반, 17세기 국어한자음운모(國語漢字音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

- (2) 『大東文化研究』 7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55-286쪽.
- 이준환(2012), 「18세기 국어 현실 한자음의 대응 및 변화 양상」, 『口訣研究』 28, 구결학회, 191-234쪽.
- 이준환(2012), 「국어학:『자전석요(字典釋要)』의 체재상의 특징과 언어적 특징」, 『泮橋語文研究』 32, 반교어문학회, 113-144쪽.
- 이준환(2012), 「朝鮮廣文會 편찬 『新字典』의 體裁, 漢字音, 뜻풀이*」, 『語文研究』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144쪽.
- 이준환(2014), 「중세·근대·개화기의 운서 및 자서 편찬의 역사」, 『동양학』 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59-186쪽.
- 이준환(2019), 「근대 전환기 국한문체의 형성과 자전, 사전, 학습서의 편찬」, 『배달말』 65, 배달말학회, 163-199쪽.
- 이충구(1991), 「韓國字典 成立의 考」, 『泮橋語文研究』 3, 반교어문학회, 9-27쪽.
- 이충구(2000), 「『新字典』의 근대자전 성격에 대한 고찰」, 『한중철학』 6, 한중철학회, 67-90쪽.
- 전일주(2006), 「康熙字典과 韓國 初期 字典 比較 研究-『字典釋要』와 『新字典』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26, 한국한문교육학회, 357-386쪽.
- 정몽양(2014), 「《화음계몽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철(1999),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7쪽.
- 정재철(2013), 「자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자전의 필요성*」, 『漢文教育研究』 41, 한국한문교육학회, 5-43쪽.
- 정진희(2017), 「구성원소 이론을 통한 한국어 구개음화 현상 연구」, 『언어학』 25, 대한언어학회, 163-181쪽.
- 최윤현(1983), 「口蓋音化의 研究 : -口蓋音化의 原因·時期에 對하여-」, 『文湖』 8, 건국대학교, 403-415쪽.
- 하강진(2010), 「『자전석요』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체재 변화」, 『韓國文學論叢』 56, 한국문화학회, 663-728쪽.
- 하강진(2018), 「자전 체재에서 본 『국한문신옥편』의 한국자전사적 위상」, 『동양한문학회연구』 50, 동양한문학회, 159쪽.
- 하영삼(2014), 「韓國 漢字 字典史에서 許傳 『初學文』이 갖는 意義」, 『퇴계학논총』 24, 퇴계

- 학부산연구원, 77-100쪽.
- 하영삼(2014), 「『新字典』“同字”類型考*」, 『漢字研究』 10,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27-86쪽.
- 하영삼(2016), 「『全韻玉篇』與『新字典』標題字增減考」, 『한국중어중문학 추계연합학술대회』, 한국중어중문학회, 377-381쪽.
- 한종호(2002), 「『字典釋要』 知, 端系字의 語音變化-語彙擴散理論의 適用可能性 檢討」, 『중국학』 17, 대한중국학회, 23-38쪽.
- 邢慎寶(2012), 「『全韻玉篇』 同字與宋本『玉篇』同上字 比較研究」, 『한자연구』 6,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285-293쪽.
- 邢慎寶·楊瑞芳(2011), 「『全韻玉篇』 研究」, 『漢字研究』 5,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293-322쪽.
- 洪允杓(1985),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研究」,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43-157쪽.

3. 전자자료

- 강희사전 <https://www.zdic.net/zd/kx>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main.do>
-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 세종한글고전 <http://db.sejongkorea.org/>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
-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main.jsp>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漢典 <https://www.zdic.net/>

【ABSTRACT】

A Study on the Palatalization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Focusing on post-18th Century Dictionary Literature-

One of the most prominent phonetic phenomena manifested in modern Korean is palataliza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palatalization in Sino-Korean character sounds in the post-18th century period. To achieve this,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ino-Korean pronunciations recorded in works such as "Jeonunokpyeon(全韻玉篇)"(1796?), "Jajeonseokyo(字典釋要)"(1909) and "Shinjajeon(新字典)"(1915) was conducted. During the proces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alization patterns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that correspond to palatalization environments. Additionally, we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s in palatalization over time.

Palatal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the fortis stops /ㄷ, ㅌ, ㅈ/, and the palate closure sound /ㄱ, ㅋ, ㆁ/ become palatal affricates /ㅈ, ㅊ, ㅉ/ before the semivowels /i, j/, and the laryngeal friction /ㅎ/ becomes the alveolar friction /ㅅ/. In a broader sense, palatalization also encompasses phenomena such as the addition of the semivowel /j/ before /i, j/ and the elision of /ㄴ/ before /i, j/. However, in Korean,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palatalization refers to the phonetic phenomenon where a series of non-palatal stops such as /ㄷ, ㅌ, ㅈ/ becomes palatal stops /ㅈ, ㅊ/ before the semivowels /i, j/. Based on this premise, in this study, the analysis is limited to the palatalization of 'ㄷ' that can occur before /i, j/.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character sounds in the works "Jeonunokpyeon", "Jajeonseokyo" and "Shinjajeon" where palatalization is both realized and not realized. Additionally, the patterns of

overcorrection and the timing of when palatalization was fully established in these lexicographic works are discussed in detail.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palatalization in Korean.

彘, 鈔彘, 剿彘, 媯彘, 峭彘, 僬彘, 怛彘, 諫彘, 悄彘, 整彘, 勦彘, 幪彘, 諷彘, 顛彘, 懣
 彘, 剝彘, 嶠彘, 麯彘, 鷓彘, 譙彘, 椒彘, 澗彘, 諛彘, 襍彘, 噍彘, 愀彘, 膳彘, 諂彘, 趨
 彘, 隕彘, 抄彘, 糲糲彘, 黷彘, 鋤彘, 秒彘, 幪彘, 焦彘, 超彘, 巢彘, 燭彘, 蕉彘, 樵彘,
 炒彘, 鑣彘, 招彘, 冢, 趙彘, 𠵱俗탁, 蹕彘, 𠵱俗탁, 湫彘, 𠵱, 筵彘, 𠵱, 灑彘正소, 巢彘
 正소, 抄豆俗彘, 肖소, 彘, 哨소, 彘, 肖소, 彘, 綃소俗彘, 鞘소俗彘, 鞘소俗彘, 稍소正彘,
 輶소俗彘, 輶소俗彘, 觸속, 燭속, 燭속, 鑄속, 躡속, 矚속, 囑속, 躡속, 瑯속, 瀾속, 躡속,
 躡속, 于속, 襍속, 矚속, 屬속, 속, 塚속, 𠵱, 斷속, 𠵱, 獸잡, 속, 蜀속正속, 蠋속正속, 鞞
 속正속, 冢속, 籠속, 塚속, 龍룡, 속, 룡, 啾쥬, 芻쥬, 雛쥬, 儻쥬, 緡쥬, 佳쥬, 墜쥬, 箒
 쥬, 獮쥬, 臭쥬, 箒쥬, 萩쥬, 槿쥬, 摯쥬, 雛쥬, 趙쥬, 酋쥬, 鮪쥬, 惆쥬, 椎쥬, 抽쥬, 就
 쥬, 錘쥬, 錐쥬, 秋쥬, 嶽쥬, 緡쥬, 穉쥬, 聚쥬, 瘳쥬, 揪쥬, 鞫쥬, 鯁쥬, 娶쥬, 媿쥬, 騅
 쥬, 鶖쥬, 丑쥬, 腿쥬, 構構쥬, 歿쥬, 鷲鷲쥬, 醜쥬, 楸쥬, 硯쥬, 甄쥬, 帚쥬, 緡쥬, 礎쥬,
 臼, 樞쥬, 우, 取쥬, 𠵱, 諷쥬, 𠵱, 趣쥬, 𠵱, 畜, 妯쥬, 畜, 出쥬, 倉, 捶쥬, 𠵱, 髻쥬, 𠵱,
 槌쥬, 𠵱, 魁쥬, 𠵱, 鎚쥬, 𠵱, 槌쥬, 𠵱, 迫쥬, 𠵱, 推쥬, 𠵱, 萑쥬, 환, 畜쥬, 𠵱, 畜, 𠵱,
 犖쥬正쥬, 擻쥬, 𠵱, 榘최正최, 𠵱, 𠵱, 蝨유, 𠵱, 魏유, 𠵱, 蕤유, 𠵱, 藪유正쥬, 杻유,
 𠵱, 軸속, 緘속, 蓬속, 蹴속, 蠹속, 閔속, 鯁속, 杻속, 顛속, 穉속, 蓄속, 舳속, 蹙속, 筑筑
 속, 築築속, 逐속, 𠵱, 竺속, 𠵱, 蹶속, 𠵱, 羸속正속, 祝쥬, 畜, 柚유, 畜, 縮속, 畜, 躡躡
 속俗속, 春춘, 梅춘, 椿춘, 樺춘, 杻춘, 輶춘俗속, 諄춘正속, 忱츄, 黜츄, 絀츄, 굴, 稊츄
 俗츄, 朮츄正츄, 幢츄, 衝츄, 冲츄, 衷츄, 蠹츄, 衝츄, 蟲츄, 忱츄, 种츄, 冲츄, 芫츄, 狎
 츄, 充츄, 忠츄, 種츄, 仲츄, 琬츄, 盅츄, 懂츄俗동, 幢동, 蟲, 置동, 蟲, 憇속俗용, 蟲,
 창, 장, 傭용, 蟲, 掙체, 蔞체, 漚체, 際체, 砌체, 滯체, 覬체, 癘체, 𠵱, 切체, 절, 醜체,
 철, 啜체, 철, 掣체, 綴체, 철, 餽체, 철, 僚체正체, 泚츄正츄, 체

【부록 3】 『자전석요』의 범례 및 체제의 원문

增補
字典釋要九例

一此書專為訓蒙而作字義之深奧不暇盡釋一
遵奎章全韻所釋之要義

一奎韻所載外添入字其分韻之法一依字典反
切而正之原本稱音未詳者依舊註音未詳

一字音從全韻玉篇而有俗音者從俗音如之字
本音而俗音習之類有正音者從正音如雙

字本音而正音習之類如若箇字拘音韻俗
廢其俗音而從原音也

一兩字音義俱同者兩字下各書與某字全而音

義則註于一字以從簡要如與與所之類

一兩字音義有甲通於乙而乙不通於甲者甲
註與乙通乙下註見于甲如一壹貳類

一字中有數種音義而與他字全他字通者先
書其義註明與某字全某字通而圈隔之以避
混同如乘乘不弗之類

一俗字之不載於字典者書于原畫之末而匡註
日鮮華音則依諧聲法而定之如番帖條歸過
鱒之類字載於字典而原註外別有俗義之慣
行者尾行匡註如頤倭倭之類

增補
字典釋要目錄

卷上

一畫	一部	文〇二五
二畫	二部	文〇〇一
三畫	三部	文〇〇二
四畫	四部	文〇〇三
五畫	五部	文〇〇四
六畫	六部	文〇〇五
七畫	七部	文〇〇六
八畫	八部	文〇〇七
九畫	九部	文〇〇八
十畫	十部	文〇〇九
十一畫	十一部	文〇一〇
十二畫	十二部	文〇一一
十三畫	十三部	文〇一二
十四畫	十四部	文〇一三
十五畫	十五部	文〇一四
十六畫	十六部	文〇一五
十七畫	十七部	文〇一六
十八畫	十八部	文〇一七
十九畫	十九部	文〇一八
二十畫	二十部	文〇一九
二十一畫	二十一部	文〇二〇
二十二畫	二十二部	文〇二一
二十三畫	二十二部	文〇二二
二十四畫	二十三部	文〇二三
二十五畫	二十四部	文〇二四
二十六畫	二十五部	文〇二五
二十七畫	二十六部	文〇二六
二十八畫	二十七部	文〇二七
二十九畫	二十八部	文〇二八
三十畫	二十九部	文〇二九
三十一畫	三十部	文〇三〇
三十二畫	三十一部	文〇三一
三十三畫	三十二部	文〇三二
三十四畫	三十三部	文〇三三
三十五畫	三十四部	文〇三四
三十六畫	三十五部	文〇三五
三十七畫	三十六部	文〇三六
三十八畫	三十七部	文〇三七
三十九畫	三十八部	文〇三八
四十畫	三十九部	文〇三九
四十一畫	四十部	文〇四〇
四十二畫	四十一部	文〇四一
四十三畫	四十二部	文〇四二
四十四畫	四十三部	文〇四三
四十五畫	四十四部	文〇四四
四十六畫	四十五部	文〇四五
四十七畫	四十六部	文〇四六
四十八畫	四十七部	文〇四七
四十九畫	四十八部	文〇四八
五十畫	四十九部	文〇四九
五十一畫	五十部	文〇五〇
五十二畫	五十一部	文〇五一
五十三畫	五十二部	文〇五二
五十四畫	五十三部	文〇五三
五十五畫	五十四部	文〇五四
五十六畫	五十五部	文〇五五
五十七畫	五十六部	文〇五六
五十八畫	五十七部	文〇五七
五十九畫	五十八部	文〇五八
六十畫	五十九部	文〇五九
六十一畫	六十部	文〇六〇
六十二畫	六十一部	文〇六一
六十三畫	六十二部	文〇六二
六十四畫	六十三部	文〇六三
六十五畫	六十四部	文〇六四
六十六畫	六十五部	文〇六五
六十七畫	六十六部	文〇六六
六十八畫	六十七部	文〇六七
六十九畫	六十八部	文〇六八
七十畫	六十九部	文〇六九
七十一畫	七十部	文〇七〇
七十二畫	七十一部	文〇七一
七十三畫	七十二部	文〇七二
七十四畫	七十三部	文〇七三
七十五畫	七十四部	文〇七四
七十六畫	七十五部	文〇七五
七十七畫	七十六部	文〇七六
七十八畫	七十七部	文〇七七
七十九畫	七十八部	文〇七八
八十畫	七十九部	文〇七九
八十一畫	八十部	文〇八〇
八十二畫	八十一部	文〇八一
八十三畫	八十二部	文〇八二
八十四畫	八十三部	文〇八三
八十五畫	八十四部	文〇八四
八十六畫	八十五部	文〇八五
八十七畫	八十六部	文〇八六
八十八畫	八十七部	文〇八七
八十九畫	八十八部	文〇八八
九十畫	八十九部	文〇八九
九十一畫	九十部	文〇九〇
九十二畫	九十一部	文〇九一
九十三畫	九十二部	文〇九二
九十四畫	九十三部	文〇九三
九十五畫	九十四部	文〇九四
九十六畫	九十五部	文〇九五
九十七畫	九十六部	文〇九六
九十八畫	九十七部	文〇九七
九十九畫	九十八部	文〇九八
一百畫	九十九部	文〇九九

鼠部	文〇四二
十五畫	頁一一九
齒部	文〇五八
十六畫	頁一二〇
龍部	文〇〇八
十七畫	頁一三一
龜部	文〇〇三
倫部	文〇〇四
總一萬六千二百九十八字	
鼻部	文〇二五
齊部	文〇〇五

【부록 4】 『신자전』의 범례 및 체제의 원문

新字典例

一 此書用康熙字典爲臺本剪其繁衍補其闕漏兼收新製之字新增之義以應新時代之用故名曰新字典

一 此書字次一遵全韻玉篇而體例從泰西字書其添入字亦遵玉篇例分韻編定

一 朝鮮字學以全韻玉篇爲準而字劃或有差爽故博考古文釐正

一 自來記音之用マニ等反切尾字者古雖有據今屬無證故此書直用가나다라等頭字但於其下附記原音以示重古之義如四々兒。梨立吞吞等皆代以來引之類

一 此書專主簡便所引經籍不過求其證明故但載書名不載篇目

一 字義詳解務從普通名物及方語之有異者不避重疊具收并載使多方人以便曉得

一 儀器服飾等名物多附圖畫以補註解之不逮皆取確有典據不敢妄加附會

一 朝鮮及日本新製字之慣用於文牒記註者亦應用上不可廢者也別附字類于下

一 此書初稿既成後支那「新字典」出體例注釋可合參考故不害原定之義例者

間或參以「新字典」以解明之一助

一 此書付刊後字義之發見者亦多當俟再版補入

一 此書編刊都屬倉卒字義脫誤難保必無博雅君子不吝指教俾爲完璧幸甚

新字典部首目錄

右傍數字筆數
左傍數字部數

一畫	二畫	三畫	四畫	五畫	六畫	七畫	八畫	九畫	十畫	十一畫	十二畫	十三畫	十四畫	十五畫	十六畫	十七畫	十八畫	十九畫	二十畫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論	風	麻	關	飛	雨	酉	貝	衣	舌	老	宀	白
朝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鮮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俗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字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新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字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義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朝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鮮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俗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字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義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	鼻